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석사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
-남북 간 통합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2015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김 윤 애

북한이탈주민의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
- 남북 간 통합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명 규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김 윤 애

김윤애의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월

위 원 장	<u>정 근 식 (인)</u>
부 위 원 장	<u>이 재 열 (인)</u>
위 원	<u>박 명 규 (인)</u>

국 문 초 록

연구자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분단의 역사인 북한이탈주민 사례자들의 생애사를 통해 분단 70년간 개인의 삶에 강한 구속력으로 작동하는 분단 권력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두 체제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의 재사회화과정을 남북 간 통합방식 비교를 통해 고찰하고 있다. 남한에서의 재사회화 과정은 어떠하며 그들의 재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에 대한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통합의 해답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참고자료,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에서의 사회화경험을 먼저 검토한 토대위에서 남한에서의 재사회화과정을 분단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국가중심의 강력한 통합구조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권력의 지배와 제도적 압력에 의한 식민형의 사회화를 경험한다.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데서 분단은 주민을 계층화 하고 성분의 굴레 속에 개인 삶을 구속시키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였다.

북한에서 가족은 국가주의 가족이다. 사회의 세포로 가족단위 생활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혁명위업수행의 프로젝트로 국가권력 의지에 복종되며 결혼, 부부, 자녀관계에 이르기까지 혁명적 담론은 적용된다. 경제난 이후 시장을 중심으로 국가 의존적 관계로부터 독립적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인민반(주거단지)은 가족단위로 통치하는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혼합 장으로 집단생활과 개인생활이 공존한다. 직장은 공민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는 단위, 조직생활의 거점으로, 이타심을 체득하고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웃 간에 오랫동안 정주된 생활을 하면서 전통적 상호관계가 유지되는 편이며 관계중심 · 관계의존에 힘쓰고 있다. 성분은 가족관계와 사회화 경험에 지속적 영향으로 작용하면서 인간의 생애를 틀 지우고 상흔을 구조화 하였다.

북한이탈은 단순히 국경만이 아닌, 신체에까지 침투되어 작용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과 감시의 구조, 분단권력에 도전하여 휴전선을 넘어서는 과정이다. 3국에서 불법체류자로 비공식적 관계를 맺고 1차적 생명유지를 위한 몸의 상품화, 국제결혼시장에 노출되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다. 점차 안정적이며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인간의 욕구로 발전하면서 남한 행을 선택한다.

남한에서 재사회화는 북한에서의 강력한 국가적 통합으로부터 사회적 통합으로 이완되는 과정이다. 탈북과 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 다원화 가족으로 변화되며 불안정한 가족기반을 이루고 있다. 남한에서 맺은 부부관계는 혼인관계가 아닌 동거, 통일 후 현재 관계를 파기하고 본래의 부부관계를 재형성할 수 있는 가변성을 띠고 있다. 자녀관계는 파편화되어 북한, 중국, 남한으로 분산되어 초국적 범위에서 부모역할을 담당한다. 직장생활에서 북한의 학력과 경력이 업종과 분야에 따라 이어지거나 단절되기도 한다. 집단주의 질서 속에 느끼던 소속감, 성취감은 좌절되면서 조직적 분자로부터 개별적 원자로 분화된다. 북한에서 친밀하던 이웃관계는 남한에서 거의 단절된 상태이며 인간관계 형성이 가장 큰 난제로 남게 된다. 남한사람들의 무시와 차별, 반공주의, 국가안보주의에 따른 차별화전략, 등 구조적 장벽으로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닌 ‘탈북자’라는 경계인으로 살고 있다. 남한사회의 이러한 객관적 자아에 의한 사회적 압력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비주류로 분리되어 비능동적인 재사회화 과정을 경험한다.

연구 전 과정에 남북이 대치된 분단 구조에서 과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통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고민은 증폭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삶은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가 분단에 의해 어떻게 변형되고 굴절되고, 파괴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사례자들의 재사회화 과정에는 분단 상흔이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다. 이를 구조화 한 권력, 즉 분단권력이 해체되고 남북한 사회통합을 이룰 때 북한이탈주민들은 비로서 우리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안정적 위치를 찾게 될 것이다.

주요어: 북한이탈주민, 권력, 성분, 감시, 조직생활, 관계, 편견,

학 번: 2012- 23888

<목 차>

I. 들어가며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4
3. 연구의 질문과 의의	10
4. 연구 내용 및 방법	12
II. 국가적 통합: 북한에서의 사회적 관계	15
1. 사회의 세포: 가족(가정)	16
1) 혁명적 담론에 의한 결혼	18
2) 구조적 권력에 기반한 부부 관계	22
3) 국가적 책임에 따른 자녀관계	30
2. 지역 사회: 이웃관계의 조직화	37
1) 동(읍, 리)사무소	37
2) 국가기충단위: 인민반	38
3. 공민의 의무수행: 직장	44
1) 조직생활을 통한 자아 확립	44
2) 위계질서와 수평관계	48
4. 동지(지인)	49
1) 친밀함과 경계심	49
2) 관계중심 · 관계의존	51
III. 이탈에서 정착으로의 진입과정	53
1. 북한이탈의 의미	53

1) 사회적 관계 단절	53
2) 권력 감시망 이탈	56
2.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정체성	62
1) 북한이탈주민의 기존개념	62
2)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개념	63
3. 입국 전 임시단계: 비공식적 사회관계	68
1) 탈북의 배경과 요인	68
2) 중국에서 새로운 가족 형성	71
3) 남한입국과정	74
4. 남한정착의 의미	82
1) 공민에서 국민으로	82
2) 개인정체성 회복	83

IV. 사회적 통합: 남한에서의 사회적 관계형성 85

1. 대한민국 국민 되기	86
1) 사회적응교육	87
2) 정부의 이탈주민지원정책	88
2. 남한은 어떤 사회인가?	89
1) 반공주의	89
2) 경쟁주의 · 일방적 동화주의	90
3) 다원적 개인주의	92
3. 가족의 다원화	93
1) 정착과 동화의 지름길: 결혼	95
2) 가변적 부부관계	99
3) 경계선 안팎에 흩어진 자녀들	108
4. 지역사회 및 사회적 공감대	118
1) 사회적 편견	118

2) 지역사회	125
5. 남한사회에 위치 짓기: 직장	130
1) 관계의 원자화	131
2) 북한 직장경험 단절	133
3) 북한 직장경험 연결	136
4) 해외생활 경험 연결	138
6. 새로운 인맥 형성하기: 동료(지인)관계	138
1) 남한사람과 어울리기	139
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141
 V. 나가며: 이탈과 정착의 사이에 선 경계인	145
1. 두 체제경험 비교	145
1) 남과 북에서의 장점과 단점	145
2) 남과 북에서의 사회적 관계 비교	148
2. 마무리	151
1) 글을 정리하며	151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153
 참고문헌	156

<표-그림목차>

<그림 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각적 접근과 시각	5
<그림 1-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제언	8
<표 1-1> 사례자 인적사항	13
<그림 3-1>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입국경로	70
<그림 4-1>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2014년 10월호	91
<그림 5-1> 북한이탈주민 남과 북에서의 사회적 관계 비교	150

I.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재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남한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이는 통일이 미래형이 아니며 현재진행중임을 보여준다. 오랜 분단의 역사와 다른 체제는 문화적 이질감과 갈등, 불신, 오해를 초래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수면위로 떠오르는 연이은 북한이탈주민 재입북 사례는 우리 사회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통합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반성하게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입국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재사회화 과정을 겪는 사람은 북한이탈주민만이 아닌, 이민, 난민, 망명, 국제결혼 등의 이유로 새로운 국가의 일원으로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분단체제의 특수성으로부터 다른 이민자들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북한관련연구는 반드시 그들만의 것, 반쪽만의 것이 아닌, 전체 민족사와 분단의 흐름, 통일의 지향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더욱 그러하다¹⁾ 북한이탈주민문제를 다룸에 있어 주체적 입장에서 분단의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연구자와 분단경험이 없는 민족이나 서구의 이론을 교조적으로 적용할 경우 같은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문제의식에 있어 상이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에 대한 연구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관련 연구는 모든 현상의 원인을 북한체제나 권력에 전가하거나 서구자본주의 잣대로 재보려는 일방적 경향이 보편적이며 남과 북을 나란히 수평대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려는 객관적인 시각이 부족함을 지적하게 된다. 연구의 배경과 시공간은 주로 탈북, 중국체류, 남한에 치우쳐 있는 데로부터 두 제도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과거와 현재의

1) 강정구, 1996, 『통일시대의 북한학』, 당대, pp50~51.

맥락이 단절되거나 굴절될 수 있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한 민족이면서도 분단체제하에서 적대국, 폐쇄적이고 가난한 곳에서 온 불투명한 사람,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3중적인 사회정체성을 가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문화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성격의 집단으로 보고 있다.²⁾ 북한이탈주민들이 지닌 3중적 사회정체성은 분단으로 하여 분열된 한국인의 정체성이며 오랜 분단의 세월이 만들어낸 인격체가 이민, 다문화도 아닌 우리의 모습이 타자화 되어 비쳐지는 것이다.

해방과 함께 외세의 힘에 의해 강제 분단된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는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 문화, 사회질서의 파괴를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공동체 구성원들은 혼란, 비인간적인 억압을 강요당하면서 익숙과 극복의 과정을 거쳐 상호관계를 변형시키며 공고한 체계를 형성하였다. 분단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산생시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층의 지배적 힘에 의해 사회적 구조와 우리의 삶 전체를 분단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경시켜 버렸다. 각 분야의 사회현상은 분단으로 인해 특징지어진 사회구조적 및 제도적 요인과 결부되어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하며 분단에 의해 파괴되는 인격과 자아정체감,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

인간 삶의 이야기는 그 정체성의 원천인 공동체의 이야기에 속하며 소속, 역사, 서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과거의 연속으로 이어진 그 삶을 분리한다는 것은 현재의 관계를 변형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북쪽에는 태어나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열정과 노력, 사회적 평가와 인정, 지위, 명예, 재부를 비롯한 모든 성취물과 지금까지 삶의 전부가 남아있다. 북한을 떠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과거로 돌아가고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새로운 터전에서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삶과 사회적 유대의 원천이 어떻게 형성되어 삶을 구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그 존재의 형성과정에 대해

2) 황선영, 200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배제 요인”, 『사회복지정책』, 제36권 3호, p350.

3) 이효재, 1985,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p15.

이해하는 것이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의 근본원인을 진단할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퍼즐에 엮어 분석하고 성찰할 때,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삶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안을 얻을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연구는 인간 그 자체를 이해하고 성찰하려는 노력의 결과여야 하며 단순히 평면적이며 성과를 위한 생산성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본 연구에서는 두 체제를 경험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를 남북 간의 통합비교를 중심으로 밝히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강력한 국가중심의 통합구조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개별행위와 주민생활체계 또한 권력의 지배와 제도적 압력을 받는 식민형의 사회화를 경험한다. 획일화와 집단주의원리에 의한 국가적 통합에 머물러 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정착은 다원화, 개인주의, 이념갈등과 사회적 편견 속에 재사회화를 통해 남한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을 사회화 · 정치적 재사회화과정으로 접근한 연구(정주신 2007, 현인에 2014, 김승철 2006)는 있으나 서로 다른 두 사회의 사회적 관계를 통합방식비교를 통해 연결시켜 연구 분석한 논문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독창성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 새롭게 밝히는 것은 무엇인가? 북한이탈주민의 기존 법적 개념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학적 개념, 북한이탈과 남한사회정착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이탈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까지 스며든 권력의 구조와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는 과정이다. 북한이탈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사회적 성취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남한정착의 의미는 미시적 역할에 의한 분단질서의 와해, 집단주의질서에 억압되어 있던 개인정체성의 재형성, 정체성의 근원지로 돌아오는 귀향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타자에 의해서가 아닌 북한이탈주민 주체를 대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논문과 1차 자료, 심층면접을 토대로 연구목적을 입체적 이면서도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했던 미시적 영역을 잘 드러내 보이는 것이 최선의 과제일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남북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자체가 남한사회의 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토대로 향후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⁴⁾

북한이탈주민정착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권, 이념, 인권, 정신·심리, 경제, 복지, 문화적 차원으로 분류된다.

국가지원정책과 사회적 지지, 인권문제, 결혼 및 관계중심,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성의식, 문화적 이질감, 경제적 약자, 사회적 배제와 소수자의 맥락에서 연구하려는 경향이 주를 이룬다.(서재진 2002, 박은숙 2008, 박채순 2011, 황선영 2009, 한주희 2006, 김광웅외 2001, 김미령 2005.)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을 사회적 연결망구성과정으로 보고 지역사회, 주거지, 남한주민의 태도와 수용, 관계,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 교회, NGO단체, 봉사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갈등, 이해, 인정, 자립, 안정, 만족, 정부지원,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착과정을 조명하고 있다.(임여식외 2011, 이우영 2003, 이민영 2009, 조용관 2010, 주은주외 2011, 홍순혜외 2003, 황선영 200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에 관련하여 권수현(2011), 박은숙(2008), 황선영(2009)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서 남한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단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민족배타주의며, 이민자들의 한국사회부적응이 커질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정책을 민족적 관점과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남한사회에서 민족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는데 반해 폐쇄된 공간에서 민족공동체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던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정체성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분단체제의 특수상황에 있는 우리는 외국에서 바라보는 탈북자에 대한 시각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견해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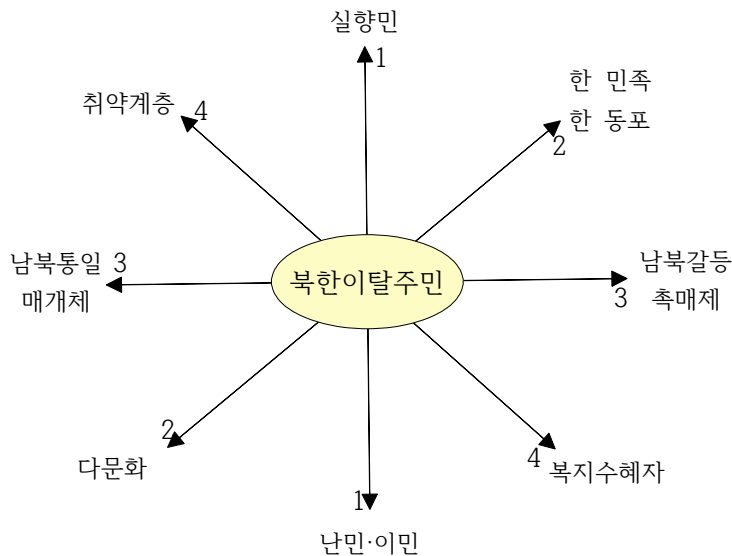
4) 정길호, 2009,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방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p1.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분열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우리의 정체감은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며 통일되어 있지 않다. 찢기고 쪼개진 모순된 상태, 분열되고 억눌린 상태에 있다…….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의 통일은 제 아무리 도통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현실을 초월하여 홀로 완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통일된 민족국가를 달성함으로써 일체감이 가능하며 따라서 한국인으로서의 자아통일이 완취될 수 있는 것이다.”⁵⁾

편향적인 북한이탈주민관련 연구는 남한정착 성공사례가 많음에도 그들의 남한사회적응의 문제점을 확대 · 왜곡 재생산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심어 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시각을 대칭관계로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각적 접근과 시각

5) 이효재, 1985,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p24.

위 그림에 따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① 실향민 : 난민·이민

- 실향민적 관점에서 접근한 오인혜(2007), 전우택외(2011)는 북한이탈주민을 분단체제의 사회적 결과로 나타나는 집단으로, 남북한 주민통합과 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가정체성 모색의 필요성과 남북을 지리학적으로 넓게 바라보는 통찰력을 제시해준다.
- 난민·이민자적 시각으로 접근한곽정래(2011), 김도태(2012)는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 형성이 남한사회에서 재사회화의 한 과정으로 보고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사회통합형 사회교육프로그램,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 구성원들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희영(2012), 김성경(2007)은 북한이탈주민의 연구에서 ‘탈북행위’라는 근시안적인 시야를 넘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민족 공간의 경계 확장, 초국적 이주의 관점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동아시아 이주의 네트워크라는 초국적 이주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② 한 민족·한 동포 : 다문화

- 한 민족, 한 동포적 시각으로 접근한 길준규(2009), 유병선(2011), 이우영(2004), 조동운외(2012)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은 통일의 과정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적 면에서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 통일을 전후로 독일처럼 집단탈북에 대처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며, 정치사회적 의미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중요성임을 강조했다.
- 다문화적 시각에서 바라본 서유경(2013), 권수현(2011)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남한 내 존재하는 인종 및 다문화적 소수집단을 포함하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시켜 탈북자와 이민자에 대한 남한국민들의 포용성과 개방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③ 남북갈등 촉매제 : 남북관계 매개체

- 북한이탈주민이 남북갈등을 부추기는 촉매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한 김

영석(2011)은 탈북자단체들의 인권운동과 전단 살포행위가 남북한 주민 모두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이를 반대하거나 지원하는 여야세력의 대결, 남북관계 경색, 즉 남남갈등, 남북갈등의 기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을 민주화하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우영(2004)은 귀순용사로부터 이탈주민의 위치로 바뀌어온 북한이탈주민이 남북관계의 걸림돌이기는 하나 폐쇄된 북한지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보여주는 본보기로서 다수자가 소수자를 포용하는 입장에서 분단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북한이탈주민을 남북관계 매개체로 바라본 정주신(2011), 임정빈(2012)은 남북한 소통이 북한이탈주민들과 그의 가족들과의 전화 통화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회이며 통일이 건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④ 복지수혜자 : 취약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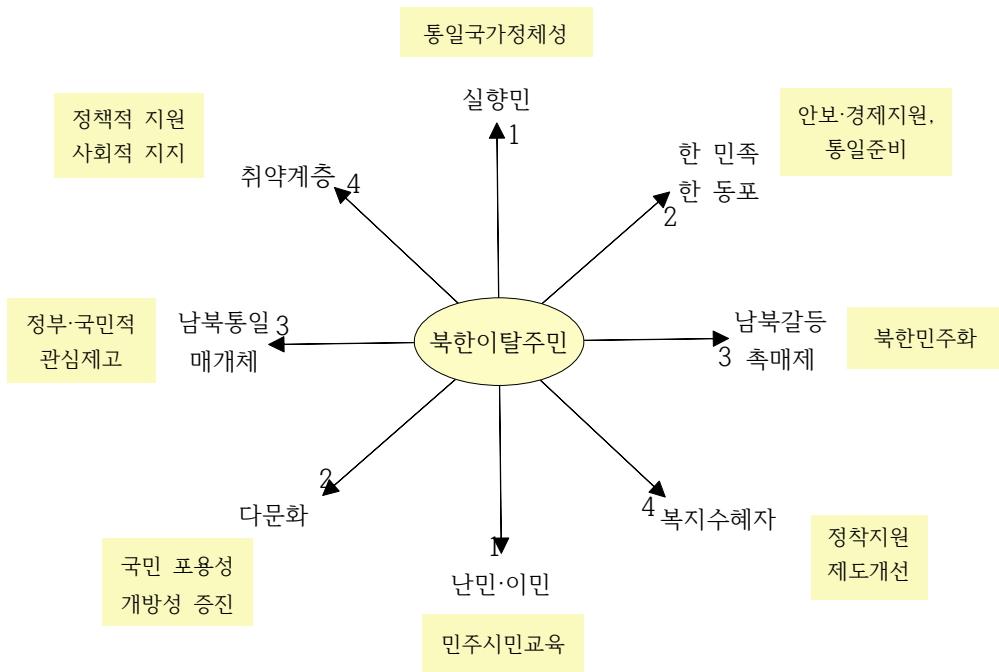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을 복지수혜자로 바라본 최성근(2011), 박성재(2012), 신원식외(2010), 노경란외(2009), 강창구(2012), 김현경(2012)은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적응을 지원하는데서 통일정책의 일환에 앞서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정착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취업지원, 가족지원프로그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사회 취약계층집단으로 접근한 이지경(2012), 유지웅(2007), 황선영(2009), 이종은(2008)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공간 · 사회관계적 · 경제적 소외 및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취업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기존연구의 경향은 북한이탈주민을 수혜자로서의 성격으로 국한시키며, 능동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을 거의 배제시켰다.⁶⁾

6) 이용화, 200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연구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5.

이상의 정책적 제언들을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제언

정주신(2007)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정착을 위한 사회화 과정을 가정, 친구집단, 학교 교육 및 생활, 직장생활, 사회적 여론의 단면에서 구조 기능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가족은 남한사회정착의 중요한 변수로서 일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경제·심리적으로 빨리 안정될 수 있으나 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 교사·친구와의 관계, 낮은 학업성적, 탈북자라는 열등의식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북한에서 국가의 배치로 직장에서 일하던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쟁사회에 익숙하지 않아 직장근속·만족도가 낮은 편이며, 북한이탈주민들을 안보의 차원에서 관리하는 정부에 의해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거나 국민간 소통과 공유의 부재로 정착 과정에 문제점을 낳는다고 지적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심리적

부적응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정부의 관심,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재사회화과정을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한 논문은 현인애(2014. 박사학위논문), 김승철(2006. 석사학위논문)이다. 현인애(2014)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참여형태를 분석하여 정치적 재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과 북한에서의 정치적 경험과 가치관이므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최승철(2006)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가치관, 사고·행동방식에 있다고 보고, 이를 형성한 북한에서의 정치적 태도와 학습효과와의 상관성을 밝히고 북한 정치사회화의 영향이 한국사회 적응과정에 강하게 작용함을 주장하였다.

“.....탈북자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다양성을 보여준 것은 한국에서 탈북자가 북한현상이면서 또한 남한현상인것처럼, 탈북자 문제가 한국문제의 연구대상임을 각인시켜준 것”⁷⁾이라는 지적은 적절하다. 북한이탈주민문제는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닌 분단질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며, 남북한 사회통합의 준비를 갖추는데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을 주로 북한사회에서의 정치, 문화적 요인, 두 체제간 차이, 탈북의 상흔이 어떻게 변수로 작용하는가를 보여준다. 대책적 제언은 주로 지원정책이나 국민공감대, 교육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가치관과 질서에 익숙해질 때 남한사회정착과 사회적 통합이 가능함을 열어두고 있다.

북한과 3국에서의 경험이 남한사회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인 요인으로 될 수는 없다. 연구자는 남과 북 두 체제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생애에 투영된 분단구조에 주목한다. 이 연구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한 민족, 두 체제의 틀 안에서 연구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분단 상태에 있는 공동체를 비록 한 독립된 분석적 단위로나 생활단위로 불가피하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 가족 및 전

7) 이경석, 201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방안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

집단이 제각기 지닌 과거와의 연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공동체를 연속적인 역사적 과정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과거가 없는 추상화된 실재로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부족 점을 보완하고자,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에서의 사회화 → 사회적 관계 단절(탈북 및 해외불법체류) → 남한에서의 재사회화 과정을 분단의 맥락에서 통틀어 조명하여 사회적 통합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3. 연구의 질문과 의의

1) 연구 질문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사회화 경험은 어떠했는가?

– 북한이탈주민은 국가권력의 통제와 억압이 작동하는 집단주의 체제에서 권리보다 의무가 앞서고, 집단적 가치관을 체득하고 이타적 삶을 경험하였다. 이것을 알아야 남한생활과 비교 고찰하여 사회적응과 통합의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북한에서의 사회화과정을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을 이끌어낼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법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남한사회정착을 연구하는데서 개념정의는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용어는 분단구조에서 타방에 대한 일방의 자의식의 결과로, 북한이탈주민 주체와 특수적 지위, 북한사회를 반영한 사회학적 개념이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 정의하는 개념 속에는 두 사회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주체에 따른 북한사회의 속성, 분단의 현실과 특수성, 두 체제 간의 법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8) 이효재, 1985,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p16.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재사회화 과정은 어떠한가?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나이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0살로 계산된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신변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직원, 도우미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에 좌절과 포기, 성취와 만족을 얻을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넘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에도 부딪치게 된다.

－ 자유경쟁과 자본주의 시스템에 익숙해지며 기존의 가치관과 습관, 태도도 변화될 것이다. 기존의 것을 버려야 할 것도 있지만 버릴 수 없는 나름의 소중함도 있을 것이며 남과 북, 두 사회에 대한 비교관은 정착기간이 오래될수록 넓어질 것이다. 이러한 면을 고찰할 것이다.

셋째 - 북한이탈주민의 재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완전히 이탈한 것인가? 북한이탈주민 절대다수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다. 전화 통화나 송금을 통해 가족과 연계되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북에 남은 가족들과의 관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착에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에 녹아있는 요인들을 분석해볼 것이다.

－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을까?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한 남한사회는 반공·반북의식이 뿌리 깊고 북한과 언제든지 싸워야 하는 대결구조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한 민족으로 통일은 해야 하는 모순적인 사회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재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첫 형성기부터 남한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다루며 그 속에는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의 분단의 역사가 스며있다.

이 연구를 통해 남한사회통합의 문제점들과 향후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을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 주체적 입장에서 그들에 대한 이해와 삶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분단에 의해 굴절되고 이그러진 사회적 관계와 현상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시각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둘 - 부정적 면이 강조되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경험에서 긍정적 요인들과 잠재력을 이끌어낸다는 데 있다.

셋 - 수동적 존재로만 인식되어진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체적이며 미시적 행위가 분단질서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밝힘으로서 남북통일에서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킨다는 데 있다.

4. 연구내용 및 방법

① 연령 · 학력 · 성분 · 정당 · 직장직위 여부

- 40~50대 연령층 위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는 연륜에 따른 사회적 경험이 연구 자료를 풍부히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 분단의 맥락에서 설명하려는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분단 상징의 대표적인 연구모형을 포함시켰다. 사례자 10명 중 4명은 각각 해방 후 숙청(고립)된 부농, 6. 25전쟁 월북자, 월남자, 국군포로의 자녀들을 포함시켰으며, 6명은 노동자 2명, 사무원 2명, 지식인 1명, 군인 1명이다.

- 탈북 전까지 직장생활경험자 5명, 부양자 3명, 무직 2명, 모두 10명이며 그중 대졸 3명 중졸 7명이다. 10명중 4명이 노동당원이었다.

② 탈북의 유형과 부류

- 탈북유형은 직행(해외체류 경험이 없는 사람), 해외체류자로 탈북형태는 가족동반탈북, 단신탈북으로 나누어 사례자를 선정하였다.

- 탈북의 부류는 불법도강(국경을 넘거나) 휴전선 넘는 자, 해외대열이탈자⁹⁾, 세 부류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각 이에 해당하는 사례자를 선정하고, 그중 10명중 불법도강자 6명, 해외대열이탈자 2명, 휴전선 넘는 자 2명이다.

9) 북한에서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대열을 편성하고 북한 내에서도 동일한 조직 및 집단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이탈(탈출)한 사람들을 대열이탈자라고 한다.

③ 지역별

－ 북한이탈주민의 절대다수가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량강도, 함경남도 출신인데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현재 함경북도 출신이 67.3%, 함경남도 출신이 9.4%, 양강도 출신이 7.5%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84.2%를 차지하고 있다.¹⁰⁾ 특히 함경북도와 량강도는 중국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교역, 밀수, 친척방문, 왕래를 통한 중국의 경제, 문화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충돌을 일으켜 국가권력의 기능과 통제가 약화되거나 굴절될 수 있는 요소로 작동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이른바 비사회주의가 활발한 지역이다.

－ 이로부터 특정지역이나 어느 일면에 치우칠 수 있는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평양시 2명, 평안남도 1명, 개성시 1명, 황해남도 1명, 양강도 1명, 함경북도 2명, 함경남도 2명을 선정하였다.

－ 한 사람당 보통 2~3시간을 소모하여 그들이 생애사를 구체적으로 구술하도록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④ <표1-1> 사례자들의 인적사항

사 례 자	성 별	나 이	탈북/ 입국 년도	탈북 동기	탈북 부류	북한 학력	북한 직업	남한 직업	가족구성	결혼유무	
										북	남
성 남	남	45	2003 2004	남한 사회 동경	해외 체류	중졸	운전 기사	자 영 업	부모 동반입국	결 혼	탈북 여성 과 결혼
송 남	남	45	2013 2013	체제 항거	불법 도강	중졸	외화 별이 일군	무 직	가족 동반입국	결 혼	북한의 결혼 유지
철 남	남	42	2005 2005	해외체 류 금전 문제	해외 체류	대졸	전자 기술 자	전자 회사 원	북에 가족 있음 연락 못함	결 혼	미혼
명 남	남	50	2013 2013	권력의 박해	레성 강	중졸	돌격 대	중졸	북에 가족 있음	결 혼	미혼

10) 박명규외, 2014, 『북한사회변동』, 서울대평화통일연구원, p23.

석 남	남	51	1998 1998	신변 위험	휴 전 선	대졸	군인	의사	북에 가족 있음 연락 못함	결 혼	함께 탈북한 여성과 결혼
숙 이	여	49	2010 2010	경제적 어려움	불법 도강	전문 대 졸업	양정 사무 원	식당 써빙	북에 남편 아들 있음 송금하고 있음	결 혼	함께 탈북한 남자와 동거
경 이	여	53	2007 2010	중국 간 딸을 찾아	불법 도강	중졸	방송 원	결혼 정보 회사 운영	딸 동반 입국, 북에 남편 있음 연락단절	결 혼	한국 남성과 동거
소 연	여	55	2003 2004	성분 차별	불법 도강	중졸	계산 원	무직	북에 남편 동생 있음 남편과 연락단절	결 혼	미혼
옥 이	여	42	1998 2005	경제적 어려움	불법 도강	중졸	노동 자	주부	북에 언니 있으나 연락 없음	미 혼	중국 남자와 결혼, 남한 남성과 동거, 결별
민 이	여	43	1998 2007	경제적 어려움	불법 도강	중졸	노동 자	과일 장사	북에 형제 있음 연락, 송금 자주함	결 혼	중국 남자와 결혼, 남한에 서 미혼

⑤ 연구방법

심층면접을 통하여 얻은 자료는 사례자들의 생애사 기록이다. 따라서 전체 생애사적인 경로를 따라 각 부분별 특성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북한에서의 사회화와 탈북 경험이 그의 인생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남한에서의 재사회화에 결합되어지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북한사회를 왜곡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내재적 작동원리, 이념과 목적에 입

각하여 설명하고 비판하는 내재적 접근법을 중시해야 한다.¹¹⁾

북한이탈주민 삶에 스며있는 분단 · 국가권력, 개인과 사회,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를 내재적 방법을 접근하여 입체 · 미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연구의 최선목표이다. 심층면접 자료와 병행하여 선행연구, 문헌, 1차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II. 국가적 통합: 북한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

우리의 삶은 총체인 개념으로 ‘관계’라 정의할 수 있다. 혈연적으로 연결된 가족, 친구, 이웃, 직장, 지역, 국가 간의 씨실과 날실처럼 짜이고 엮인 관계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삶은 이어진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 집단의 비인간적 문화와 억압적인 구조는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는 자아정체감에 혼란과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¹²⁾

분단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국적 범위(남북한 영역)에서 혁명승리의 슬로건아래 세습통치 정당화와 그 실현을 위한 노동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안에서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그에 대응한 내부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항시적 구실로 작동되어 왔다. 이 과정 속에서 국가와 사회, 주민의 일체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북한주민들은 강력한 국가적 통합, 다시 말하여 당, 국가권력과 수직으로 연결된 식민형의 사회화를 경험한다. 식민형의 사회화란 전체주의하에서 집단적 정체성이 강조되고 개인정체성이 미숙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권력의 억압과 통제, 획일적 가치와 복종이 강요되는 사회화 유형을 말한다. 분단 상황에서 남한의 반공정권과 미국의 대북강경노선은 북한정권의 절대적 지도력과 정권과 대중의 일체감이라는 극적인 외적 효과를 부여하였으며, 북한대중은 어렵사리 이룩한 ‘사회주의정권의 보위’와 ‘통일조국의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이를 수령과 당 지도부는 적절히 활용하였다.¹³⁾

11) 송두율, 1990, 『현대와 사상: 사회주의 · (탈)현대 · 민족』, 한길사, p117.

12) 이효재, 1985,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p20.

13) 이선태외, 1994,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 민중사, p76.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데서 분단은 출신, 성분, 지위, 학력을 규제하고 결혼, 부부, 부모, 자녀 간에도 불신의 인장을 새기고 강력한 감시, 통치 기제로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하였으며 그로부터 경험하는 한 맺힘, 비극, 좌절은 지속적으로 행위와 의식에 영향을 미치었다. 또한 성분의 굴레 속에 개인 삶을 구속시키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였다.

1. 사회의 세포: 가족(가정)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가정은 가족성원들과 주거공간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북한에서는 가족과 가정의 개념을 별도의 구별 없이 포괄적으로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개념과 가정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기로 한다.

가족이론에서 핵심주제는 가족과 전체 사회와의 관계, 가족과 가족성원들의 관계, 가족의 사회적 기능과 개인적 기능이 어떤 것인가¹⁴⁾ 라고 할 때 “가족은 후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회적 생명체라는 점에서 민족과 인류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집단의 세포”라고 말할 수 있다.¹⁵⁾ 사회를 각 기능과 역할을 담당 수행하는 장기와 기관으로 구성된 생물유기체 개념으로 설명하는 구조기능론을 북한은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정치적 생명체설로 정의하고 가족은 정치적 생명체의 기초단위인 세포라고 한다. 세포가 생명활동의 기층단위이라면 가정은 인간생활의 기층단위이며 가정에서 사회생활의 기본적 과정이 진행되므로 세포가 건전해야 전체로서의 사회도 건전하고 빨리 발전할 수 있다.¹⁶⁾

북한에서 가족은 가족단위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된다. 수령을 가장으로 하는 하나의 대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수령의 영도를 보장하는 당의 영도체계에 종속되어 세포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의무와 책임, 가족성원들에 대한 교육 교양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북한의 가족은 ‘이데올로기’ 실현을 위한 하부집단으로, 가족의 기능은 북한

14) 김양희외, 1997, 『결혼과 가족』, p14.

15) 황장엽, 2001, 『인생관』, 시대정신, p280.

16) 『조선대백과사전』, 1974, 백과사전출판사. 제1권, p209.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주의혁명의 실습장’, ‘생산의 기본단위’이며 이러한 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일체의 전통적 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족제도, 가족생활만이 인정된다.¹⁷⁾

가족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와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승리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민족적 · 계급적 자각을 높이고 주민들의 열성을 불러내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¹⁸⁾ 가장에 대한 절대적 권위와 복종을 가치로 하는 전통사회의 가족이념을 수령절대주의 논리에 적용시켜 식민지경험과 6.25전쟁을 통해 국가와 인민을 구원해준 해방의 은인 아버지 수령에 대한 충효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의 지배적 이념으로 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당의 영도는 어머니의 역할로 호명되어 모든 가정을 관리하면서 사적공간은 공적영역의 한 부분으로 위치하고 있다.

가족은 다양한 사회집단, 개인, 국가가 상호간 지배 · 저항 · 타협하는 사회적 과정에서 전략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통제기제로서 이용(악용?)되어 왔으며 현존 사회질서가 비민주적이거나 착취적일 때 이를 극복하려는 입장에서는 앞서 거론한 가족의 사회화 기능이 지배집단의 통제기제로 인식될 수 있다.¹⁹⁾ 북한은 가정이 인간적 삶의 터전이기에 앞서 당적 통제와 정책적 과업을 촉진하는 매개집단으로서의 도구적 의미를 지닌다.²⁰⁾

북한에서 가족의 형성과 자녀양육, 노부모 돌봄을 비롯한 가족단위의 생활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혁명위업수행의 프로젝트로 국가권력 의지에 복종해야 한다. 가족의 부양은 대가정의 아버지인 수령과 국가가 책임져 왔으나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국가배급기능은 소멸되었다.

시장 활동을 통한 가족중심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국가의존관계로부터 점차 독립성을 띠면서 이념적 가치보다 가족중심의 가치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가족의 생계책임은 여성들에게 전가되어 모계가족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공식적 생산 활동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의 특성으로 남편에게 절대복종하고 우대하는 가장중심의 지배

17) 이정희, 2006, 『남북한 비교사회론』, 재인용, 경북대학교출판부, p103.

18) 『조선대백과사전』, 1974, 백과사전출판사, pp209~229.

19) 장경섭, 2009, 『가족 · 생애 ·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p40.

20) 우정, 2000, 『북한사회구성론』, 진솔북스, p273.

적이며 수직적인 위계질서는 고질적으로 남아있다.

사례자들의 생애와 가족관계에는 국가권력, 분단의 상흔이 깊숙이 뿌리 박고 있었다.

1) 혁명적 담론에 의한 결혼

가족은 먼저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북한에서 결혼이란 개인의 인생문제에 앞서 수령과 당을 위한 삶이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동지적 결합으로 칭한다.

(1) 국가권력 의지에 따른 결혼

결혼은 개인의 선택일 뿐 아니라 공민적 의무와 당의 정책적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주의 영향력 아래 결혼이 통제·조종되거나 사회·조직적 요구와 압력이 가해지기도 한다. 결혼에도 권력이 개입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결혼은 남자 18살, 여자는 17살부터 할 수 있다.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 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²¹⁾

남녀의 사랑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애국주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가부장제 통치는 법적으로 17세부터 결혼을 승인하고, 당적으로는 조혼을 없앨 데 대한 방침을 통해 이율배반적 입장을 드러낸다. 사례자들에 따르면 70~90년대 초반까지 청춘시절에 당과 조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결혼할 것을 호소하며 남자는 30세, 여자는 27~28세로, 결혼나이를 당·조직적으로 조종하여 왔다. 경제난 이전까지만 해도 입당하기 전엔 결혼을 안 한다고 일에 전념하다가 혼기를 놓친 남녀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성분 때문에 남녀가 사랑하면서도 결혼 못하거나, 입당

21) 북한 가족법, 1990, 제9조.

못했다고 맘에 둔 여성에게 거절당한 것이 반작용되어 입당한 사람도 있다.

시기별에 따른 강연회, 학습회를 통해 조혼, 근친결혼, 연상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할 데 대한 지시가 반복된다. 이는 조직을 통해 실천되는데 조직의 한 성원으로서는 결혼문제는 개인권을 넘어 조직문제이기도 하다. 영예군인(상이군인)과 탄광, 광산 등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3D업종 노동자들의 결혼을 당, 조직이 유도하여 적극 장려함으로써 이를 실천한 여성들은 결혼을 국가기관이 주선하여 차려주거나 주택, 살림도구를 비롯한 물질적 혜택은 물론 정치적 보상과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된다.

결혼은 여성들에게 신분상승의 기회이기도 하다. 여성들의 결혼선호도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당원, 당간부, 보안원을 비롯한 권력에 위치한 사람이었다. 여성사례자들의 경우 대체로 남성에게 의존하려는 의존형으로, 남성사례자들은 결혼대상자를 순종적이고 이해심 많은 여자를 선호하는 지배형으로 나타났다.

(2) 결혼의 징표와 조건 ‘성분’

북한은 1971년에 주민전체의 성분을 3대 계층 51개 부류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줄 것을 결정하였다.²²⁾

해방 후 북한은 급진적 민주개혁의 첫 시작으로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하고 5정보 이상의 땅을 가진 자는 지주로 규정하고 토지와 전 재산 무상몰수·청산하고, 부농은 고립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부농이었던 경이씨의 할아버지의 땅도 국가에 의해 몰수되었고 ‘부농’이라는 불순한 계급적 처지는 자손들에게 일생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족쇄로 대물림되었다. 경이씨는 보안원에게 시집가고 싶었으나 할아버지가 ‘부농’이라는 성분 때문에 포기하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줄 사람과 결혼했다. 남편을 입당시키기 위해 돼지를 길러 나라에 바치고 집 가산을 팔아 남편의 직장생활을 물질적으로 지원했지만 끝내 남편은 입당을 못하고 말았다.

소연씨의 가족사는 일제식민지강점과 분단에 의한 우리 민족의 수난과

22) 남근우, 2008, 「북한의 복종과 저항의 정치: 생산현장에 나타난 공식/비공식 사회관계(1950~1970년대)」,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9.

상혼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뛰어난 미모를 가졌지만 국군포로인 아버지 때문에 청혼이 들어오다가 마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혼을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조바심에 맘에 없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시부모님들은 일제시기 동북지방으로 건너간 유랑민으로서 현재 중국에 계시고 남편은 공부를 시키려고 북한에 내보냈다고 한다. 시삼촌의 처가 쪽은 항일혁명열사 계열이었다.

송남씨는 전쟁시기 치안대²³⁾ 대장을 하다가 월남한 외할아버지 때문에 결혼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청춘기를 보냈다. 임모씨, 석남씨는 결혼대상자를 선택하는데서 성분을 첫째로 보게 된 것은 자신의 의향보다 가정환경 때문이었다.

우리 집안이 빨갱이 집안이니까 성분을 쟈 첫째로 보고, 그당 즈 인물 보고, 재산은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으니까 크게 안보고, 여자 직업은 교원을 선호했는데, 교원은 성실하고 남보다 잘하고 늘 모범적이라 생각하고, 자녀교육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임모씨)

이쁘고 순종적인 여성을 선호하면서도 성분을 우선 첫째로 봤어요. 우리 집안이 다 토대가 좋은데 성분 나쁘면 안되지. (석남씨)

충성의 가치와 운명을 좌우하는 성분은 결혼의 징표이자 조건으로 되었다. 성분에 따라 입당, 대학, 직업, 경제적 여부를 비롯한 성취가 좌우되므로 성분은 한 인간의 생애를 규정하고 사회에 위치 짓게 하는 원리로 작동하였다.

(3) 지역차별

결혼대상자를 선택하는데서 또한 지역적 선입견과 차별도 나타나는데 평안도, 황해도 사람들은 대체로 함경도(함경남북도, 양강도) 사람들과 결혼을 기피한다. 함경도 사람들은 예로부터 전해지는 ‘이전투구’라는 말처럼 영악하고 강한 성격을 지녔다. 또한 추위와 고산지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굳혀진 알뜰하고 간진 살림살이는 다른 지역 사람들과 차이를 나타냈다.

23) 6. 25전쟁시기 국군의 편에 서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행위를 한 사람들의 조직.

온화한 기후와 평야의 지리적 조건에 사는 평안도, 황해도 사람들은 성격이 유순하지만 살림살이가 알뜰하지 못해 함경도 사람들로 부터 게으르다는 비난을 받는다. 여성을 중심으로 함경도 사람들은 평안도, 황해도 여자들이 알뜰하고 끈지지 못하고, 반대로 평안도, 황해도 사람들은 함경도 여자들은 기가 세고 성격이 사납다는 이유로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평안도와 황해도사람들은 거친 억양에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런 함경도사람들을 피하는 편이다. 지역감정이나 지방에 따른 자연 지리적 조건의 차이보다는 생활풍습과 성격상 차이가 요인으로 되었다.

내가 보면 함경남북도가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심해요, 우리 평안도, 황해도
는 안 그런데…….난 그래서 평양에서도 그들을 멀리 했어요. 평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여자와 결혼했어요. 우리 아내가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한 피아니스
트였는데 내가 황해도 사람이지만 품어주고, 그래서 고마웠어요. (철남씨)

평양시에 대한 우선적 대우와 배려, 지방과의 격리²⁴⁾, 수도시민이라는 우월감은 지방 사람들을 존엄으로 폄하하였다. 평양시는 외부인의 출입과 거주가 제한되고 지방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 철남씨는 평양기계대학을 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기술군관으로 군에 입대하면서 평양에 거주하게 되었다. 철남씨가 지방 사람임에도 평양여자와 결혼하게 된 것은 평양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지식인이고 군인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이는 그가 신분상승과 능력자임을 과시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4) 물질주의에 의한 결혼가치관 변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승인된 결혼이외에 동거,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데 대해 조직별, 인민반을 통하여 사회적 비판과 통제, 압력이 가해진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거나, 이

24) 평양시출입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인민보안성 5국 감찰처로부터 평양시 출입승인 번호가 떨어져야 증명서를 발급받고 출입할 수 있다.

혼이 늘어나고 법적이혼이 어려운 관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이 흔한 일로 되었다.

지속적인 생활난, 식의주문제의 취약성은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대한 부담감은 가정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 여성들이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결혼에 이은 출산, 자녀양육, 남편 모시기까지 여성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가족상황은 더 이상 결혼이 윤리적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남편과 자식이 먼저인 가족전통보다 여성 자신의 삶의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다.

주민 절대다수가 시장에 매달리는 시장 중심적 사회로 이동되면서 결혼 대상자선택에서 성분이나 혁명적 담론보다 현실적 기준에 따른 능력, 경제적 가치가 선호되고 있지만 권력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여전히 당성과 권력이 우선시되고 있다.

2) 구조적권력에 기반한 부부관계

북한에서 부부는 성적사랑에 기초하여 맺어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사랑에 기초한 의리와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한 의무의 관계이며²⁵⁾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적 권력관계이기도 하다. 남편을 중심으로 주민등록제도, 성분이 규정되어 대를 이어가며, 남편이 과오, 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 중량에 따라 가족도 함께 처벌하는 연좌제가 적용되는 등 남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가족의 운명이 좌우된다. 식량배급제도만 보더라도 남편을 통해 가족식량이 공급되는데 아내가 부양(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의 1일 식량공급량의 절반인 300g으로 규정되는 등 남성지배적인 구조는 여성들이 가부장제에 얽매이게 되는 예측관계를 낳았다.

(1) 2중적 가부장제

해방 후 민주개혁시기 남녀평등을 실시하고 여성도 봉건적 억압에서 벗어나

25) 황장엽, 2003, 『사회역사관』, 시대정신, pp221~224.

남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한 주체임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국가건설을 위한 노동력 동원정책의 일환이었다.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고 남편 공대를 잘하여 그들이 직장 일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의 혁명의무와 역할로 간주된다. 세포(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현모양처, 며느리역할은 국가가부장제와 가족가부장제의 이중적 지배하에 헌신과 희생이 강요되었다. “범 같은 시어머니, 폰수 없는 시아버지, 매련 없는 시형, 망나니 같은 시동생, 여우같은 시누이”간 갈등도 감내하고 잘 섬기는 것이 며느리의 덕목이며 남편의 부조리한 행위를 덕으로 다스려 개조하며, 자식건사 잘하고 교양하는 것이 여성의 품성으로 강조되었다.

북한남성들이 가부장적이며 권위주의가 심한 것은 성비 불균형과 연관되어 있다. 한국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여자 100명당, 남자 97명으로 여초현상을 보이는데²⁶⁾ 남자 수가 여자보다 더 적기 때문에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 사례자들에 의하면 평균 결혼연령이 여자 24~27 남자 28~30살이므로 여성 28살 이상이면 노처녀취급 당한다고 한다. 남자는 대학생을 제외하고 만 17살부터 군복무를 10년간 하기 때문에 여성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할 수 있는 시간과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 주로 남자 쪽에 의해 결혼이 결정된다. 북한은 폐쇄적 특징 때문에 가부장제 관습의 변화가 어려운 사회이며, 남자에게 의존하는 사회구조, 가정의 울타리 밖에서 여가를 즐길만한 사회적 시설 부족으로 가족들이 출퇴근 이후에는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정의 권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²⁷⁾

그러나 사례자들과의 인터뷰 구술에서 부부관계에서 구조적 권력만이 아닌 상황적 권력관계도 포착되었다. 남녀 구별 없이 가정에서 주도권이 경제적 역할을 담당한 사람에게 주어졌다.

북한에 있을 땐 집에서 주권은 내가 쥐고 있었어. 여기와 마찬가지로 누가 더 버는가에 따라 경제권이 있지 않아. 일체 양육권, 경제권, 등 모든 권한은 내가 쥐고 있었어. 난 직장일이 바쁘다 보니 집일할 새 없었어. 쌀

26) 우정, 2010, 『북한사회의 성과 권력』, 이경, pp91~92.

27) 위와 같은 책, pp83~84.

들어오면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니까 남편이 집안 살림 다 했어. (숙이씨)

우리 집에서 주도권은 아내에게 있었어요. 가정생활에서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으면 안돼요. 여자가 전적으로 맡아야지…….남자는 헤프니까 돈이랑 막 쓰고…….난 가시집에서 살았는데 장모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우리 처가권 여자들이 기가 세요. 본심은 원래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하는 건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철남씨)

사례자들은 남자는 기본적으로 직장 일에 충실하고 가사노동은 여자의 몫으로 생각하면서도 서로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970년대 후반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차이를 없애는 것과 함께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한다는 3대기술혁명과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부부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여전하다.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비롯하여 가족 내에서 여성이 맡은 역할비중은 96.9%에 달하는 것으로 여성이 일방적으로 가정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²⁸⁾

부부간 역할은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는데 평안도, 황해도 지역은 비교적 가사노동을 잘 돕는 편이지만 함경도 사람들은 역할분리에서 완고한 편이다.

(2) 부부간 계급적 갈등과 이혼

북한에서 이혼은 수령을 어버이로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회의 균열을 일으키는 행위로 취급된다.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이혼문제로 이르게 되면 일심단결의 가치에 따른 사회정치적 생명체내에서 가족의 해체는 세포의 파괴와 같은 균열행위로 간주되어 가정혁명을 못한데 대한 책임과 추궁, 비판이 조직적으로 가해진다. 이혼은 개인문제가 아니라 국가 앞에 가정혁명을 못한 책임을 져야 하며 당 내부 원칙에 따라 이혼한 사람은 간부로 등극할 수 없다. 가정이 안정되고 원만해야 가족성원들이 국가 앞에 공민적 역할과 혁명과업을 잘 수행하고 나랏일도 잘 될 수 있

28) 박현선, 2003,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아카데미, 320.

다는 가족통치의 핵심원리로 ‘가화만사성’을 제시하고 실천의 상징으로 수령일가의 강반석과 김정숙을 내세우고 있다.

이혼은 제도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데 1956년 내각결정 제24호에 의해 합의이혼을 폐지하고 재판을 통한 이혼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⁹⁾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이 늘어나자 이혼을 막기 위한 교양사업과 통제를 강화할 데 대한 노동당 방침이 수시로 내려오면서 이혼이 통제되고 있다. 약혼하고 파혼하거나, 결혼생활이 지속되지 못하고 이혼하면 당국의 기준으로 보아 법적으로 정당한 이혼사유가 아닌 이상 당, 조직적으로 문제시되고 대논쟁무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심한 경우 직무에 따라 직위해제, 대학생인 경우 퇴학, 군관인 경우 생활제대까지 당한다.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란 반당, 반역, 반체제분자를 비롯한 정치적 이유, 생식할 수 없는 신체이거나 폭행상습범, 중형범죄자 등이다.

이혼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는 달리 혁명의 이익견지에서 체제에 대한 반감이나 정치적 과오로 반동·적대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에 한해서는 국가가 이혼을 용인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체제의 구성원으로서의 모든 자격과 권리, 법적 지위가 박탈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간부등용에서 상대방의 성분이 걸려 제약을 받을 때는 이혼하거나 법적으로 자동 이혼된다.

우리 시형이 신문사 책임주필이었어. 조적부 당지도원으로 승급하려고 하는데 처가권 토대가 안 좋다는 거야, 그래 이혼했는데 우리 집안 어른들이 모두 욕을 하더라. 제가 무슨 책임비서를 하겠냐고, 10년 넘게 살아온 여자를 토대 나쁘다는 걸로 버린다는 게 말이 돼…….(연이씨)

우리 동네 수산사업소 지배인 하던 사람인데 하루밤새 보위부에서 실어 갔어요. 정치범 관리소에 간 거죠. 손주가 우리 할아버지 반동 아니라고 길거리에 나가 울며 소리치는데, 근데 며느린 안 갔더라고요. 며느리나 사위는 본인의사에 따라 결정하는데 안 가겠다면 자동이혼 해줘요. (민이씨)

계급적 원칙의 잣대는 부부간에도 타협할 수 없는 선을 그으며 무시, 차별,

29) 우정, 2000, 『북한사회구성론』, 진솔북스, p276.

갈등, 심지어는 심한 폭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졌다.

우리 친할아버지가 구월산쌀치산대원이였대요. 한때 구월산쌀치산을 백두산줄기 다음으로 일러주긴 했는데 언제부터 갑자기 구월산 쌀치산이 적들과 내통하고 양다리치기 했다고 다 숙청했거든요. 살던 중 그런 일 당하니까 토대가 나쁘다고 아버지 본처가 안 살겠다 그래서 헤어지고, 우리 엄만 외할아버지가 전쟁 때 치안대 대장을 했으니까 토대 나쁘다고 시집 못하고 있다가 결국 우리 아버지 만나 살았어요. (송남씨)

분단 상황에서 상대적 힘에 의한 흡수통일의 위기감은 늘 북한사회에 팽배했고 위기상황일수록 체제안정을 위한 주민의 응집력을 키우고 그 강화를 위해 무자비한 계급투쟁을 벌려왔다.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³⁰⁾

내외의 적대분자들이란 해방 후 숙청된 지주, 자본가뿐만이 아니라 남한의 적대세력도 포함되는 것이다. 북한정권 탄생 그 자체가 유산계급을 타도한 기초 위에 세워진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이였다. 해방 후 북한의 급진적 민주개혁을 통한 유산계급의 청산과 더불어 6. 25전쟁은 우리 민족 내부에 있어 재산을 빼앗긴 자와 가진 자간의 대결이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청산되어 북한사회에 잔재되거나 월남한 유산계급은 정전의 지속과 승공·적화 이념의 대결 속에서 북한사회의 적대계급,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일원으로 반공의 앞장에 선 혁명의 원수로 북한정권의 타도대상이였다. 월남자, 이산자가족들은 가변적인 두 체제에 있어 외부의 적과 타협하거나 정권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위협적이고 불확실한 존재로, 또는 이념실현의 이용가치가 있는 존재로 남게 되었다.

분단은 적군과 아군으로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 버림받은 쪽에서 다른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분단의 1차적 피해자들인

30) 북한헌법, 1998, 제11조.

청산된 계급의 잔여분자들과 월남자, 이산자가족들은 감시와 견제 ·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북한이 시종일관하게 견지하는 남조선혁명의 종국적 임무를 수행하고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승리 완성을 위한 최종적인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목표에 기인하고 있다. 남북이 상이한 체제로 갈라진 분단현실에서 복잡한 계급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적아를 옳게 갈라내야 할 중요성으로부터 성분에 의한 사회의 구조적 계층화를 이루게 된 요인과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³¹⁾

북한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북한주민의 3분의 2가 월남한 사람들과 가족 및 근친관계³²⁾에 있는 데로부터 주민구성은 적대계급, 동요계층, 핵심계층으로 계층화되어 북한인구의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정치적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성분의 낙인은 부부간 갈등의 원인으로, 가정 내에서 남편의 폭행이 정당화 되고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희생자적 위치에 놓이게 했다.

나 때문에 입당을 못했다고 계속 두드려 패는데, 성분 나쁜 게 죄가 되서 난 참고 견디면서 정말 남편 시발질(공대) 잘했어. 어떡하나 입당시켜 보겠다고. 다 헛수고지. 나중엔 입당을 포기하고 우리 남편이 타락해서 그냥 술 마시고 나에게 화풀이 하고 우리 딸 때리고…….그런 속에서도 가정을 놓지 않겠다고 정말 노력했어요. (경이씨)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입당 못하고, 입당해야 앞길이 열리잖아. 그래서 입당시킬려고 떡을 한 함지 해가지고 남편 직장에 내가고, 재봉기 돌려서 노동 장갑 만들어서 직장에 내가고, 명절 때면 돼지도 잡아내가고, 그러니 내 생활은 없고, 나 때문에 입당 못한다고 그 화풀이로 나랑 아이들도 계속 맞아대고. 그래 겨우겨우 남편을 입당 시켰어. 이젠 간부를 시켜야 하잖아.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자재지도원을 시켰어. (소연씨)

당원의 징표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불결한 성분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한 위 사례자들의 노력은 정신 · 육체적 희생은 물론, 가정의 정서·물질적 기반약화와 원초적 유대

31) 『김일성저작선집』, 1975, 조선노동당출판사, 3권, p149.

32) 대한적십자사, 1976, 『이산가족백서』, p180.

를 결핍시켰다. 경이씨와 소연씨는 남편의 애뜻한 정이나 추억보다는 성
분차별과 폭행에 시달려온 평생의 한과 응어리가 쌓여있었다. ‘명태와 에
미네(마누라)는 그냥 두드려 패야 한다’는 말처럼 남편의 가정폭력은 권
리로 당연시 되며 아주 흔한 일이다.

사례자들에 의하면 권력의 조직적 감시와 통제는 사생활 영역까지 침투
되어 부부간에도 보이지 않는 담을 쌓고 부부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상
대에 대한 협박과 공격의 무기로 활용된다고 한다.

우리 앞집에서 부부간이 매일 싸운다. 야밤에도 문 열어놓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싸우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그 집 남편이 ‘야 너네 동생
남조선에 있는 거 보위부에 고발하겠다. 너 동생한테서 돈이 온다고 배통
내밀고 있냐?’ 이러며 소리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만기엄마동생 ‘고난의 행
군’ 시기 행불됐다더니 남조선에 가 있는 메라고 그래 다 알게 됐지. (숙이씨)

탈북자가족에 대한 감시로 하여 늘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
남한의 동생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으로 아내가 우위에 놓이고 남편으
로서의 가부장적 지위가 축소된 것 같은 불만을 권력의 힘을 빌어 표출하
는 대목이다. 남편의 고발로 동생의 신변이 노출되고, 그로 하여 온 가족
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질 경우 부부관계는 언제든지 적대관계로 변하게
되어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탈북자가족이라는 딱지가 붙어 진로가
제한되거나 남한과 연결될 수 있는 요시찰 대상으로 살아야 한다.

(3) 애정표현과 성의식

혼전순결에 대한 강박관념과 여자가 성행위에 적극적인데 대해서는 행
실이 바르지 않고, 여자답지 못하다고 여기는 편견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이는 여성의 순결과 정숙함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동방예의지국의 품성으
로 간주하는 사회적 풍조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성행위가 만족스러웠는지를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매우 부끄러워하며)

아니요. 우린 그런 거 몰라요. 난 연애란 건 못해보고 그냥 저 사람하고 사는데 남녀 간 사랑이란 건 뭘지, 그냥 후닥닥 올라타서 하면 끝나는 걸로 알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날 보고 무정하다고 그래요. (송남씨)

난 여자들이 성행위에 적극적이면 창녀 끼가 많지 않나? 집에서 그러는 게 밖에 나가서 누구와 그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 남자가 성경험이 많은 것도 난잡한 행위라고 봐요. 혼전순결을 지켜야지 남의 손이 간걸 더러워서 어떻게 사나? (성남씨)

부부성관계에서 여자는 수동적이며 부끄럼을 많이 타고 애정표현을 잘 할줄 모른다. 성관계는 대체로 남성의 일방적 행위로 끝나버리고 여자는 수용하는 위치에 있는데 성관계 동영상은 철저한 불법 녹화물로 단속되고 성교육이 없어 성에 대해 매우 무지한 편이었다.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 여자는 무조건 참고 사는 것이 현모양처의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부부간 싸움이 자주 일어나도 원인을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은 걸로, 남편의 외도를 떠들고 다니는데 대해 남자는 한때 바람피울 수 있으니 여자가 감내하여야 한다는 주변의 눈총을 받는 것이 일상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과 남성들의 가부장적 태도를 북한남성 대부분이 오랜 군사복무 과정에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남성성을 습득한데서 비롯되어 남성 중심적인 외도와 폭력적 결혼생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³³⁾

우리 앞집 은주아버지가 바람을 피운다고 은주엄마가 그냥 바가지 굶어서 끝내 갈라졌다 다시 사는데 재산 다 날리고, 동네 사람들은 다 은주엄마 욕하는 거예요. 에미네가 남편 망신시킨다고. 남자는 한때 바람피울 수 있는데 여자가 이해하고 좀 참을 게지. (민이씨)

여자들이 참고 사는 이유는 이혼하기 힘든데도 있지만 자식에게 영향이

33) 이화진, 2010,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 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탈북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8.

미치며³⁴⁾ 중요하게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이며³⁵⁾, 여성에 비해 남성비율이 적고, 남성지배형의 결혼생활과 남성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로 비롯된다. 부부는 평등한 동지적 관계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제도적 장치로 하여 여성은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에 종속되어 있다.

3) 국가적 책임에 따른 자녀관계

(1) 국가중심의 자녀관계

북한에서 자녀와의 관계는 핏줄로 이어진 혈연관계, 양육과 돌봄의 윤리적 의무관계이면서도,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그들을 지덕체를 갖춘 자주적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³⁶⁾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부모는 국가 앞에 자녀들에 대한 교육교양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다.³⁷⁾

자녀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는 부모는 자녀교육을 잘 못한 책임으로 당 조직 앞에서 비판과 검토의 대상이 되며 정도에 따라 당적처벌과 직무해임까지 이르게 된다.

자녀들은 7살부터 유치원-소학교-중학교-대학이라는 국가교육기관을 거치며 집단주의 교육을 받는다. 모든 주민들은 9살부터 첫 사회적 통과 의례인 소년단입단식을 거쳐 평생토록 조직생활을 통해 집단 소속감이 몸에 배게 되면서 자녀나 부모보다 국가나 조직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육아전담, 무료교육, 직장배치, 등 장래가 국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가족 내에서도 윤리적 의무관계보다 권력을 중시하게 된다.

자녀교양과 가사노동은 아내 몫으로, 남성은 경제적 담당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자녀들의 양육문제만 감당할 뿐 혼인, 진로문제를 비롯

34) 부모가 이혼 한 경우 자식들에게 군대입대, 대학, 직업배치 등 사회적으로 일정한 제약이 있다.

35) 인터뷰구술자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36) 북한가족법, 2004, 제27조.

37) 북한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결합한 3교육으로, 가정이 사회의 한 세포인 만큼 가정교육은 사회교육의 한 부분이다.

하여 아버지 중심으로 부모의 결정과 의사를 존중하고 절대복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³⁸⁾

우리 아버지가 당 간부 했는데, 집에서 아버지 권위가 대단했어요. 밥 먹을 때 아버지보다 수저를 먼저 들거나 놓아도 안 되고, 아버지 앞을 맘대로 지나다니지도 못하고, 아버지 앞에 앉을 때는 딱 무릎을 꿇고 앉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도 아버지한테는 절대 복종했어요. (성남씨)

우리 아버지인 김정일 옆에서 일했는데, 그래서 고지식하게 사는 아버지가 늘 볼만이었어요. 집에선 절대군주죠. 엄마는 아빠한테 꼼짝 못하고 살았어요. 절대 복종하고, 나한텐 아버지보다 엄마가 가까웠죠. (석남씨)

국가가 자녀를 맡아 돌보는 만큼 부모는 국가 일에 충실해야 하고, 자녀 앞에 몇몇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일을 잘하여 입당을 해야 하고, 간부가 되고, 충성분자가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역할 대신 국가가부장제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주고 국가로부터 안정적 삶을 보상받으려는 행위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수록 국가로부터 받는 자녀에 대한 혜택은 커질 것이라 믿는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한 편이 수행하는 행동들이 다른 상대방에게 가치가 있고 또 보상이 되는 것으로 추측” 되기 때문이다.³⁹⁾ 경제난 이전까지는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자녀를 국가가 맡아 키운다는 의존심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돌봄의 역할이 소홀해진 측면도 있다.

난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언제 한번 밥 한 그릇 딱끈하게 해준 기억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 엄마 직장 출근하면 밤늦게 들어오고, 우리끼리 찬냉돌바닥에 뒹굴다 자고, 그래서 방광염에 걸린 게 종신병 이었죠. 조금 크면서부터는 우리 형제끼리 교대로 아침, 저녁 끼니를 지었어요. 7살부터 우리끼리 밥 했거든요. 빨래도 우리끼리 해 입고, 팬티 갈아입을 거 없어서 못 입고 추운 겨울날 양말바지만 입고, 옷 제대로 입고 다니는지 우리

38) 박현선, 2003,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아카데미, pp300~315.

39) 정창수, 2005, 『이론으로 본 사회심리학』, 그린, p245.

엄마는 관심 없었어요. 오직 나가서 일하는 거 밖에는…….엄마가 학교교원 하셨는데 집안재산 다 학교에 내가고, 엄마는 그냥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그랬어요. 애뜻하고 단란하던 기억은 전혀 없어요. (민이씨)

내 학교 가는 것도 아버지가 관심 안 돌리고 가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장군님 죽 먹으라면 먹어야 되는 김정일의 충성분자였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맞벌이하느라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난 쌀 꺼내서 빵 바꿔 먹고, 쌀 모자라서 엄마한테 매 맞고 그랬어요. (석남씨)

민이씨와 석남씨는 혁명을 위해 가정도 바쳐야 한다는 각오로 직장 일에 분투하는 부모 슬하에서 방치되어 보살핌과 가족적 정서가 결핍된 성장기를 보냈다. 혈연적 유대와 안정감, 부모의 보호와 애정이 부족한 가정환경은 어디론가 안정된 곳에 깃들고 싶은 심리적 방황, 독립적 욕구와 반항적 기질을 키운다. “북한에서의 가정은 조화와 행복의 장소라기보다는 권력이 지배하는 ‘혁명의 가정생활’로 천착되었고”⁴⁰⁾ 원초적이며 전통적인 가족유대의식은 적지 않게 파괴되었다.

(2) 시장논리에 따른 자녀관계 변화

경제위기로 인해 유명무실화된 국가복지제도는 가족 및 개인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증가시켰다. 즉 국가 의존적 관계로부터 가족중심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가 시장을 중심으로 진화되면서 부모의 능력만 있으면 맘먹은 대로 자녀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남한과 다름없이 사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 자녀들의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을 보장받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항시적으로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사회경제적 위협 속에 자녀에 대한 보호의식이 강조되고 자녀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보상의식이 강조된다. 따라서 자신이나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적 가치에 대한 개인적 지향보다 사회 계급적 위치의

40) 우정, 2000, 『북한사회구성론』, 진솔북스, p277.

확보와 상승을 위한 사회적 투쟁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한다.⁴¹⁾

노부모를 모심은 효자의 역할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인데 “.....북한 노인들의 경우 아들 부부와의 거주비율이 45%, 딸 부부와의 거주비율이.....24%, 노인부부 또는 독거(獨居)노인의 비율이 17%, 양로원 입주비율은 14%로 전체가구 중 부모공양비율이 69%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⁴²⁾

시장 활동을 통한 여성들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시부모의 권위가 축소되고 고부간이 평등한 관계로 변화되었으나 아직까지 남편은 가부장적 지위, 여성은 남편에게 순종적인 태도, 시부모 공대는 윤리적 의무로 간주되며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전에는 국가적 부담에 의해 자식을 키웠으나 지금은 반대로 부모를 자식의 부담으로 모셔야 하므로 ‘그전엔 부모들이 우릴 국정가격으로 키웠는데 우린 부모를 야매(시장가격)로 공양해야 하니 부모 모시는 게 힘들다’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물질주의를 우선시하며 점차 효의 원리는 약화되고 부모를 모시는 것을 큰 경제적 부담으로 여기면서 핵가족화가 촉진되고 있다.

남자들은 군복무, 직장에 매여 살면서 주로 여성들이 장사를 하는데 ‘남자 벌이는 밥벌이, 여자 벌이는 죽벌이’란 말처럼 하루 벌어 세끼를 해결하기 힘들고, 여자가 벌어 자식양육과 부모봉양까지 하기 어렵다. 경제권을 가진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순종에서 벗어나 혼자 벌어 시부모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없다는 ‘배통 내밀기’로 시부모를 외면하거나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이혼하는 현상도 많이 나타난다.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는 부모들은 자식을 버리거나, 방랑의 길에 내보내면서 흩어진 가족이 많이 생겨났다. 이들을 “6. 25전쟁에 이어진 이산자가족”으로 칭하는데 경제난으로 북한사회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논리가 일관되면서 가족의 분화, 해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3) 자녀관계에 미치는 성분의 영향

성분의 영향은 부모자식관계에도 미쳤는데 부모의 성분이 나쁜 자녀들

41) 장경섭, 2009, 『가족 · 생애 ·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p249.

42) 우정, 2000, 『북한사회구성론』,재인용, 진솔북스, p279.

은 몇몇치 못한 처지로 위축되거나 사회적 따돌림을 받는데 부모는 이에 대한 죄의식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다.

소연씨의 아버지는 고향이 경상북도 청도이다. 6. 25전쟁 시기 20살에 국군 5사단에 나가서 강원도 화천에서 전투하던 중 허리부상을 당하고 중공군에 포로 되어 북한에 끌려갔다. 끌려간 사람들 중 성한 사람들은 인민군에 편입시켜 거꾸로 국군과 싸우게 하였다. 소연씨 아버지는 부상당한 탓에 쓸모없어 56년도까지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아오지탄광에 끌려가 거기서 공민증을 발급받고 타지역이동이 금지되어 보이지 않는 감옥살이를 했다. 아버지가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여 주변의 소개로 엄마를 만나 결혼했지만 반동분자와 결혼한다고 이모들은 자기들 집에 못 오게 하고 평생 어머니와 의절하고 살았다고 한다.

맏딸로 태어난 소연씨는 아버지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이었다. 학교에서 성분, 가계표를 쓸 때마다 집안에 당원이 하나도 없어서 아이들이 불가봐 제일 싫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당원이 아니면 아이들끼리 ‘재네 아버진 당원이 아니래.’ 쉬쉬하면서 부족한 사람 취급을 한다.

하루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팔 붙잡고 방에 들어가더니 ‘내가 국군포로라서 너는 군대도 못가고 대학도 못가니 아버진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다른 국군포로 자식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다. 근데 난 한 번도 원망 안했어.

우리 아버지 17살 아래인 동생이 있는데 떠나올 당시 5살이었어. ‘통일이 되면 꼭 고향에 가보아라. 그곳엔 감도 많고 농사도 잘되는 고장인데 꼭 가봐라. 이젠 어머니도 돌아가셨을 거다. 우리 대는 통일이 안 돼도 너희 대는 될 수 있으니 난 죽어서도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다’고 하셨어. 그때까지만 해도 남조선이라면 겁이 나서 더 물어 못보고, 귀담아 못 들었지. 괜찮다고 난 아버지를 위로해 드렸어. (소연씨)

소연씨 아버지는 국군포로로 끌려가 수난을 당하면서 고향과 혈육들에 대한 그리움을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 달래며 평생을 탄광 막장에서 일해 왔다. 통일이 될 때만 가능한 귀향길을 자신은 못가도 자식들만이라도 꼭 가야 한다는 염원은 유언으로 남게 되었다. 동족상쟁의 비극 속에 잃어버린 꿈과 삶의 전부를 자식들을 통해 찾고 싶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소연씨의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더 집착했던 이유인 것 같다.

송남씨 외할아버지는 6. 25전쟁 시기 치안대대장을 하였고 친할아버지는 구월산빨치산에 가담했다고 숙청되었다. 치안대에 가담하여 악질행위를 한 사람은 첫째 타도대상이 되었으며 그 가족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었다. 흔히 북한주민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너 치안대 자식이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치안대’는 반동분자의 개념으로 쓰인다. 적대계급은 체제와 치안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주민들은 그들에 대한 국가의 물리적 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동조하기도 하였다. 송남씨와 형제들은 치안대 자식이라는 딱지를 쓰고 소외분자로 멸시와 억압을 당해왔다.

나 학교 다닐 때도 우리 학급아이들이 반동놈 자식이라구 그냥 놀려주고 내 가방에 몰래 똥이랑 벌레 넣어두고, 우리 누나랑 형님이랑 학교 적으로 공부를 제일 잘해도 학과 경연에 못 나가고 대학에도 못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생동안 우리한테 내가 이 사회를 반대해서 들고 일어나고 싶어도 자식들 땀에 참고 산다, 너흰 나처럼 살지 말라고 늘 외우셨어요. 일생 한이 된다면 이놈의 세상을 반대해서 싸우지 못한 거라고. 우리 가족은 지지리도 억압당하고 멸시받으며 살았어요. 정말 그 사회에 원이 많이 맺혔죠. (송남씨)

송남씨 아버지는 반체제분자로 싸우고 싶었지만 연좌제에 의해 자식들을 희생당하게 할 수 없었다. 인간이하의 삶을 살아야 했던 과정을 구술하는 송남씨는 대를 이어 온 가족이 권력의 억압과 사회적 멸시 속에 억눌려 살아온데 대한 분노로 격앙되어 있었다. 소연씨, 송남씨의 아버지는 자신들을 이념대결의 희생물로 만들어버린 세상에 대한 한을 품고 살아왔다.

해방과 분단에 이어 6. 25전쟁을 통해 남북은 서로 ‘국민’, ‘인민’ 만들기를 통해 이른바 ‘반대쪽의 사람’, ‘반역자’는 청산하거나 처형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비국민’, ‘비공민’으로 배제하였다. 북한이 성분을 규정하고 자식들에게까지 정치적 압력을 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족 및 친척들이 선진적인 사상과 도덕을 가지고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려는 사람들이라면 그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게 되며 반면에 반동적인 사

상과 도덕을 가지고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⁴³⁾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억압되어온 소연씨와 송남씨의 한 맺힘은 사회에 대한 반항심이 되어 점차 자주의식으로 발전한다. 자식들만이라도 성분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결심은 훗날 탈북의 결정적 동기로 되었다.

가족관계에 작용되던 혁명적 담론은 경제난 이후 물질주의로 점차 바뀌게 되었다.

난 성분이 나빠서 장가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지금 아내가 먼저 살겠다고 하니까, 여자네 집에서 결혼식도 안 차려주고, 그릇가지 하나 해준 거 없이 우리끼리 나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 낳고 살도록 몇 년간 왕래가 없었어요. 1990년대 초반에 천연색 TV, 냉동기 있는 정도면 잘 살던 집인데 어카다가 다 망하고 살기 힘들고 내가 외화벌이 하면서 능력 있으니까 그때부터 가시영감 장례식도 내가 다 치르고 그랬어요. (송남씨)

“가장 순수한 인간적 연대성과 애정으로 단란하게 살아가야 할 부모자녀 관계의 핵가족 단위는 이 시대에 있어서 민족공동체가 당한 분열과 싸움으로 완전히 파괴당하고 피해를 입어온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파괴적 피해는 6.25 동란으로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었다. 더 많은 가족이 동족상잔의 전쟁과 민족해방과 통일을 앞세운 이데올로기 싸움의 희생물이 되었으며, 민족공동체로서 지녀야 할 인간적 연대성 기반마저 상실한 것이다.”⁴⁴⁾

부부 중심적 관계보다 자녀간의 유대가 더 끈끈하고 중요시되며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도 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행은 자녀들에게도 이어졌으며, 부부갈등의 심화로 인한 결렬 위기 속에도 자녀들 때문에 쉽게 이혼을 못하고 참고 살기도 한다. 이혼한 여성들에 대해 ‘시집 갔다 돌아왔다’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압력으로 작용한다.

43) 『조선대백과사전』, 1974, 제1권, 백과사전출판사, pp800~805.

44) 이효재, 1985, 『분단시대사회학』, 한길사, p253.

히스테리 같은 남편하고 살면서 도저히 못살겠다. 쥐약도 몇 번 먹었어. 죽으려고…….이혼할래도 새끼들이 볼쌍해서 참고 살았지. 날 때리면서 애들까지 같이 때리는거야. 내가 이혼한다고 팔자가 달라지겠니? 그저 새끼들 잘돼서 개네들 바라보고 사는 수밖에. (소연씨)

우리 남편이 날 때릴 때마다 그냥 우리 은정(딸)일 같이 때리는 거야, 찍하면 기장돌이(두드려 맞는 폭력행위) 하는데, 그래서 저엔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어. 여기 와서도 아버지하구 연락할 궁리 안해. (경이씨)

두 사례자 남편들은 아내의 성분 뱀에 입당문제로 고민이 많았고 직장에서 위축되고 존재감을 부여받지 못하는데 대한 한을 가정폭력을 통해 표출한 것이다. 가정폭력 및 학대의 원인은 개인적 환경이나 사회의 구조적 문제, 불평등과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쟁점이다.⁴⁵⁾

사례자들 모두가 자녀들의 가정폭력을 제지하는 법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으며 부모의 권리로 당연히 된다고 한다.

2. 지역사회: 이웃관계의 조직화

1) 동(읍, 리)사무소

동(읍, 리)사무소는 정부의 하부말단 행정집행기관이다. 국가관리 ·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를 보장하기 위한 통제, 국민의 권리보장과 그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수행한다.⁴⁶⁾ 출생에서 사망, 주거이동에 이르기까지 인구동태를 파악 관리하며 주민들은 동(읍, 리)사무소를 통해 연로보장금, 장애인보조금, 상품배정, 의료예방접종을 비롯한 국가의 복지혜택을 보장받는다. 지역사회에는 사무소와 함께 초급당조직, 초급여맹조직이 배치되어 부양자, 정년퇴직자, 전업주부들이 조직생활을 진행한다. 동 초급

45) Jane Ribbens McCarthy, Rosalind Edwards, 2013, 『가족학의 핵심개념』, 시그마프레스, p135.

46) 북한헌법, 1998, 제8조, 제9조.

당조직과 관할지역을 담당한 보위부 · 보안기관은 지역 내 모든 주민들에 대한 장악 · 통제 · 감시를 통해 사생활영역에도 침투되어 있다.

2) 국가기층단위: 인민반

인민반은 정권의 말단기관인 동(읍, 리)사무소 밑에 주민가구를 단위로, 일정한 공간(행정구역)을 거점으로 조직되는 국가의 기층단위, 포괄적인 기초사회집단이다. 인민반을 통해 가족단위로 국가정책을 침투 · 집행하며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회적 동원 · 지원, 주민들의 사상동향 · 동태 · 살림살이 장악과 감시, 거리와 마을의 환경을 관리한다. 따라서 인민반은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의 혼합 장으로 집단생활과 개인생활이 공존한다.

(1) 가정혁명화와 집단주의 가치 실현

북한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 것을 노동당의 총노선으로 제시하고 1970년대부터 전국가적 운동으로 진행하여 왔다. 국가기관, 공적생산영역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인민반에서는 ‘7월 11일 붉은기인민반쟁취운동’이라 명칭 한다. ‘7월 11일 붉은기인민반’칭호 쟁취운동은 외곽이나 농촌보다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서 활발하게 집행되는 편이다. 가정을 혁명화 하고 인민반원들을 사회주의 붉은기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마을을 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대중운동사업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단의 힘이 작동한다.

“가정혁명화를 다그쳐야 할 필요성은 또한 우리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더욱 절박하게 제기된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과업과 함께 남반부를 미제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민족지상의 과업은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뿐 아니라 매개 가정의 성원들을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자각을 높이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더욱 발양시킬 것을 요구한다.”⁴⁷⁾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도 혁명적으로 해야 하며 수령의 영도에 충실해야 한다. 사적영역에서도 혁명적 담론은 실현되고 있었다. ‘7월 11일 붉은기인민반’ 칭호가 수여되면 매 가구는 혁명화의 앞장에 선 ‘3월 16일 모범가정’이 된다. ‘7월 11일 붉은기인민반’ 판정은 정치사상, 위생환경, 문화생활로 나뉘어 하는데 문화생활은 노래와 춤을 비롯한 예술행위도 포함된다. 판정을 위해 며칠 전부터 저녁이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전체 인민반이 모여 합창, 중창을 비롯한 서클연습을 한다. 인민반장의 역할이 활성화된 인민반은 명절이면 체육경기나 마당에 노래방기기를 틀어놓고 부부2중창을 비롯한 재주를 과시하고 평시에 말을 잘 안 걸던 사람과도 친구가 되어 어울린다. 체육경기는 배구경기, 발목매고 달리기, 사람 찾기, 여러 종목을 하는데 어른들은 배구경기를 선호한다. 사람 찾기는 아이들 종목으로 “몇 호집 명호 아버지와 함께 뛰세요.”라는 쪽지가 적혀있으면 그 집에 달려 들어가 자고 있는 명호아버지를 깨워서 달려 나온다. 집단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인민반원들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는 계기이다.

(2) 전통적 상호의존관계

인민반장의 역할에 따라 인민반원들의 관계가 활발해지거나 위축되기도 하며 소속감과 우월심리가 좌우된다. 인민반장의 주도하에 상을 당한 집 혹은 어느 집 아들이 군대에 나간다고 할 때면 집집마다 쌀이나 돈을 모아주거나 도움을 주는 일은 마을공동체의 기풍으로 정례화 되고 있다. 특히 멀리 있는 자식들이 장례 전에 오지 못하여도 인민반 사람들이 모여 장례를 치러주는 등 서로 돕고 의지하는 전통적 미풍양속이 어려운 생활 고속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내가 우리 엄마 사망했다는 부고 받고 가야 하는데 여비 없어서 못 가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부조 모아줘서 장례 끝난 다음 갔는데 가니까 인민반에서 장례 치러줬더라고요. 그때 진짜 고마웠어요. (숙이씨)

47) 『조선대백과사전』, 1974, 제1권, 백과사전출판사, pp209~229.

북한주민들은 거주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어려워 특별한 인사조동 이외에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정주된 생활을 하는 과정에 이웃 간 관계를 매우 중시하게 되었다.

누구네 집 아들이 군대 나간다면 군복 입고 와서 집집마다 돌면서 인사 할 때 돈 다 쥐어주지, 성의껏, 그건 당연하게 도덕으로 생각했어요. 이웃 사람이 상을 당하면 쌀이랑, 돈이랑 다 모아주고, 밤새우면서 호상도 서고, 그렇게 대 해주는 거지요. (명남씨)

열악한 생활조건과 환경의 긴장은 인간상호관계를 밀집시키며 서로 간의 의존심을 높인다. 경제적 토대가 빈약한 사람들은 상호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계에 힘써야 한다. 생활방식을 봐도 이웃 간에 의지하지 않고는 어려운 구조이다. “물, 불, 쌀”이 없어 ‘근’자가 행불되었다고 하는데 전기·물 부족을 인민반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한다. 인민반회의를 열고 가구별로 돈을 모아 펌프와 변압기를 설치하고 마을공동의 재산으로 관리, 사용하면서 내 돈, 내 노력이 투입되었다는 소유권 인식을 갖게 된다. 도로 공사나 수로공사와 같은 사회적 동원에 인민반별 과제수행에서 운전기사나, 돈주, 권한이 있는 간부가 있으면 그들이 주역을 맡아 다른 주민들의 부담이 덜어지게 되며 그런 가구가 많을수록 인민반 제일주의가 생겨난다.

명절이면 이웃 간 음식을 나눠먹거나 한집에 모여 식사를 나누기도 한다. 인민반 주민들은 하루 사용할 물을 길어 나르느라 매일같이 수돗가에 모여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말을 건네며, 하루 몇 번씩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뒷생활까지 공유하게 된다.

북한의 가정들에 들어가는 물동량을 보면 1년에 석탄, 2~3t, 장작 한 트럭 이상, 김장철 채소량은 보통 500kg~1.5t 정도이다. 김장하고, 연탄 짚고, 장작 패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공구나 살림도구가 형편에 따라 있거나 없을 수 있다. 빌리고, 빌려 주는 과정에 관계가 돈독해지며, 가까운 이웃끼리 함께 모여 집일을 해주기도 한다. 이런 모든 작업은 노출된 공간에서 이뤄지므로 마을주민 상호간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에 친밀해진다.

난 절구가 없어서 맨날 옆집 할머니한테서 빌려 쓰고, 쌀채 없어서 아랫집 바우네걸 빌려 쓰고, 다 쓰고 갖다 줄땐 고맙다구 음식이랑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탄 짝을 땀 혼자서 2톤 언제 다 짝어요. 혼자서 하루 종일 짝는데 배할아버지하구 옆집 운학이 아버지가 들어서서 짝해주더라고요. 탄기계도 없어서 한번 빌리는게 엄청 신경 쓰이고, 잘 빌려주지 않아요. 망가뜨린다고. (민이씨)

이웃을 도와주는 데는 보상심리도 작용한다. 민이씨는 탄을 짝어준 마을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주었는데 식품절대부족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목전의 과제인 만큼 그때나마 식사 한 끼 잘 먹어볼 기회가 되기도 한다. 돈으로 계산되기보다는 돕고, 고마움을 소량의 물질로 표시하는 과정에 정이 두터워진다.

북한의 가정들에서는 대체로 돼지나 개를 비롯한 가축을 기르는 편인데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다른 집의 쓰레기를 모아다 먹인다. 돼지사료를 얻기 위해 대체로 밀주를 하는데 술도 팔아야 한다. 인민반 주민의 99%가 장사를 한다. 돼지쓰물을 모아주고, 술을 사주고, 물건을 사주는 것도 이왕이면 안면이 있는 사람들끼리 ‘의리’의 명목으로 이뤄진다.

인민반에는 모든 직위와 계층이 다 포함되어 있다. 아무리 높은 간부라도 인민반에서는 누구집 아버지일 뿐, 권력에 쉽게 접근하여 필요에 따라 관계를 맺고 이해를 추구하거나 실현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스스로 권력을 갖지 못한 데로부터 조직에 순응하고, 인간관계에 힘써야 하며 자기 능력보다 관계에 의존하고 관계를 중시하게 되었다.⁴⁸⁾

(3) 감시와 동원의 장

농촌을 제외한 일반살림집들은 하모니카 아파트 · 사택으로 빼곡히 들어서 서로의 거동이나 동태가 노출되게 된다. 여름엔 대체로 문을 열어놓고 지내는데 음식은 뭘 해먹고, 무슨 손님이 오고, 부부간에 다툼이나 자

48) 박경숙, 2013,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156.

녀들 소행까지도 다 알게 된다. 이러한 조건은 이웃 간에 친밀감이 형성되는 반면 서로의 감시에 유리하다. 어제까지 가까운 관계였지만 이해관계가 어긋날 때는 보복 심리로 인민반장이나, 보위부, 보안소에 비리행위나 수입 대 지출이 맞지 않는데 대해 밀고하면서 적대관계로 변할 수 있다.

인민반장은 동(읍, 리) 당조직의 지도와 동(읍, 리)사무소의 행정지시에 따르며, 담당 보위원과 보안원의 감시체계에 따라 모든 인민반원들에 대한 요해와 생활 자료를 보고하는 전임정보원 역할을 겸한다. 매 가구당 생계는 어떤 방법으로 유지하는가, 집에 드나드는 손님, 여행, 탈북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모든 동향을 파악한다. 친척이나 손님이 오면 반드시 숙박등록을 해야 하는데 인민반장의 경유와 보안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반장은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가구별 생활형편과 살림살이를 꿰뚫고 있어야 하며 인민반공동체 생활을 책임진다.

인민반의 감시와 통제가 정당화 되는 이유는 주민들의 체제이탈을 막고 반혁명분자들의 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해방 후 민주개혁과 6.25전쟁을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체제를 위협하는 반혁명분자들이 잠재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하고자 하였다.

“인민반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협조하며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강화하여 반혁명분자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튼튼히 지키는데 이바지한다.”⁴⁹⁾

반혁명분자란 청산된 적대계급과 그 잔여분자들, 정치범, 체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제도를 와해시키려는 외부의 적들과 손을 잡은 불순분자, 임무를 받고 침투되는 간첩,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우리 아버지 주변에 반대세력들이 많았거든요. 1970년대 초반에 황해도 일대에서 78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숙청한 적이 있었어요. 체제를 반대하는 결사체를 못자고 이용무란 사람이 주모자로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했는데 무슨 조직인지도 모르고 가담한 사람도 애매하게 숙청됐지요.

49) 『조선대백과사전』, 1974, 제1권, 백과사전출판사, pp800~805.

우리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기계에다가 와야로브 넣었다고, 그러니까 기계를 파괴시킨 거죠. 모판에다 염산을 뿌리고, 파괴암해책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그런 조직에 끼지 않았어요. (송남씨)

송남씨의 증언을 보면 체제에 대한 불만을 품은 일부 세력들의 저항이 북한전역에서 소극적인 파괴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대세력이 잠재될 수 있는 은밀한 영역인 가정집을 상대로 끼리끼리 모여앉아 먹자판을 벌리지 마라, 끼리끼리 뭉치지 마라, 이른바 패거리현상을 방지하여 조직규합이나 반정부단체 같은 것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공권력을 집중하였다. 수시로 보위부나 보안소에서 나와 야밤에 인민반별 숙박검열을 통해 매 가정의 식구수와 외부인원의 투숙상태를 점검하곤 한다. 인민반장의 안내에 따라 숙박검열을 진행하므로 사전신고 없이 숙박하던 사람은 불법숙박자가 되어 걸려든다.

불법월경자들 단속, 처리, 신고하라, 불법녹화물 유포되고 있는데 각성해서 보지마라, 인민군대 지원 돈 2000원씩 내는 거 왜 안했냐? 오늘 농촌지원 나가는데 2층 5호집은 왜 안 나왔냐? 이런 걸 반장이 총화 짓는데 짜증이 나서 막 말하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 동원 못 나갔다. 쌀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인민군대 지원 하고 싶어도 못한다. 너무 내라는 거 많아서 그것 땀에 못살고 탈북한 사람들도 있어. (경이씨)

최근 인민반을 매개로 가족단위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는 것은 아사직전에 이른 사회유기체가 세포의 맹렬한 활동, 즉 굶주림을 면하기 위한 가족의 활동에 의해 재생되면서 국가는 그 자생적 역량을 발견하게 되었다. 경제난 이후 국가 의존적 관계로부터 가족중심의 독립적 관계로 이전되면서 가족의 독립성을 억제하고 국가체계에 더욱 얹어매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가 점유했던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부족 되는 공간을 메우는데 인민반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파동, 파절을 비롯한 각종 수매, 외화벌이과제, 군대지원, 국가건설 지원과 노력동원, 등 국가기관의 수탈행위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반장이 돈 거두러 올 때마다 ‘집 없어 방랑생활 하는 사람들 많은데 차

라리 돈 거둬서 그 사람들 집 지어 주는 게 낫겠다', 인민군대 돼지지원 명목으로 낱알 거두러 오죠. 그럼 난 '이거 모으면 군인한테 직접 가나? 다 중간에서 떼먹고 한 알이라도 가나?' 그래서 인민반장은 내가 없을 때 우리 아내한테 와서 몰래 거둬가요. 반장이 날 억수로 미워했죠. 그 외 알짜 서민들은 날 좋아했어요. 항상 술이랑 같이 마시고 나름 잘 어울렸어요. 인민반 사람들 하고는 사이가 좋았죠. (송남씨)

인민반에서의 생활은 경우에 따라 인민반 성원들의 해당 직장에 통보되며 직장에서는 당, 근로단체 조직에서 취급하게 된다. 인민반과 직장은 권력기구와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민에 대한 정권의 정치사회적 지배와 통제의 논리 역시 북한의 인민반을 지배하고 있는 주요 논리이다. 말단 행정체계인 인민반의 개편을 통해서 생활세계를 제도적으로 관리·통제하고자 했다. 하여 인민대중의 미시단위공간인 마을이나 인민반에서 당의 지배와 통제를 관철하고자 했다. 또한 행정구역간 인민대중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서 미시단위공간의 정치사회적 관계망이 지배와 통제의 관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게 하였다.”⁵⁰⁾

인민반은 사상문화혁명의 거점, 사회적 노력동원의 장, 인구동태 장악과 사생활의 감시·통제의 장, 외부의 적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역의 장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민반 구성원들 간 관계는 친밀하면서도 서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이중적 관계이다.

3. 국민의 의무수행: 직장

1) 조직생활을 통한 자아확립

직장은 공장의 생산단위로 호칭되면서도 모든 주민들의 일터를 통 털어

50) 채경희, 2007, 「북한 '인민반'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0~31.

아우르는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직장은 북한주민들이 노동에 참가할 공민의 의무⁵¹⁾를 수행하고 조직생활을 진행하는 거점이며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기본단위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고 규정한 것은 노동생활을 조직화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이 사생활을 위한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이다.⁵²⁾ 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직장의 생산조직과 행정사업이 운영되며 출퇴근질서, 노동근무, 모든 과정은 당 · 조직생활과 밀착되어 있다.

직장생활은 경제임무를 수행하는 생산 활동과 정치조직생활로 구분되며, 직장생활이자 당 · 조직생활이다. 개인별 맡은 업무, 생산과제 수행여부는 당 · 조직생활에서도 반성, 비판, 평가, 총화가 있다. 직장에서 고정업무의 조직으로부터 매일 행정적 과업과 정치적 과업을 받는다. 행정적 과업은 ‘현재 진행하는 작업과제를 당창건 기념일까지 끝내라’, ‘정치적 과업은 수령의 노작을 발취하여 언제까지 종업원들 앞에서 발표하라’ 등의 과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종업원들 상호간 끊임없는 교감이 이루어지며 자신에게 집중되는 군중의 시선 앞에서 존재감을 확인하게 된다.

“사회주의 진영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유기체론에 입각하여 파악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실현은 공동체의 목표달성 속에서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고 본다.”⁵³⁾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속에서 존재가치, 위치, 평가, 자아 정체성은 행정, 당 · 조직생활을 통하여 부여된다. 표창, 상장, 훈장을 비롯한 상, 과오로 인한 벌칙도 당, 조직이 추천, 적용한다.

아침조회, 노동시간 이후 학습회, 강연회, 문답식경연을 비롯하여 세뇌 교육과 노동을 동반하는 직장생활에서 이타심은 그 인간의 속성을 규제한

51) 북한헌법, 1998,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3조.

52) 우정, 2000, 『북한사회구성론』, 재인용, 진솔북스, p289.

53) 서보혁, 2007, 『북한인권 이론 · 실제 정책』, 한울아카데미, p146.

다. 남보다 일찍 나와 작업장 청소하고 수령의 초상화를 닦고, 남이 열
 삼을 뜯 때 스무 삼을 뜯는 사람, 조직의 분공을 제 낱자에 어김없이 수
 행하는 사람은 집단의 앞장에 선 모범분자이다. 담당선반기가 고장 났을
 때 제 돈으로 시장에 가서 부품을 사다 끼워 넣거나, ‘장군님 모시기’ 위
 해 생산과 혁신을 벌리는 종업원들에게 돼지를 잡아 내오거나(앞서 사례
 자들의 구술처럼), 음식을 해오는 등 이러한 행위는 충성분자, 집단을 위
 한 헌신성으로 평가된다. 명절계기로 진행되는 부문별 예술 공연을 맡아
 연출·지휘했을 때 1위를 차지한다면 집단의 영예를 빛내 인데 대한 성
 취감, 조직적 평가와 함께 군중 속에 알려지며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직장인원은 당원, 비당원으로 구성되며, 당원은 당에 충실한 혁명의 전
 위분자이다. 비당원들은 당원들에 비해 뒤떨어진 사람, 덜 준비된 사람으
 로 간주되며 비당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종종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우리 직장 반장이 45살 돼서 입당했어요. 늦게 입당한 셈이죠. 공장 적
 으로 제일 기술이 높은 고급기능공인데 입당 못하니까 사람값이 없고, 맘
 고생 많이 하다가 입당한 날 직장사람들 집에 초청했어요. 당원들만 가는
 데 비당원 몇 명 따라 간 거죠. 어떤 사람 가자니까 당원들만 가는데 자존
 심 상한다고 안가겠다 그러고, 누군가 술좌석에서 ‘너흰 당원도 아닌데 왜
 여기 왔어?’ 그 말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술상이 날아가고, 동네 떠들썩하
 고, 원찬이란 사람은 원래 독한 사람인데 막 울더라고요. 그 일 있던 다음
 노력해서 3년 만에 입당했어요. (민이씨)

비당원들은 직맹원,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맹원들인데 특히 결혼한
 사람들(주로 남성)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입당을 생애 최우
 선적 과제로 내건다. 입당은 정치적 생명을 부여받는 인생의 가장 큰 의
 레이며 충성분자로 인정받고 사회의 핵심적 지위를 위치 짓는 기제였다.
 충성의 높이에 따라 사회적 성분과 직위가 정해지고 주민들에 대한 모든
 인사권과 승급, 배치, 조동이 당 조직의 권한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권력
 구조 속에서 주민은 무조건적인 순종과 이타심을 체득해야 했다. 충의식
 은 국가와 국민, 개인을 바로 연결하는 북한주민의 중심된 감정이며, 주

민은 경찰기구만이 아닌 신격화된 국가 가부장에 대한 자발적인 존경과 사랑의 감정을 통해 감시되었으며, 충은 물질적 보상 기제로 되어 충을 연출하고 증명함으로써 당원이 되고 직장을 배치 받고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⁵⁴⁾

불순한 성분의 사람들은 당원이 되는 것으로 성분을 희석시키고 사회의 변두리에서 기본대열에 들어오고자 노력했다.

우리 당비서가 사람 좋았어요. 나를 잘 봤거든요. 내가 외화벌이를 하면서 기업소에 이윤을 많이 주었어요. 사회에 대한 불평도 많았지만 그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나름 충성도 했죠. 왜냐면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토대 걸려도 그 가문 중에서 한 사람은 입당 시킨대요. 그래서 나를 입당 시키겠다고 김정일 특각(별장) 건설돌격대에 내보내겠다고 노력했는데 거기 아무나 가나, 핵심군중만 가는데, 당비서가 군당에랑 찾아다니면서 나를 보증서주고, 그래서 특각건설 가서 입당하겠다고 썩어지게 일했는데 결국 속았지요. (송남씨)

난 일 잘해서 속보판에도 계속 났어. 속도전 돌격대 전기화 공사에 갔었어. 입당하겠다고 새벽에도 나가서 일하고 그런데도 끝내 입당 못하고 2년 만에 다시 상업관리소에 왔어요. 그때가 1977년도쯤 되는데 왕재산기념비 개막식 하는데 몇 천명 환영군중 속에 내 이름이 빠진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20리길을 밤중에 울면서 집에 들어가서 사연을 말하니까 우리 엄마도 울더라, 입당하겠다고 그렇게 일하고 건설 판에 가서 노력했는데 환영군중 속에도 못 들어가니. (소연씨)

부모의 성분으로 이른바 사람 축에 끼우지 못했던 소연씨와 송남씨는 입당하려고 직장생활에 충실했지만 허사였다. 반면에 석남씨는 호위국에 있는 아버지 덕에 본인의 노력 없이 입당과 대학입학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었다.

“성분은 충성을 동원하는 중요한 통치원리였다. 견제와 불신의 인장을

54) 박경숙, 2013,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153.

떼어낼 수 있기 위해 열심히 노동하고 체제에 충성”⁵⁵⁾ 하였지만 복잡군중으로 낙인 된 사람들은 대대로 이어지는 불순한 성분의 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2) 위계질서와 수평관계

생산 활동과 업무수행은 ‘당에서 하나를 하라고 하면 열 가지를 하고 싶어도 하나를 하라’는 노동당 정책과 통제에 따라 자율적 행위가 억제된다. 이에 따라 간부들의 월권은 당의 이름으로 용인되며 직장인들은 지시에 순종하는 수동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직장성원들 간의 관계는 행정적 위계질서와 조직적 평등관계가 이중적으로 형성되는데 법적 준거보다 권력자들의 개인적 감정이 많이 작용된다.

난 우리 반장하고 사이 안 좋았는데 나를 보수반에 동원시키더라고요. 건설반인데 거기 반장도 그렇게 얄미워, 시멘트 몰탈 50~60키로 되는데 담가로 담아 아파트건설장 3층까지 들어서 맞들고 다니는데, 몰탈 이기는데 딱 지켜 서서 갔다 오면 다른 사람 교대시키면서도 나만 연속 시키는 거예요. 다 남자들이고 나만 여잔데, 보다 못해 건설지도원이 ‘동무. 여기가 장판이야!’(노동단련대) 소리 지르면서 중지되었어요. (민이씨)

직장장이나 작업반장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수월하거나 ‘먹을 알’이 있는 곳에 작업배치를 받을 수 있고, 밋상스런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나 기피하는 노동과제를 주면서 제재를 가하거나 직장 내 인원축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조직생활에서는 수평적 평등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조직생활총화를 통하여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비판하고 비판받을 권리를 행사한다. 당비서, 지배인, 간부들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다.

사례자들은 직장생활에서 조직생활이 제일 싫었다고 한다. 매주 반복되는 생활총화에서 자신의 비판과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것이 의무이다. 담주엔 누굴 비판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서로의 거동을 감시하고 머릿속에 기억한다. 상호비판으로 다툼과 갈등이 유발되는데 이에 대한 두려

55) 위와 같은 책, p275.

움으로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비판의 주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직장생활은 조직생활체계에서 이뤄지며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

직장종업원들의 관혼상제 부조, 식량이 떨어져 출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쌀 한줌 씩 모아주거나 앓는 사람을 위해 약도 사주고 병문안도 간다. 이러한 상호부조의 미풍은 집단소속감을 키워주고 공동의 주인이라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직장 내 살림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고 단위별 책임자나 당세포비서가 종업원들에게 호소하는데 이는 어머니 역할을 맡은 노동당, 조직의 이름으로 이뤄진다.

우리 직장에 명선이란 여자가 있었어요. 맨날 먹을 거 없어서 굶고 다니는 데, 사람들 욕하죠. 매랑탕(무기력)해서 장사도 할 줄 모른다고, 직장장이 호소하더라고요. 명선동무가 먹을거 없어 고생하는데 쌀 한줌씩 모아주자고, 다음날 보니까 쌀 500g, 국수 한 타래, 모두 그렇게 들고 나와서 줬어요.
(송남씨)

종업원이 사망하는 경우 부조, 장례에 필요한 운수기재와 인력을 동원해 시신 물어주는 일까지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해준다. 국가배급제도는 직장, 기관별 자체식량해결로 대체되면서 주민들의 국가의존도는 약화되고 국가 간 거리가 멀어지는 반면 직장, 단위별 결속과 의존 차원으로 이동하였다.

4. 동지(지인)

1) 친밀함과 경계심

북한에서 동료란 말은 잘 쓰지 않으며 동무, 동지로 부른다. 지인관계도 마찬가지다. 동지란 하나의 사상과 뜻,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인간관계는 동지애에 기초하여 수령을 중심으로 사회적 단합을 이루는 관계라고 한다.

북한이 상징으로 내세우는 일심단결이란 권력의 힘에 의한 강제적 단합이다. 줄을 당겨 각자 위치에 고정시켜 놓고 정교하게 얹혀진 억압적 기능

에 의해 조종당하는 극장의 나무인형 집단에 비유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이탈되거나 이탈하려 시도하는 경우 사방으로 연결된 감시 줄에 의해 당겨지며 자기 위치로 돌아가도록 통제된다.

끼리끼리 자주 모여 먹자판 벌리거나 여럿이 몰려다니는데 대해 가족주의, 조직규합, 종파행위로 간주되어 감시가 집중된다.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사상요소를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며 그 사소한 표현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⁵⁶⁾

당, 보위부, 보안소 감시망에 의해 감시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의 가장 가까운 동지(지인)가 도구로 이용되므로 ‘동무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말이 있다. 북한주민들은 함부로 의사표현이나 사회적 비판의식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친한 사이에 믿고 불만을 터놓는다. 이것은 훗날 갈등이 유발되었을 때 상대에 대한 공격의 무기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옹위정신의 발현으로 이용된다. 이에 따라 공적영역에서 집단주의 요구에 맞게 잘 연출하는 위장심성,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심성이 이중적으로 발전한다.

한편 동지(지인)는 명절, 생일을 비롯한 기념일에도 서로의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보내거나 가족문제 등 은밀한 사생활과 기쁨, 슬픔까지 함께 공유하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명절이면 다 같이 놀러가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퇴근하면 집에 모여앉아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회포도 나누고 그렇지요. (명남씨)

병철이라구 딱친구 있었는데 우린 명절이면 아이들 다 데리고 오늘은 우리 집, 낼은 병철이네 집, 이러며 놀러 다녔어요. 애들은 서로 큰아버지, 삼촌, 이렇게 부르죠. 병철이네 집 지을 땐 우리 아내랑 같이 가서 도와주구, 개네 아버지 아플 땐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지내기도 했어요. 어떤 땐 형제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송남씨)

56)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조선노동당출판사, 제6조 5항.

카페, 식당과 같은 만남장소, 영화관이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이 부족하므로 주로 주거지공간에서 여유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과정에 동지(지인)는 상호간 가족영역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생활을 공유하고 정이 깊고 밀접한 관계가 된다.

2) 관계중심 · 관계의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먹을 것을 나눠먹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미덕이 발양되고 있다. 위기나 위험은 인간 상호간 의존성을 높인다. 시시각각 생명을 위협하는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상호협조 해나가야 한다.

난 거의 백날동안 낱알 구경을 못하고 살았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사람 굶어 죽는 건 순간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가서 쌀 좀 꿔달라고 했어요. 그 애도 식구 다섯인데 힘들게 살아요. 소랭이에 쌀 두 키로밖에 없는 데 절반 갈라 날 주더라고요. (민이씨)

작은 도움이 아사직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인간본연의 도덕과 책임감이 생기게 된다. 굶주림을 겪어본 사람들은 자신이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 주었던 사람을 떠올리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느낀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은인으로 기억되고 싶은 명예심, 지금 도와주고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다는 무언의 빚을 지우게 되며 보상심리도 작용한다. 사회화 과정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도움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자각을 학습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도록 이끌어가는 호혜성 규범,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능가하는 경우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규범이 작용한다.⁵⁷⁾

권력에 의해 사회적 · 물질적 재부의 배분이 이뤄지므로 모든 행위를 실현하는데 자율적이 아닌 타율적이며, 이해추구와 제한된 자원을 얻기 위해 안면을 넓혀야 한다. 자녀대학추천, 승진, 먹을알 있는 직업취득, 이 모든 것 역시 권력을

57) David G. Myers, 2008, 『마이애스의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p943.

들어온 사람들과의 안면, 협력 없이 실현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동무’ · ‘안동무’⁵⁸⁾가 생활에 절실히 필요하며 이른바 ‘뉴턴의 제3법칙’⁵⁹⁾도 작용한다.

안면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들어요. 평양에서 살다가 지방에 내려가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진짜 살기 힘들었어요. 우리 사촌오빠가 자식이 넷인데 사위, 며느리 얻는 걸 여러 분야에서 데려 오겠다 그래요. 어디 가자면 너무 차표 떼기 힘들어서 철도 안내원을 며느리 들이고, 힘이 없으니 사위는 보안원, 당간부, 아들은 의사, 이런 식으로. (민이씨)

물질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관계의존형, 관계중심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생계가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되는 구조에 따라 물건의 판매와 구매행위는 서로 돕는 생성관계, 사회적으로 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민 모두가 시장판매원이자, 구매자이므로 인간관계가 얼마나 넓은가에 따라 생계활동이 좌우된다. 인맥을 많이 형성한 사람은 장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판매의 필수인 구매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인맥관리에 힘쓴다.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상대의 행동이나 결과가 예측 가능하므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적은 비용이 들고 더 높은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⁶⁰⁾

이데올로기적인 공식적 관계의 장 뒤에는 권력을 이용하여 서로의 이해와 협조에 따른 인간관계에 의한 밑바닥사회가 형성되어 있다. 집단주의에 의해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억압되고 국가통제가 강화될수록 이를 배제하거나 이용하면서 주민들 이해관계로 얽혀진 밑바닥사회 또한 동시에 발전한다. 국가 관리들과 주민들간 유착관계는 시장을 중심으로 확장되면서 공적관계는 시장원리에 흡수되어 국가통치능력을 긴장 ·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자율성이 극도로 통제된 공동체적 사회구조에서 공과 사의 인식이 분화되지 않아 공공의 가치가 사적 이해를 충족하는 논리로 전화되면서 비공식관계가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⁶¹⁾

58) ‘고동무’는 뇌물을 고이면 안 되는 일 없고, ‘안동무’는 안면이 형제보다 낫다는 뜻.

59) 뉴턴 운동법칙 1, 2에 따른 은어로, 고이면 움직인다는 뜻이다.

60) 정창수, 2005, 『이론으로 본 사회심리학』, 그린, p231.

61) 박경숙, 2013,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서울대학교출판

Ⅲ. 이탈에서 정착으로의 진입과정

1. 북한이탈의 의미

탈북 그 자체는 목숨과의 이탈이기도 하다.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이탈은 물리적 장벽을 넘어서는 과정에 감수해야 할 육체적 고통과 죽음, 형벌, 위험에 대한 두려움, 불안과 공포는 상흔으로 남아 심리, 정서적 기능을 변화시킨다.

가족과 생이별한 이산자, 고향을 잃은 실향민, 뜻을 같이 했던 동무에게는 변절자,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 체제에는 반항자, 소속된 조직체의 유리자, 국가에는 공민임을 포기하고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이탈함으로써 지금까지 이어오던 삶의 단절과 함께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생애 초기화 단계로 되돌아간다.

1) 사회적 관계 단절

“....., 이제 떠나면 부모님 산소를 돌볼 수 없는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다시 이곳에 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아버지, 어머니, 이 딸은 떠나립니다. 밝은 세상을 향해 가립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오던 ‘통일이 언제 됩니까?’의 물음이 마음속 깊이 와 닿는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도 이 딸이 돌아오는 통일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시겠지. 통일은 산 사람만이 아닌 조상님들께도 숙원이 되었다.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나서 자란 고향, 다정한 이웃 사람들, 언제나 마음과 숨결을 함께 했던 직장 사람들의 정든 모습, 참혹한 굶주림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준 영희 언니, 혜숙언니, 나의 열정과 심혼이 깃들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이 땅을 영영 떠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⁶²⁾

문화원, pp156~157.

62) 윤계인, 2012, “눈물 없는 내 나라를 찾아서”, 『월간북한』, 통권 492호, p167.

위 글에서는 분단으로 하여 수십 년간 부모와 자식의 역할을 하지 못한 자책감과 그리움의 고통 속에 헤매던 수많은 이산가족들과, 재회라는 평생의 숙원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분단의 영혼 속에 탈북과 함께 자신과 가족들,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합류됨을 보여준다. 친밀한 인간관계, 땀 흘려 이룬 성취물을 잃어버리는데 대한 애절함, 일단 고향을 떠나면 금단의 땅이 되며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곧 분단이 해소됨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탈북해서부터는 기약할 수 없는 분단의 불안과 공포에 더욱더 얽매게 된다.

① 가족관계 변화

탈북은 가족관계에 변화를 주면서 해체 또는 이산가족으로 자리매김 된다. 북한 이탈은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떠나간 비인간적이며 이기적인 행위이다. 반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안고, 함께 고생하느니 바깥세상으로 한 몸을 던져 돈 벌어 가족을 살리려는 역할을 하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자신의 탈북으로 가족이 탄압과 감시에 노출되어야 하는 피해의식, 남아 있는 가족과의 생이별은 인간으로는 견뎌내기 어려운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며 이탈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별의 두려움과 그 고통을 모면하고, 탈북의지 실천을 위해 가족들 몰래 떠난다. 사례자들 모두 자신의 탈북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떠나왔다고 하였다. 이때부터 남은 가족은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만남의 기대, 생사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과 슬픔, 생이별의 아픔에 병들게 된다.

탈북자가 탈북 한다는 것은 그냥 이 사회를 도망친다는 개념만이 아닌 온 가문을 버리고 간다는 이야기죠. 굳어져 있던 걸 깨고 정신적 각오, 정신병자가 아니구선 못 떠나요. 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는 건 둘째고, 온 가문이 박살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못 움직이죠. 탈북한 사람들은 둘 중의 하나다. 생각 없거나, 정신이 나가거나,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석남씨)

자신은 어디엔가 있을 밝은 세상이라는 희망을 찾아 떠나며 어두운 삶을

살아갈 가족을 두고 간다는 죄의식, 내가 떠남으로 하여 그들이 받을 피해의식은 다시 만날 때까지 풀릴 수 없는 속죄의 사슬이 되어 이탈자의 정신영역을 구속시킨다.

② 고향을 잃은 실향민

고향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구성과 향유를 보장해준 어머니 품이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대지의 나무가 뿌리 뽑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가 변형됨을 의미한다. 발저는 고향을 상실한 인간을 ‘바람 속에 휘날리는 나뭇잎’, ‘불쌍한 존재’로 표현하며 ‘살인에 비견되는 가장 끔찍한 범죄행위는 타인에게서 고향을 강탈하거나 그를 고향에서 내쫓는 것이다.’라고 고향상실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지적하였다.⁶³⁾

송남씨는 고향과 국가권력을 분리시켜 보고 있었다. 두만강 너머 바라 보이는 북한 땅은 송남씨가 반동분자의 자식으로 평생의 수모와 한 맺힘, 풍요로움과 행복의 추억보다 작은 배도 채워주지 못하는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의 장, 수난의 땅이다.

탈북을 몇 번 실패하니깐 힘들었는데 두만강을 일단 넘고 나니까 밤새 산속에서 기다렸는데 두만강 100메타 저걸 넘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지만, 내가 살던 땅인데 내가 버리고 가면은 어디 가던 간에 다시 못 올 땅이 된다는 게 억울하고 맘이 아픈데, 내가 태어난 그 땅을 한 몸 바쳐서 지키고, 바치고 싶은 곳이지만 저걸 남한테 뺏기고 오는 기분이더라고. 침략자가 내 고향에 들어와서 불태워버린 심정이었다. 다시 가자니까 말도 안 되고, 젤 힘든 것이 그것이었어요. 꼭대기 놈들이 사람들 굶어 죽던 간에 자기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 살지만 앓았어도 난 가난한 땅이라도 살아요. 5년 내로만 변한다 해도 내가 탈북 안했을 거야요.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안 변할 곳이지요. 그게 젤 힘들었어요. (송남씨)

삶의 요람이 소수 권력의 독점물이 되어 빼앗긴 것 같은 아픔, 고향을 버

63) 조광민, 2013, 「분단현실과 개인의 정체성: 마르틴 발저의 『유년시절의 수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2.

리고 가는데 대한 자책감을 느끼는 송남씨의 남다른 애향심은 연구자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준다. 시간과 장소, 관계, 활동, 생활의 연속과정에 스며 들어있던 삶은 고향을 이별함과 동시에 유체이탈과 같이 근원지에서 분리되며 정체성의 뿌리가 뽑혀지게 된다. 떠나는 고향이 공간적으로 과거와 현재로 분리되나 통일 이전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금단의 땅이라는 데로부터 기억 속에 현재로 남아 집착을 형성한다.

③ 인간관계 단절

사회적 집단속에서 상호간 부족 점을 메워주고 정신 · 물질적 채부와 능력을 교환하고 삶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살아오던 타인과의 관계는 단절된다. 어릴 적 친구, 사랑하는 연인, 학우들, 슬픔과 고통을 이해해주고 기쁨과 우정을 함께 나누던 직장동무들, 서로 의지하고 끈끈한 인맥을 유지해오던 지인, 마을사람들, 지금껏 삶의 과정 속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 관계는 단절되어 고립무원상태에 이르게 된다.

④ 사회적 성취의 상실

너와 나의 일체감을 이루는 직업적 공간과 조직체에서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며 도움, 사랑, 비판, 반성, 다툼, 갈등, 화해의 번복 속에 이어졌던 소속감, 땀 흘려 인정받은 노력과 능력, 열정, 지위, 명예, 학력, 재부, 태어나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사회적 성취는 북한을 이탈하면서 상실한다. 재사회화 과정을 통해 기존보다 더 나은 사회적 성취를 얻을 수 있고, 다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2) 권력 감시망 이탈

북한은 국가권력과 주민상호간의 감시망을 통해 주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체제를 유지한다. 당, 보위부, 보안소, 조직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보고된다. 이때에 공식 보고체계와 비선체계가 작동한다. 공식보고체계는 주민동태를 하부말단단위에서 노동당 통보과에 집중 보고하는 일일통보체계이다. 비선체계는 인구 5~10명당 1인이 당, 보위부, 보

안소 정보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 7~10일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의 발언, 동향, 경제활동에 대해 성문화하여 보고한다.

탈북을 위해 국경까지 나오려면 이러한 감시체계를 벗어나야 하므로 탈북은 단순히 지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것만으로 볼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국경일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이탈하기 위해 신체에까지 작용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과 감시의 구조를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가에 대해 선행연구들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휴전선을 넘은 사례자들의 목숨 건 여정은 분단권력에 맞선 저항행위였으며 장거였다.

(1) 국경일대 진입과정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여행절차는 법으로 규정되어 타 지방에 이동할 때는 여행증을 지참하고 움직여야 한다. 여행증 발급절차는 주거지 인민반장이나 소속단위책임자, 담당보위원, 보안원의 승인과 함께 사인⁶⁴⁾을 받은 상태에서 시(군, 구역)인민위원회 2부에서 발급해주게 되었다. 평양, 국경, 분계연선, 군수공장이 밀집된 자강도 희천 이북지역은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특별통행증이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특별통행증은 승인번호를 받아야 땔 수 있는데 관계부서 책임자들의 승인과 보증 하에 보안성5국(감찰국)에 의뢰한다. 여행의 목적이 정당한가, 특히 국경일대에 친척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수속기일이 한 달 이상 걸린다. 여행증 오른쪽 윗 상단에 매겨진 5자리수의 숫자는 매달 암호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사람과 열차보안원들 밖에는 알 수 없다. 이달에는 생년월일에서 난 날과 공민증번호 마지막 자리 수를 합한 수자 넣기, 다음 달엔 태어난 날과 증명서 발급 날짜 합한 수자 넣기, 특별수사대상이나 감시대상에 한해서 어떤 숫자를 넣으라는 지시가 매 달 기밀문서로 내려온다. 그러면 열차보안원은 감시대상으로 표기된 사람에 대해 짐 검사부터 꼼꼼하게 검열을 하며 여행기간에도 감

64) 거주지를 떠나 이동 중에 사고, 탈북과 같은 비정상이 발생되면 발급해준 기관, 사인해준 담당자들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시를 벗어날 수 없다. 여행증은 북한주민들의 동선을 장악통제하기 위한 기제이며 주민활동의 표적이었다.

평시에 가까웠던 사람도 탈북실천과정에서 적이 될 수 있고 방조자가 될 수도 있다. 국경을 넘는 것은 순간이지만 송남씨가 감시구조를 넘어서는데 무려 5년이 걸렸다.

난 탈북할 때 형제들한테 안 알렸어요. 가겠다면 가라고 하겠어요? 량강도나 함북도라면 몰라도 황해남도에서 탈북 하겠다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야요. 생사기로에 놓인 그 위험한 길인데, 성공한다는 생각은 안하고 90%는 실패한다, 가다 죽더라도 시도는 해보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용은 써보다 죽어야지.

내가 탈북하자면 먼저 보위부 놈들 안심시켜야 되서 사리원에 가서 살겠다고 하고 동거집(세집) 마련해놓고, 우정(일부러) 우리 동네 친구들 데려다 잠도 재우고, 소문내느라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사리원에서 장사하다가 다 망해서 청진에 낙지잡이 가야 한다고 소문 퍼뜨리고 일부러 시장에서 낙지잡이 도구들을 다 사가지고 청진 간다고 친구들 앞에서 연출하였어요. 주변시선을 돌려놓고 집 서서히 팔았어요.

난 요시찰대상이라 도망친다고 거주는 절대 안 떼주죠. 거주 안 떼 상태에서 청진에서 2년 동안 1500달러 협잡당하고, 무연탄장사, 낙지데꼬(거간), 채소장사 하면서 국경선 겨우 뚫었어요. 신문지 들고 두만강에서 있으라 그래서 있는데 경비대가 추격해와서 겨우 도망치고 세 번 실패했죠.

바다로 탈출하자고 배를 무었는데 저놈들 내가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물에서 말하면 어느 놈이 고자질 할 것이고 바다에 나가서 내가 나가서 남조선으로 뛰자, 이렇게 말했다가도 어느 놈이 스파인지 알 수 없고, 만약 반대한다면 그 놈들이 바다에서 날 죽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여야 하는데 차마 사람은 못 죽이겠더라고요. 이게 찡찡한 거더라고요. (송남씨)

송남씨는 평생을 특별감시대상으로 살아왔다. 일단 탈북을 결심한 순간부터 주민 상호간 감시구조에 의해 주변인들은 적이 된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감시망을 떼어버리지 않고 무작정 탈북 길에 나섰다가 체포될 확률이 높았으므로 송남씨는 실로 많은 자금과 시간을 허비하였다.

(2) 목숨 걸고 휴전선 넘어서기

매우 드물게 휴전선 넘어서는 사례가 있는데 휴전선은 남과 북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들은 외국을 경유하는 탈북자들과 달리 휴전선을 넘어오므로 귀순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석남씨와 명남씨가 휴전선을 넘었을 때 그들을 맞이한 사람들은 전방군인들이었고 아군에 투항해 온 적군으로 취급하였다.

그 당시는 군의관이었으니 군복을 입고 휴전선까지 왔어요. 일반 교통수단, 기차랑 타고 오면 내가 가는 길이 노출되기 때문에 차잡이 하면서 온 거죠. 휴전선을 보면 남측은 환하고 북측은 캄캄하니까 밝은 빛을 따라 간 거지. 군대 때 배운 게 있었어요. 산꼭대기 철조망 있는 경우엔 주로 잠복 근무들이 선 꼭대기가 아니라 산 밑에 일반적으로 있어요. 잠복근무 있나 해서 20분 감시하고 20메타 기어가고 철조망 앞에 와서 철조망 끊고, 정전이었지 그러다가 소나무 꺾어서 짝지발 해놓고 보니 고압이 흐르는데 놀라서, 그 안에 기여 들어가서 걷기 시작했지요.

철조망을 두 번 넘어야 해요. 1지대 철조망이 있고, 민경철조망이 있죠. 1지대에서 들켰으면 잡힐 확률이 많은데. 원시림인데 길이 없어요. 나무들이 죽어 넘어지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갑자기 노루새끼가 뛰고, 분계철조망을 두 개 넘고, 철조망 사이가 2키로 정도 되는데 중앙 분계선은 철조망이 없죠. 첨엔 여기 돌아가려고 했는데 새벽 두시, 세시가 되어 오는데 아직 첫 번째 철조망도 못 넘어선데, 지뢰 밟았는데 안 터졌는지 하튼 운수가 좋았어요. 한두 시간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를 12시간 넘었다고요. 이리저리 구덩이, 물웅덩이에 빠지고 오줌도 그냥 바지에 쏘면서, 솔직히 말하는데 집사람 콧 버리고 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사람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강제로 데려오면서 ‘내가 가다가 지뢰 밟고 터지면 뒤 돌아보지 말고 나를 밟고 그냥 꽃꽂이 가라’고 말했어요.

중앙 분계선에 들어서니까 날이 밝기 시작하는데 옛날 밭이랑 있던 지역이야. 나무랑 가끔 있는데 거기 갈대가 보통 키보다 높아요. 안개가 짙 끼고 그 경치란 이루 말할 수 없고, 환상적인 판 나라에 온 기분이야. 그때 감정은 황홀한 마술에 끌려가는, 똥똥 떠가는 기분이었죠. 넘어서서 남측군인들이 “손들엿 돌아서라” 하고 땃놈이 몸수색하고 초소 들어가자마자

먹을 거 달라니까 죽을 주더라. 그때부터 집사람하구 분리돼서 안기부 들어와서 조사 받았지. 그때부터 나는 살았구나 하면서도 남산지하실 들어가서 매 맞아죽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지. (석남씨)

개성에서 살던 명남씨는 남한을 지척에 두고 살아온 탓인지 다른 사례자들과 달리 남한을 이웃마을로 생각하고 있었다. 황해남도 연안, 강령, 웅진, 배천, 개성을 비롯한 신해방지구 주민들은 이승만 정권회하에서 살다가 북한국민으로 되었으므로 풍습이나 생활, 의식영역에 남한의 경험과 향수가 남아있는 지역이다. 특히 개성시민들은 개성공단을 통해 남측의 기업운영과 물질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남한과의 거리감이 줄어들어 이질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경으로 오는 길은 생각도 못하고 모르고 내가 맘만 먹으면 남한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가족한테 간단 말 안하고, 얼마 안 있으면 만나겠는데 걱정할거 있나? 일 나갔다고 생각하겠지. 레성강이 개성하고 황해남도 경계선인데, 거기까지 걸어와서 와서 구멍대 없이 헤엄쳐 왔어요. 일단 물에 들어가니까 떠난 길이니까 가야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지요. 돌아설 수없는 길이니까, 강에도 물속탐지기가 있는데 다행히 걸리지 않고 왔어요. 내가 여기 온건 여기도 내 땅이고, 저기도 내 땅이니까 알고 싶고, 보고 싶은 거뿐이지. 헤엄쳐 오는데 8시간 걸렸어요. 마지막엔 기진맥진해서 겨우 왔어요. 딴 나라에 온 느낌은 전혀 없던데요. 그냥 이웃 마을에 온 느낌이었어요. (명남씨)

남한은 명남씨 아버지의 고향이어서 물리적으로 단절된 공간이지만 마음속에 정체성의 근원지로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생계, 체제불만, 정치적 목적으로 규정짓던 탈북이 우리의 삶 전체를 구속하는 분단권력에 대한 항거, 그것을 넘어서려는 의지에 의해 분단질서를 와해시키는 미시적 역할임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3) 해외대열 이탈

북한은 중국, 러시아, 중동 지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근로자들을 파

견하여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해외에 파견할 때는 행정기관을 구성하고 당, 조직체계를 갖춘 대열을 편성한다. 해외파견근로자들은 공간적으로는 해외에 있으나 실제로 북한권력의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하는 구조 속에 몸담고 있다. 해외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은 공식용어로 ‘대열이탈자’로 불린다. 러시아에서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성남씨는 해외대열을 이탈한 것이 정식 북한을 이탈한 것이라고 증언한다.

러시아 벌목공으로 4년 일했는데 오리목장이예요. 오리들을 사육사들이 몰고 다니면서 벗어나려면 채찍으로 때려서 몰아넣고, 그래서 오리목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통제돼서 생활하는데 돈 벌러 왔는데 돈만 제대로 주면 누가 뛰겠어요. 아무리 빠 빠지게 일해도 철성판 등지고 일해도 주는 건 없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북한은 국경도 있고, 군대들이 지키지요? 러시아는 얼마든지 도망가자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보위지도원이나 당비서 몇이서 수백 명을 다 지키는데 한계가 있는데도 무서워서 도망칠 생각 못해요. 왜 도망 못가나 면요, 북한에 인질들 있잖아요. 가족들 있으니까 도망갈 생각을 못하는 거죠. 스파이들이 너무 많고, 단속통제가 심해요. 가족들 대해서 그냥 강조하고.

내가 일하던 러시아 립산사업소는 북한하고 꼭 같아요. 내가 한 말이 어느 순간에 당비서, 보위지도원 귀에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나쁘다고 생각되면 척결돼가지고, 나무 무는걸 척결이라 하는데 족쇄란 소리죠. 딱지 붙어 나간 사람들은 나가서도 사회생활 하기 힘들죠.

러시아에서 도망쳐 나온 게 결국은 통제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거죠. 2000년 러시아 벌목하러 북한 떠났을 때가 아니고 그때가 바로 탈북이에요. 내가 사업소 오리 목장에서 나왔을 때가 탈북이거든요. (성남씨)

‘탈북자’란 용어는 1994년부터 남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최초로 러시아에 벌목공으로 파견되었던 북한근로자들의 현지탈출을 부르는 용어로 유래되었으며 점차 북한을 이탈하는 북한주민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게 되었다. 따라서 해외대열 이탈을 ‘북한이탈’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악화의 악조건에서 체체유지와 사회통합을 지속하고 있는 주요인 중 하나는 가족단위로 적용되는 연좌제이다. 국

가가부장제 강조로 개별가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나 혈연적 가족개념은 연좌제 때문에 더 강조되는데, 정도에 따라 외가는 4촌까지, 친가는 8촌까지 연좌제에 해당한다.⁶⁵⁾ 연좌제는 주민들을 체제에 종속시키고 저항과 반대세력이 생성하지 못하게 하며 주민의 무조건적인 충성과 국가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기제였다.

2.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정체성

1) 북한이탈주민의 기존의 개념

분단구조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 체제경쟁, 체제대결의 상징으로 남한사회에 존재하여 왔음을 시대별에 따른 개념을 통해 알 수 있다.

해방 후 북한을 이탈한 주민은 월남자, 6. 25전쟁 시기 남으로 내려온 사람은 피난민·월남자로 불렸다. 또한 두 정권의 패권 겨루기 속에서 어느 한 쪽을 택하거나 전쟁판에 생존을 위한 일시적 피난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단의 1차 희생자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실향민’, ‘이산가족’으로 불렸다.

냉전의 구도 속에서 남북 간 체제경쟁이 쟁점에 이르렀던 1970~1980년대는 아군에게 투항하고 귀순한 적군이라는 의미에서 ‘귀순용사’로 반공주의를 상징하였는데 주로 군사분계선에서 복무하던 군인들이나 고위층 인물들이 대표된다. 이시기 귀순자들은 “체제 경쟁의 논리가 극대화되어 월경행위 자체를 국가를 위한 유공행위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치우”⁶⁶⁾ 하여 왔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동유럽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낸 남한이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포용과 동정의 대상인 ‘귀순동포’로 불리며 남북 간 체제경쟁의 종식을 상징하였다.

‘귀순자’와 ‘탈북자’의 차이를 보면 “‘귀순자’라는 호칭이 개인의 체제 선택의지에 따라 남한사회를 선택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면, ‘탈북자’라는 호칭은 북한 체제의 경제난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해서 강제된 북한체제 이탈

65) 조한혜정의, 2000, 『탈분단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공존을 위한 모색』, 삼인, p155.

66) 정병호외, 2006,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 p33.

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⁶⁷⁾ 식량난에 의한 탈북행렬이 남한으로 대량 이어지면서 정부는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로 1997년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이로써 기존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은 폐지되었다.

2005년 통일부가 제정한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새터민’ 용어는 다문화가족, 이민자도 해당되는 개념, 기존의 한국사회의 일원이 아니라는 또 다른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따를 경우 남한사람들을 ‘헌터민’으로 분류된다.⁶⁸⁾ 일부 탈북자들은 이주민적 시각에서 ‘새터민’ 용어보다 자신의 문화적 의미가 경제적, 다문화적 측면이 아닌 북한 체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측면에서 위치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탈북자’ 표현을 더 선호한다.⁶⁹⁾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을 통해 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귀순자로 불리던 탈북자들을 주로 좁은 범위의 정치적 시각으로 보았다면 경제난 이후 대량 탈북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탈북자 문제를 난민적 성격과 동포애, 넓은 의미에서는 통일에 대비하는 미래역량으로 정부가 떠안아야 할 책임과 의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용어는 분단질서의 상징, 타자화 된 개념으로,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 주체와 특수적 지위를 반영한 개념이 정의되지 못하고 법적 호명이 학계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사회학적으로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개념

남한을 벗어나 북한으로 가는 남한국민에 한해서는 ‘탈남자’가 아닌 ‘월

67) 김성옥, 200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 연구: 신문기사의 유형 및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68) 조성철, 2010, 「탈북자의 정착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0.

69) 오원환, 2011,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87.

북자’, 북한에서는 ‘의거 입북자’라고 부른다. 동등한 개념으로 쓰인다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월남자’로 불러야 할 것이다. ‘월북자’란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의미, 북한이탈주민이란 권력의 구조, 체제를 이탈하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개념은 시대, 정치, 사회, 역사적 맥락과 변화과정을 반영하며 현실을 인지하고 경험하는 실재의 요소이며 정치, 문화, 사회적 도구와 지배 체계모니를 구축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도구가 되기도 한다.⁷⁰⁾ 새로 정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에는 상호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단의 현실, 북과 남의 법의 정신, 북한체제의 성격과 구조, 북한이탈주민 정체성이 다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의 상징성은 항상 역사적으로 결정되며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배치에 의존해온 것처럼 ‘탈북자’의 상징성은 남한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호명의 결과이다.⁷¹⁾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를 반영하여 국경의 의미를 두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⁷²⁾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한 민족 두 체제’중 다른 체제를 선택한 사람, 또는 제도, 법, 규범적 가치와 질서를 갖춘 국가적 공간을 이탈한 사람이라는 인식도 갖게 된다. 남과 북은 제각기 전체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국가’임을 자처하였지만 각각 당해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당해 지역을 지배 통치하는 ‘국민국가’일뿐이었으며 서로를 ‘괴뢰정권’이라 호칭하고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추구하여 왔다.⁷³⁾

북한헌법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한 것처럼 당이 국가를 장악하고 있다. 당은 수령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통치수단으로, 국가는 도구로 이용된다.

70) 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한영문화사, pp57~ 58.

71) 오원환, 2011,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78.

7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14, 제12278호 일부개정, 01, 21.

73) 김낙중, 2008, 『민족의 형성, 분열, 통일』, 평화연대, 평화연구소, pp235~236.

북한은 철저히 수령의 교시에 따른 노동당의 영도에 의해 국가, 경제, 사회 전반이 운영되며 모든 주민들은 당,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생활하는 사회 정치적 조직체다. 노동당의 영도체계를 떠나서 그 어떤 사회적 기능이나 관계, 국가,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해 논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1장 북한주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밝혔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란 “조선노동당 당원(근로단체 맹원)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고 노동당의 영도체제에서 이탈한 자”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때 공적영역과 사적영역까지 조직생활을 통하여 장악 통제하는 북한의 강력한 권력통치구조(북한헌법 제11조에 명시된바)와 그 구조를 이탈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의미 지을 수 있다. 또한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부정하고 통일이라는 공동의 지향을 띠고 있는 두 정권의 가변성, 분계선 너머 북한지역에서 살다가(대한민국 헌법 3조) 국가적 공간이 아닌 정치적 조직체(북한헌법 11조)에서 이탈되어 남한으로 온 주민이라는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만 7살부터 시작되는 조직생활은 일생토록 이어지며 개인의 일상도 조직의 규범과 통제 속에서 진행되고 조직생활을 통해 존재, 가치, 신분, 충성, 능력, 사상 모든 것이 평가되고 규정된다. 조직생활은 분공집행과정과 사상생활, 생활총화⁷⁴⁾로 나뉘는데 분공은 맡은 업무와 직무, 심지어 사생활에서까지 무엇을 할 데 대한 과업을 주는 것으로 제때에 무조건 어김없이 집행 할 의무가 있다. 사상생활에서는 사회주의 사상과 당 정책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한다. 생활총화라는 정기적인 의례를 통해 당의 유일적 영도체제 보장과 집단주의 가치실현, 모든 성원들의 수령, 당에 대한 충성심, 자질, 능력이 평가되고 이탈행위가 적발, 방지된다. 5명 이상부터 당 세포, 초급단체(근로단체)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성원들의 모든 일거일동은 중앙당까지 보고된다.⁷⁵⁾

숙이씨의 구술에서 조직적 통제와 감시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74) 1962년 3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후부터 생활총화 제도가 도입되었다.

75) 북한의 모든 단위, 기관의 당·조직책임자들은 소속인원들의 출근, 휴가, 여행, 병 치료를 비롯한 모든 움직임을 당비서에게 보고하며 시(군)당, 도당을 거쳐 노동당 조직지도부 통보과에 북한 전역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까지 모두 반영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한해 다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사망했다는 정보 받고 집에 가보니 아버지도 거의 운명직전이었어요. 그래 아버지 병시중 드느라 휴가기일 지나고 간호진단서 떼서 몇 달 있었는데 우리 직장에서 난리가 난거예요. 세포비서가 당적으로 조직생활 유리자(이탈자)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 계속 비판 받으니까 나중에 사람 보낸 거예요. 그 면데로, 내가 탈북 할까봐 더 떨었던(두려워)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세포비서도 연대적 책임을 져야 하니까.

난 남들 다 장사하는데 먹을 거 없어도 그냥 직장생활 충실했는데, 북한에선 그런 사람 일등 머저리라고 해요. 짬짬이 돈도 벌어야 해서 아프다고 진단서 떼고 안 나갈 때가 있었는데 진단서도 의사들 돈 주면 떼 주거든요. 하루는 초급단체 위원장이 확인하러 우리 집 찾아왔다가 내가 집에 없으니까 아프다는 게 거짓말이다, 너 어디 갔됐냐고 공장 위원장한테까지 불려가서 욕 얻어먹었죠. (숙이씨)

집단적 규제와 조직적 통제 속에서도 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자율적 거래와 생계활동으로 불법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뒤에 따르는 위반, 즉 조직규율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뒤따르며 조직 내에서 네가 잘못하면 나도 피해를 입게 되는 관계의존형으로 얽혀있다.

북한 당국은 직장이동을 조직생활과 연관시켜 사회를 통제한다. 직업, 거주이동시에는 7~8명 이상의 당, 조직, 행정책임자들의 연대수표(싸인)와 함께 조직생활 이동증이 필수이며 조직적 승인이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 조직생활 이동증이 있어야 거주지와 직장에 수속을 하고 식량을 배급받을 수 있으며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사직하거나 다른 공장으로 옮기려면 가고자 하는 기관과 조직책임자의 확인인증이 있어야 한다. 직장이동수속이 끝나면 시, 군당,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모든 공장, 기업소, 기관소속 조직위원장들을 통해 이동인원들이 실제 그곳에서 근무하는지 매달 확인한다. 이동인원이 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 독촉한다.

탈북 하다가 잡혔어요. 겨우 도망쳐서 숨어있는데 누나가 너 절대로 탈북 할 궁리 마라. 그냥 너 살던데 가서 살아라, 다시 살자면 그동안 조직

생활 안했다고 비상사건화 하고 지금까지 어디서 뭐 했냐 들추면 탈북 시도한 거 다 들통 나는데 그럼 또 법적 처벌 받고 그게 무섭고, 조직생활 안하고 둥둥 떠 있으니까 어디 가서 발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죽을 내기로 세 번째 만에 탈북에 성공했어요. (송남씨)

사례자들은 탈북이 단순히 국경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 조직생활체계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조직에서 이탈하면 아무 곳에도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다고 구술한다.

우리 공장은 배급도 안주고 그래서 좀 먹을 알 있는 공장으로 옮기려고 수속하는데, 내일 오라, 모레 오라 수속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하루는 동 여맹위원장이 우리 아파트 1층부터 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느 직장 다니나, 조직생활을 어디서 하나 다 뒤지는데 내가 집에 있다가 걸렸어요. 내가 지금 수속중이라는데도 이름 적어 넣으면서 우리 아파트 여맹초급단체 위원장한테 내일 부터 조직생활 참가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만 물어보는데 여자들이 직장생활 잘 안하고 탈북 하는 것도 여자들이고, 하튼 여자들 단속은 심해요. (숙이씨)

체제불안정의 요소인 탈북자가 늘어남에 따라 유동인원에 대한 통제를 조직생활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구성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8%⁷⁶⁾이다. 북한 당국은 여성의 탈북, 특히 젊은 여성들이 대량 탈북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으로 법적 처벌과 여성들에 대한 조직생활 장악과 통제에 더욱 힘쓰고 있다.

조직생활은 북한주민들의 일거일동, 사생활 영역까지 깊이 침투되어 끊임없이 감시, 장악, 통제되면서 체제에 얽어매는 제도적 권력 장치이다. 조직생활을 포기하였을 때는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할 수 없으며 조직을 떠난 사람은 북한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된 구조이다. 따라서 북한을 이탈하려고 결심한 사람은 조직생활을 포기한 사람이며 국경을 넘기 전이라도 이것이 외부에 노출될 때는 조직생활 유리자로 조직적, 법적 처

76) 박경숙, 2013,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275.

벌이 작동한다. 결국 조직생활에서 벗어난 북한사회에서 이탈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입국 전 임시단계: 비공식적 사회관계

1) 탈북의 배경과 요인

1994년 김일성의 사후 북한은 일명 ‘고난의 행군’에 들어갔다. 이미 1993년부터 자강도, 함경남북도 지역에서는 배급이 중단되기 시작하면서 1996년~1998년에 이르러 대량아사자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국경 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폐쇄사회에 갇혀있던 그들은 처음부터 탈북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소수인원이 강 건너 중국마을에 가서 식량도움을 받아온 것이 소문나면서 그저 식량을 얻거나 돈을 좀 벌어서 돌아가려는 단순한 생계목적에서 시작된 불법도강은 탈북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산생시켰다.

탈북이란 용어는 탈냉전, 탈 사회주의라는 용어처럼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북한체제를 탈출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다.⁷⁷⁾ 국가가 주민들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명을 위협 당한다. 또한 북한이 언론, 출판, 종교,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권리가 없고⁷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임을 고려할 때 사실 북한 이탈주민의 탈북은 정치적 권리와 생존권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들은 극히 소수를⁷⁹⁾ 제외한 대부분이 그들 스스로

77) 박명규외, 2011, 『노스코리안 디아스포라: 북한주민의 해외탈북 이주와 정착실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12.

78) 북한헌법, 1998, “제67조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통해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에 준하여 헌법 제67조, 제68조는 헌법상 문구로만 존재한다.

79) 국경지역에서 인신매매꾼들에 의해 강제납치 되어 중국에 팔려간 사례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로가 거주했던 북한을 이탈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 반역자로 몰아 법적 처벌과 억류를 통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신체적 고통, 정치적 박해를 면할 수 없다.⁸⁰⁾ 주민의 안녕과 생활을 보장할 국가의 책임이 상실되고, 지속되는 경제난에 의해 최소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사생결단이란 점에서 탈북자는 난민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패한 정치·경제체도의 모순이 싫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는 행위 자체가 국제법상 적용되는 ‘난민’의 요건인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다.⁸¹⁾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가입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인한 박해를 받을 만한 명백한 공포로 말미암아 자신의 국적을 이탈한 사람이 자기 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정치적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또는 무국적자로서 그러한 사건(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단체 가입·정치적 의견)의 결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하던 국가로부터 이탈하여 살던 국가로 되돌아 갈 수 없거나 박해를 받을 명백한 이유로 인해 거주하던 국가로 되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⁸²⁾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독립국가이며 정치적으로 안정된 북한을 이탈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중국의 완고한 입장에 의해 난민의 지위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초보적 대우도 보장받지 못하고 최악의 인권유린에 노출되어 있음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⁸³⁾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월경하게 된 것은 남성들이 공식생산조직에 매어있고, 여성에 비해 당원비율이 더 많고, 당·조직 생활에서 누락되면 본인과 가족에게까지 정치적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여자는 중국 남성에게 결혼으로 흡수될 수 있는 반면 남성은 발붙이기 어려운 조건과도 관련된다. 여성은 사회 및 조직생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국가가 보

80) 김강녕, 2006, 『탈북자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 pp61~65.

81) 최창동, 2000,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 p131.

82) 이규창외,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통일연구원, p4.

83) 배이화, 2012, 『생존을 위한 긴 여정』, 탈북여성인권연대, pp20~30.

장하던 가족의 생계를 모성애로 책임져야 했던 탓에 장사와 행랑 길에서 헤매면서 탈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림 3-1>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입국경로

‘고난의 행군’시기 1차적으로 탈북 하여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던 탈북자들이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동북지역의 조선족들을 통해 가족들과 연계되고 돈이 넘어오고, 복송된 탈북자들과 외부언론매체의 정보를 통해 발전하는 중국에 대한 동경과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었다. 국경일 때는 탈북의 바람이 불면서 특히 20대 안팎의 여성들이 손잡고 하룻밤에 십여 명씩 떼를 지어 도강하는 사태가 연이어 일어났다.

내적요인으로 본다면, 여성을 귀하게 여기고 잘 해준다는 중국남성이 북한남성들과 비교되며 가부장적 억압과 여성에게 들쭉위지는 경제적 부

담으로부터 탈출하려는 해방의 욕구는 결혼의 공간을 국외로 넓혀나가는 동기를 유발하였다. 외부적 요인은 쉽게 상품화 할 수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수요, 국제결혼시장의 흡인력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초기 탈북이 목적지가 불분명한 행방형 탈북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먼저 탈북한 부모형제, 브로커를 통한 목적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중국내 머무르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그들과 연계되어 대다수 탈북은 목적지가 분명한 남한 행으로 되었다. 체제불만과 문화적 충격, 상대적 비교와 물질주의 가치관이 증가하면서 단순생계형 탈북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진취형 탈북으로 발전되었다.

북한을 이탈한 순간부터 북한이탈주민은 공민권을 비롯한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상실하고 타인에 의해 운명이 좌우된다.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무권리자로 남편, 시집식구, 고용주와 수직적이고, 비공식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몸은 상품화 되고 물리적 도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 겪는 폭력, 감시, 육체적 혹사, 북송의 위협에 따른 공포는 삶의 궤적에 파편처럼 박혀 인격체를 굴절, 파괴, 변화시켰다.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은 “남녀불평등과 여성의 상품화를 구조화한 초국가적인 이주체계에 포섭되면서 중층화”⁸⁴⁾ 되었다.

2) 중국에서 새로운 가족 형성

옥이씨는 북한에서 부모님을 여의고 청진에 있는 언니네 집에서 얹혀살던 중 언니마저 병으로 사망하였다. 의지할 곳이 없어져 방랑하던 중 중국에 가서 1년쯤 돈을 벌다 올 생각에 밀수꾼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를 조선족남성에게 팔아버렸다. 중국에 팔려갈 당시 그저 배고픔을 면하고 의지할 수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맘에 없는 남자와 살면서 병신하고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낫다는 위안과 밥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했다. 부지런히 농사지으며 걷어 들인 곡식을 보며 흐뭇했고 노력만 하면 돈도 손에 쥘 수 있고 통제가 없어 좋았다. 사랑은

84) 박경숙, 2013,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310.

없었지만 남편에게 의지하여 살려는 노력과정에 북송에 대한 두려움은 항시적으로 그를 위협했다.

민이씨는 한 직장 남자와 연애로 결혼한 지 1년도 안되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 육체를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였던 ‘고난의 행군’시기 가족은 파편화 되면서 그 범위는 국경 밖으로 확대되었다.

우린 셋방을 얻어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도적놈들이 7차례 들어와서 나중엔 이불거죽까지 다 뜯어가고 우리 입던 옷까지 훔쳐가고 알몸으로 나왔고, 엄마가 통곡하고 우는데 주위에서 상가난줄 알았대요. 우리 아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 내가 젖이 안 나오고 너무 울어서 목이 다 쉬고, 같이 있다가는 굶어 죽겠으니 사는 길이 헤어지는 길이다. 각자 어디 가서 주먹먹든 빌어먹든 해서 목숨을 건지고 후에 세상이 좋아지면 다시 만나자.

그래서 난 아직 익지 않은 살구를 구력에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꽃제비 생활을 했어요. 해산에서 해매다가 잘 데가 없으면 압록강가에서 자곤 했어요. 중국에 넘어가서 먹을 것을 좀 얻고 돈이나 벌어서 다시 나와서 아버지 엄마에게 돈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강 넘다가 아들은 압록강 물살에 떠내려가고, 내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국경경비대가 달려와서 구원해주었어요. 시보위부구류장에 갇혔는데 애기 없으니까 젖이 그냥 흘러나오고, 물골이 너무 처참하니까 보위원들도 ‘저 여자 내보내라’ 그래서 나왔어요.

난 다시 강을 넘어서 중국마을에 맨발로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혀를 차면서 인신매매꾼들에게 데려갔어요. 산둥성 시골 한족마을에 시집갔는데 남편은 3대의독자, 나와 15년 차이나는 사람인데 마음은 착했어요. (민이씨)

민이씨는 아들을 잃은 그 순간을 ‘자신의 나이가 70이 된 순간’이라 회고한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평생의 ‘한 맺힘’으로 응축되어 그의 정신심리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이 된다.

난 아들을 낳고도 쌀 구경을 못하고 빵을 먹었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땀감이 없어 강냉이(옥수수) 짚을 매고 일어서다가 까무러치고 정신 차리니 밤이요. 찌그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이어서 내가 신랑과 진흙으로 토끼를 찍

어서 집을 짓고 울타리를 치고, 그때 난 또 한 번 죽을 뻔했어요. 마을사람들이 어디서 저런 복덩이가 굴러왔나 다 칭찬하고 부러워했어요.

북한에서보다 더한 고생을 하고 내가 이런 시골에서 살다가 엄마, 아버지에게 돈을 못 보내주겠구나, 안되겠다, 시내에 나가자 해서 한국기업들이 몰려 있는 청도에 나가서 한국회사에서 일하면서 돈 엄청 벌었어요. 한국회사들에 이름이 알려지면서 다른 회사 사장들이 우리 회사로 와서는 나를 만나보겠다고,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부러워하고 좋아하더라.

내가 우리 마을에서 살 때는 꽤 재재해서 고생터 쓰고 살 때는 팔자가 나쁘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젠 부림의 대상으로, 앞으로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마을 촌장이 나를 아는 게 큰 스펙인 것처럼 회사에 와서 내가 아무개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게 내가 이름을 날리고 집도 두 채를 사놓고…….(민이씨)

시집에서 민이씨는 3대의독자 며느리에 손주까지 낳아준 가문의 귀한 존재였다. 낮은 조건에 순응하지 않고 주체적 역할로 생활을 개척했다. 시집을 나오면서부터 민이씨는 부부관계가 민이씨 중심으로 변화되며 자기 중심적인 주체로 발전하게 된다. 삶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능력을 더욱 발휘하여 물질적 성취와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생활 하던 북한이탈주민들은 무국적자로 북송의 위험과 인신매매, 등에 노출되어 1차적 생명유지에만 머무르던 피동적 존재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민이씨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구속력을 자주적으로 타개해나가며 능동적 존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민이씨가 북한에서보다 더한 정신 육체적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돈 벌어 북한의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배고픔에 허덕일 혈육들에 대한 심연의 아픔, 가족을 향한 마음이 그의 능력을 끌어내는 계기가 된다. 그는 많은 돈을 뿌리면서 끝내 북에 있는 가족과의 연결을 하였지만 부모와 동생의 사망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는 꾸준히 벌어서 1년에 5,000~ 10,000위안씩 북한형제들에게 보내주곤 하였다.

혈육에 대한 그리움은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정신적 지주였다. 굶주림의 상흔은 위험하긴 하나 먹을 걱정은 없는 현재 자신들의 처지와 비교하

며 만남을 기약할 수 없는 철폐된 구조 속에 갇혀있는 가족들과 강한 혈육의 유대와 집착을 형성했다.

3) 남한입국과정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주민은 북한에 거주하는 동안 북한 공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정지되어 있다가 일단 탈북하면 그 효력을 갖게 된다.⁸⁵⁾ 남한입국 경로는 관계국과 그곳에 주재한 남한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입국하는 공식적 방법과 여권위조, 밀항을 비롯한 비공식적 입국, 해상탈북, 휴전선 넘어오는 비공식적 방법이 있다.⁸⁶⁾

국경을 넘거나 해외대열에서 이탈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불법체류자로 북송의 위기와 경찰에 체포될 위험이 의식 속에 잠재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품팔이로 살아간다. 이 과정에 문화적 충격과 남한사회를 접하며 남한 행을 결심하고 입국통로를 찾기 위해 같은 탈북자, 주변의 조선족들과 연계를 맺게 된다.

남한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들과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탈북브로커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입국을 유지하고 있다.

(1) 남한영사관과 연계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으로 오기 위해 브로커의 도움 없이 무작정 연계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영사관이다. 한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주민이 남한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⁸⁷⁾로 규정되어 있다. 남한정부의 정책은 탈북자가 외교공관에 들어오기만 하면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주재국과 협상하여 신변안전보장과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을 도모해준다.

85) 김강녕외, 2006, 『탈북자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 p130.

86) 정주신, 2007, 『탈북자문제의 인식』, 한국학술정보, p45.

8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부분 개정: 2001. 5. 24).

성남씨는 러시아 별목공으로 나온 기회에 눈을 다치게 되면서 돈 벌어 집으로 돌아가려던 꿈은 접어야 했다. 장애인협오사회에서 시각장애인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도 없다. 북한은 국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무시정책을 실시하였는데 1980년대초부터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맞으며 평양시에서 장애인들을 외곽으로 강제 소개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몸이 성한 사람도 살기 어려운 북한에 돌아가서 시각을 잃은 자신이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심리적 부담이 컸다.

눈 다치는 바람에 2003년 2월부터 남한 가겠다고 결심하고 나와서 있다 보니까 남한영화도 자주 보게 되고, 난 진짜 군대 나갔다 와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나라밖에 몰랐어요. 그때부터 남한대사관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계속 전화연계를 가졌어요. 조금만 기다리라 하는데 우린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참엔 나 혼자 준비하고 있다가 그래도 좋은 길 가는데 날 따르던 친구들 데려오고 싶어서 7명 모집해놓았어요. 대사관 연락 기다리느라 일을 못하고 돈이 없고, ‘너 진짜 확실하게 가는 거 맞냐’ 이러며 다 떨어져 나가고 그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고, 나 혼자 남아 돈도 없이 지내는데 그러다가 다음해 3월 달 2004년인데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난 돈도 없고 가다가 잡히면 돈이 있어야 빠질 수 있는데 알고 지내던 중국교포가 닭 4마리를 사주고, 나한테 있던 오디오랑 다 팔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우리 있던 예까쩌르부르그 지방에서 모스크바까지 기차로 4일은 가야 해요. 열차에서 나를 보호해줄 경찰이 필요해서 모스크바는 경계가 심하니까 길 안내자가 필요했는데 조선족 형님이 나한테 돈 주더라고요. 그 도움으로 영사관에 무사히 들어왔어요. 일단 들어오면 남한에 온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성남씨)

연구자: 잡히면 중국처럼 내보내나요?

그런 것 같지 않고, 어떻게 하나 돈으로 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합동 수사할 때 잡히면 복송될 수 있고, 그 외는 연락해서라도 돈 가지고 와라, 벌금 내고 가라는 거죠. (성남씨)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 탈북자에 대해 관대했으며 공직자들의 뇌물행위가

성행하여 돈만 찢어주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NK' 뉴스에 따르면 2014년 9월 러시아도 중국처럼 북한과 탈북자 강제북송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북송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⁸⁸⁾

러시아내 탈북자들은 탈출하면 대부분 자신들과 언어가 통하는 고려인과 중국 조선족들이 많은 극동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면서 현지 고려인, 러시아인의 별장이나 자택, 교외의 농장, 공장 등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은신처를 제공받고 있다.⁸⁹⁾

러시아에선 피부색갈과 인종이 다르면 무조건 잡아요. 중국은 잘 모르잖아요. 항상 가짜 증명서라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500루블 가지고 다니다가 증명서 검열하면 안에다 돈 끼워서 주면 돈만 빼가지고 가요. 그러다 돈이 없을 때 잡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좀 있는 러시아 사람들은 시내에다 집 안 짓고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호수도 있는 곳에 호화주택 짓는데 그 안에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숙소를 아예 만드는 거죠. 뼈다귀를 세운 집에, 거기서 숨어 지내면서 일하고 생활하고, 다 끝나면 또 다른데 가서 그렇게 살면서 언제 집 같은데서 살아보는 게 없지. 항상 일하는 장소에서 사는 거죠. (성남씨)

성남씨는 러시아에서 난민자격을 받고 남한으로 왔다.

난 러시아에서 국제적십자와 유엔난민사무소 인터뷰심사를 다 통과하고 국제난민증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한국까지 왔죠. 지금 태국으로 온 것도 거의 다 가짜 여권을 발급해서 오거든요. 그 전에 러시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나처럼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성남씨)

북한이탈주민들이 체류하고 있던 해당 국가들에서 그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는가에 따라 난민, 불법체류자로 인정받게 된다. 불법체류자로 인정받는 경우(태국사례)는 재판절차를 거쳐 이민국 감호소에 체류하는 동

88) MBN뉴스, “러시아도 중국처럼?…북한과 '탈북자 강제송환' 협정”, 2014. 11. 12.

89) 윤인진, 2009, 『북한이주민-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80집, 집문당, p90.

안 남한대사관 성원들의 관리 하에 일종의 임시조직생활을 한다. 방장과 부방장, 조장을 선출하고 감호소의 하루 일과가 집행된다. 남한 말 익히기, 선배탈북자들의 정착사례, 드라마시청, 청소년들 경우에는 영어도 배우면서 남한에 대한 초보적 이해를 형성한다.

(2)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 브로커, 교회와 연계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라디오나 TV를 통해 남한사회를 인식하며 그를 토대로 점차 남한으로 가는 통로를 알게 된다. 조선족들을 통해 남한의 브로커와 연계되거나, 탈북지원 사업을 하는 국내인권단체, 교회의 도움으로 남한 행에 오른다.

숙이씨는 북한에서 양정사업소에서 일하면서 친구의 남편과 내연관계였다. 둘이 다 양정사업소에서 수급지도원, 인수원으로 일하면서 식량을 다루며 경제적 여유가 있었지만 국가적 조치로 그들이 일하던 직장이 해산되면서 직업을 잃고 생활적 타격을 받게 되었다. 내연남의 아내는 재산을 팔고 집을 나가버렸다. 번민 끝에 내연남은 몰래 남한방송을 들으면서 남한 행을 결심하게 된다. 평시에 남편보다 내연남에게 더 의지했던 숙이씨는 남편과 군대나간 아들을 남겨두고 딸을 데리고 따라나섰다.

성민이 아버지(내연남)가 우리 무서워할까봐 남한이란 말 안하고 중국에 간다고 했어. 성민아버지가 군사복무하면서 지도 볼 줄 알거든, 무작정 가마, 쌀을 배낭에 메고 내가 딸, 성민아버진 둘째아들 성민이 데리고 넷이서 떠난 거야. 산에서 먹고 자고 해매면서 약초꾼으로 가장하고 다녔지.

성민아버지가 지도좌표를 보고 정확히 지점을 찾아서 우린 점심시간 이용해서 압록강을 건넜어. 이도백하마을이더라. 메고 온 쌀을 그냥 메고 돌아다닐 수 없어 버려야 하는데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비닐에 정히 싸서 나무아래 놓아두었어. 아무 사람이라도 가져가라고, 그리고 울었지 뭐. 그럴 줄 알았으면 식구들 먹게 다 주고 왔을 걸, 얼마나 후회스럽던지. 우린 그냥 방향도 모르고 해매는데 그래도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많았지.

우리 성민이 아버지가 제일 힘들었어. 무작정 교회를 찾아 들어갔지. 조선족이 운영하는 교회인데 갈아입을 옷, 돈 100원가량 주더라, 식당에

들어갔는데 말을 알아 못 들으니 써빙하는 여자가 제격 조선족 아바이를 데려왔더라. 그 아바이가 제 돈으로 음식 값 치러주고 버스 태워주고, 그분 연락하고 은혜 갚고 싶은데 알 길 없으니, 평생 은인이야. 우리 성민이 아버지가 남한 방송을 많이 들어서 중국에 가면 기독교부터 찾아가야 우리가 산다고 해서 기독교에 찾아가니 여기서 살 수 없으니 남한에 가라며 선을 잡아 준거야. (숙이씨)

무작정 떠난 탈북 길에서 숙이씨 내연남의 군복무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북한주민들이 당국의 단속에도 남한라디오와 TV를 비밀리에 시청하면서 접한 남한과 3국에 대한 정보는 탈북의 동기를 유발하고 위험을 넘기고 무사히 빠져나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언어·문화적 차이라는 장벽에 부딪쳐 헤맬 때 3국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은 동포였다. 동포애의 정으로 위기에서 구원해준 조선족들도 있었지만 돈벌이를 위해 탈북자들을 상대로 인신매매를 벌인 조선족들도 많았다. 탈북자들을 잘 아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 사선에서 구원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경이씨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딸이 중국의 친척집으로 달아나버리자 딸 찾으러 건너온 것이 탈북으로 되었다. 그는 친척들 도움으로 가정보모로 있으면서 바깥출입을 금지하고 공안의 단속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안전을 보장받을 담보는 없었다. 딸이 먼저 남한에 오고 1년 후 남한행을 결심하고 브로커에 의해 구성된 일행과 함께 중국,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오게 된다.

내가 남한에 간다고 하니 그냥 로반양(주인여자)이 눈물 흘리면서 아쉬워했어. 너무 정이 들고 지금까지 가정보모 몇 번 갈았는데 내가 제일 맘에 쓰는데 간다고. 갈 때 월급 1500원에다 여비로 쓰라고 1000원 더 주더라. 다른 집은 애 봐주면 600원씩 주는데 나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려주더라. 그래도 잡혀나갈 걱정애 중국에서 오래 살 수 없었어. (경이씨)

소연씨가 탈북을 결심한 것은 남편의 폭행에 자녀들까지 시달리고, 폭행의 원인이 아버지가 국군포로이기 때문에, 성분으로 박해받는 북한을 뜨기로 결심하고 남편과 온 가족이 도강하여 중국에 있는 시집에 찾아간다.

5개월 살았는데 우리 남편이 무서워서 못살겠다는 거야. 사방에서 잡혀 나가니까 자기 부모들 다 있는데도 겁이 나서 가겠다는데 우린 남편이 하는 대로 하잖아. 북한에 도로 나가서 남편이 보위부에 가서 자수했는데도 노동단련대에 보내고 나도 보위부에 가서 죽을 죄를 졌다고 겨우 사정해서 난 단련대 안 갔지. 남편이 나오고, 도저히 못살겠으니 다시 중국에 가자는 데 남편은 안가겠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다시 중국에 넘어왔지. (소연씨)

소연씨는 이 일을 계기로 남편에게 매어 살던 수동적 존재로부터 자기 주체로 거듭난다. 남편 몰래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탈북하면서 소연씨는 남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탓에 처음부터 남한을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연길에서 식당일 하면서 우리 로반이 내가 북한사람인거 알지만 내색 안했어. 주위 사람들이 남한가면 돈도 잘 벌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해. 남한 TV에서 6시 ‘내 고향’이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 고향 나오나 봐도 청도가 안 나와. 우리 아버지 고향이 청도거든. 남한이 시골인데도 엄청 잘 살더라.

나도 남한 가려고 결심했지. 그러다 공안에 한 달가량 잡혀 있다가 변방대로 넘겨졌는데 공안 한명이 총각인데 ‘너 나한테 시집 안 오겠나? 너희 내놓으면 우리가 정복을 벗어나야 하니까 갔다가 다시 와라’ 하면서 전화번호와 돈 200원 줬어요. 도문 공안에 넘기면서 우리를 잘 돌봐줘라고 부탁하고 남한기도(남한가려고)라는걸 문건에 안 써서 넘겼어요. 남한가려 했다면 처벌이 더 엄중하니까. 도문에서 넘어가면 온성보위부에 가는데 온성보위부는 좀 만문하고, 회령이 세고, 그런 거 중국공안이 다 아는 거야. 한 가족을 한꺼번에 내보내면 말을 못 맞추니까 우릴 생각해서 딸을 먼저 온성으로 내보내고 난 열흘 후 회령으로 내보내고.

우리 딸이 노동단련대에서 도망쳐 나와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그 애 건네준 군대가 말하기를 흑룡강성에 시집간 애하고 함께 건너는데 둘이 두만강에 들어서서 한복판에 폭 빠지더니 둥둥 떠내려가더니 중국 쪽으로 딱 꺾어 들어가더라. 근데 아직 소식 없어. 내 생각엔 볼 낯 집에 들어갔다가 아가씨니까 팔렸다고 생각해.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데.

난 회령보위부에 잡혀 나왔는데 회령보위부새끼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다리를 쪼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하는데 다리 쥐가 와서 다리를 조금 폈더니 ‘이 간나들 다 서라.’모두 일어났어. 난 서 있다가 넘어지

는데 옆 사람이 나를 세우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보위부새끼가 쇠살창 째므로 물주전자를 나에게 부러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난 물에 흠뻑 젖었더라. 겨우 살아 나와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먼저 남한 간 사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온 거야. (소연씨)

소연씨는 남한 TV를 시청하는 과정에 아버지 고향에 대한 시각적 인식과 관심을 가지게 되며 주변을 통해 점차 남한입국통로를 알게 되었다. 북송과정에 딸의 미모에 반한 중국공안의 도움으로 위험은 감소됐지만 딸과의 생이별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 소연씨는 베이징에 있는 남한영사관에 8개월 머무르다가 남한에 입국한다.

(3) 중국가족의 또 다른 해체경험

옥이씨나 남이씨는 공안에서 탈북자수색을 나올 때마다 시집식구들과 친척들이 정보를 알려주어 몸을 피하곤 했다.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 북송의 위험이 닦혔을 때 막아 나선 사람들은 그나마 남편이나 시집식구들이었다. 사례자들이 맘에 없는 사람과 피치 못해 살았던 점으로 보아 의리적 관계이기보다는 돈 주고 사온 소유물, 생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잃게 된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옥이씨는 아이를 낳고 생활의 안정을 찾아나가던 참이었으나 탈북자라는 이유로 공안에 체포되지 않으면 인신매매꾼들에게 걸려들 사면초가에 빠져 더는 살수 없게 된다. 결국 가정을 떠나 심양의 어느 한 호텔에서 함께 일하던 주방장의 소개로 만난 평양상업대학 출신의 탈북자를 만나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북경대사관에 무작정 진입하였다. 그날 자신을 포함한 십여 명의 탈북자들의 대사관 진입장면이 한국 TV에 나왔다고 한다.

아이를 낳고 가족을 형성해 정주해 살 수도 있었던 결혼여성들은 북송의 위험, 무국적자, 무권리자,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적 상황에서 또 다른 가족(중국에서 이뤘던)의 해체를 경험하게 된다. 신분증을 가졌다 해도 가짜 신분이므로 발각될 수 있고 북한사람이라는 위치는 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심스럽고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불안전한

위치였다. “탈북 여성을 만나는 것은 길에서 금반지를 주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로⁹⁰⁾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을 강탈하기 위한 매매꾼들의 모략과 책동이 우심했다.

단순히 배고픔을 모면하려던 동물적 욕구로부터 항시적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이며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인간의 욕구로 발전하면서 최대한의 생존능력으로 형성했던 터전을 버리고 또 다른 진로, 남한 행을 선택한다.

(4) 남한입국 요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입국 경로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 탈북의 요인은 안에서 밀어내는 힘인 경제난, 둘째 밖에서의 당기는 힘은 중국의 성비불균형에 의한 결혼시장의 흡수력, 셋째 남한에서의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이었다.

남한정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은 견인력이 되어 중국에 머무르던 북한이탈주민들은 국적과 권리, 합법적 지위를 찾아 어제 날의 적이면서도 모국인 남한을 향해 탈북에 이어 또다시 탈 중국의 길에 오르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정착지원금은 브로커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는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브로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내 주민들의 탈북을 유도하는 선점적 역할을 한다.

남한정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은 북한 내 주민들의 탈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는데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탈북에 필요한 브로커 비용, 주거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헤어진 가족을 데려오고 재결합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입국은 주로 가족의 재구성·재결합으로, 먼저 입국한 사람들이 북한의 잔여가족, 국적취득을 위한 조선족(드물게는 한족)들을 끌어들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탈북과정에 누구나 인생은 깨어지는데, 사회경력, 가정, 사랑, 등 많은

90) 이순형외, 2009, 『탈북민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43.

것을 잃고, 그로 인한 상처는 영혼에 체화되고 깊이 박힌다.⁹¹⁾

4. 남한정착의 의미

1) 공민에서 국민으로

① 체제선택

한 민족 내에 존재하는 두 체제 중 다른 체제를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영토내 거주한 주민으로, 북한체제를 이탈하여 남한으로 오면 남한국민으로 인정된다.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전 민족을 대표하는 국가로 자처하는 것은 분단을 애써 부정하려는 억지논리지만 분단현실은 민족구성원들에게 체제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착지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쩌면 실천에 의한 투표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② 분단질서 변화

- 3만여 명에 가까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소수사회를 형성하고 결혼, 동료, 직장,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남한국민들과 어울리기(작은 통일 이루기)는 남한의 사회적 관계와 정부의 통일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 남은 가족과 전화 통화, 송금, 등을 통해 연계를 맺게 된다. 그 과정에 가족들은 남한의 실상을 알게 되고, 남한경제의 수혜자로, 남한과 연결된 사람이 되었다. 주변지인들과 친척들을 통해 그 영향은 확장되면서 추상적 실체였던 남한은 현실적으로 북한사회와 주민들의 생활세계와 의식 속에 내면화 되어 가고 있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사회를 밑으로부터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사회를 개방하고 발전시키며,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실질

91) 원재천, 2003, 『새로운 차원에 접어든 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193.

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⁹²⁾

③ 3세대 이산자

해방 후부터 6.25전까지 북에서 넘어온 주민들(1세대 이산자)은 약 74만 명이며 6. 25전쟁 시기 넘어온 피난민, 월남인(2세대 이산자)들의 수는 65~100만 명 정도이다.⁹³⁾ 이들에 이어 6. 25전쟁 이후에 넘어온 귀순자, 북한이탈주민은 분단아픔의 상징적 존재, 3세대 이산자로 자리매김된다. 북한이탈주민 절대다수는 북한에 잔여가족이 남아있으며 1차 가족이 동반 탈북한 경우에도 2차 가족이 남아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고향인 북한에 맘대로 갈 수 없으며, 가는 행위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된다. 상호간 금단의 땅이 되어 버린 남과 북에 널려있는 가족은 분단권력의 지배적 힘에 구속되어 있으며, 혈연적 유대를 엮어맨 올가미에서 해방됨은 곧 분단해소를 의미한다.

2) 개인정체성 회복

① 개인정체성 확립

북한에서 개인정체성은 집단주의질서에 복종되면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전체주의는 개인주의를 지나치게 억압하여 자아, 이성, 자율성은 내면적으로 억눌리고 분열되며 개인적 실체를 모호하게 만든다.

남한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적 삶을 살게 되면서 ‘나’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국가와 집단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기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자유에 따른 선택과 책임을 지는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② 귀향

분단과 6. 25전쟁을 계기로 북으로 들어간 국군포로, 월북자들과 그 후

92)곽정래, 2010, 『북한이탈주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가치 수용, 삶의 질 평가, 시민성 형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1.

93) 정병호외, 2006, 『웰컴투 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 p32.

손들에게는 귀향길, 정체성의 근원지로 돌아움을 의미했다.

명남씨 아버지는 고향이 경기도 연천이다. 전쟁 시기 폭격을 피해 다니다가 머문 곳이 개성이었는데 양측이 밀고 당기는 군사심리전속에 어느날 갑자기 개성이 북측에 귀속되면서 북한국민이 되었다. 명남씨 아버지는 인민군에 끌려가 사망한 것으로 신고 되어 있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오늘 그의 자식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소연씨는 간난신고 끝에 아버지의 유골함을 메고 남한에 들어왔다.

우리 아버지가 늘 고향에 묻어 달라던 유언을 잊지 않았어. 그래서 남한선을 찾다가 브로커 만났는데 그가 먼저 ‘국군포로들이 있을 건데’ 우리 아버지가 국군 포로라고,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산 사람은 모셔와도 죽은 사람은 안 모셔온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고향 가는데 그런 건 상관 안하니 그저 가는 길만 좀 대달라고 사정했지.

근데 고향 가면 우리 삼촌이 5살 때 헤어졌는데 ‘아버진 어데 두고 혼자 왔냐?’ 그럴까봐 아버지 시신을 고향에 갖다 묻어야겠다고 하니 브로커가 깜짝 놀라더라.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아버지 묻을 땅을 못 사겠냐? 그래서 우리 아들을 내보냈지. 우리 아들이 두만강 넘어가서 술 못 먹는 애인데 한 병을 마시고 밤에 혼자서 파자고 하니 갑작스레 무섭증이 와서 못 파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거요. (소연씨)

연구자: 그땐 막 드나들었네요?

그땐 돈만 주면 좀 드나들었지. 2002~2003년경인데, 달러 한 장을 민패 7장하고 바꿔가지고, 군인에게 100원 주고 청명날 중국에서 같이 지내던 우리 동네사람 데리고 다시 건너가서 아버지 유골을 파왔지. 브로커가 너무 늦장부리다가 우리가 잡혔지 뭐. 복송시키려고 승합차에 나하고 딸만 안태우고 아들은 동네사람들하고 가고, 발버둥 치며 아들하고 안 헤어지겠다고 울고 난리였지.

중국공안이 브로커 잡겠다고 우릴 빈집에 가두고 브로커 전화 오길 기다리는데, 난 숙소 집에 두고 온 아버지 유해가 없어질까봐 ‘아버지 제발 나 도와주세요’ 그냥 빌었어. 소설책에서 하늘땅이 맞붙는다는 말이 있잖아. 옷 좀 갈아입게 해 달라 구실대고 숙소 집 아줌마 불러왔는데 그때

‘아버지 유골이 든 트렁크를 잘 검사해 달라. 내가 어디를 가던 살아서 꼭 다시 올테니 잘 검사해 달라’ 그랬지. 그건 뭐냐고 물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 말귀를 알아 못 듣더라. 북송돼서 나갔다가 훗날 다시 강 건너와보니 아버지 유골함을 장릉위에 검사하고 있더라고요. (소연씨)

아버지의 유언을 실천하기 위한 소연씨의 사투는 국경을 초월한다. 북송의 위협과 아버지의 유골 그 자체를 상실할 수 있는 극도의 위기상황이 겹치지며 일촉즉발의 긴장과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다. 동족상쟁과 분단의 비극 속에 고향이라는 정체성이 뿌리 뽑혀진 소연씨 아버지는 적군의 상징인 ‘국군포로’로 사회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것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염원은 유골이 되어서야 성취되었다. 정체성회복을 위한 대를 이은 노력은 분단질서 흐름에 역행하며 산자와 죽은 자의 영혼이 합체된 애절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현재 소연씨 아버지는 현충원에 안치되어 과거의 기억 속에 들어와 있다. 고향은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어서 한 인간이 타향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승리에 가득 찬 삶을 살았다면 그 환희를 전하고 감사해야 하는 장소로서, 또 반대로 실패와 파멸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이 고달픈 삶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의미로서, 또 최후로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⁹⁴⁾

IV. 사회적 통합: 남한에서의 사회적 관계 형성

사회적 통합은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한 인간이 사회 속에서 새로운 사회 틀에 ‘적응’하기 위한 작업이며 기존체제의 영향이 크게 남아 있을 경우 통합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⁹⁵⁾ 마슬로우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단계는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의 5단계로 나뉜다.⁹⁶⁾ 이에 따르면 배고픔을 면하려던 생리

94) 조광민, 2013, 「분단현실과 개인정체성-마르틴 발저의 『유년시절의 수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재인용, p12.

95) 원재천, 2003, 『새로운 차원에 접어든 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87.

96) 박연호외, 2014, 『현대인간관계론』, 박영사, p196.

적 욕구(탈북)는 북송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추구(해외체류)하던 것이 남한사회 정착과 함께 사회적 인간으로 살려는 욕구로 발전하면서 더 높은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로 상승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 및 정착하기 위한 과제로서는 북에서부터의 개인인성 및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인간관계 및 문화적 이질성의 통합으로서 남한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형성하여 상호작용을 하고, 남한사회의 제도와 관습, 문화에 익숙해지고, 경제적 안정,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얻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정착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⁹⁷⁾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체로 5단계의 심리적 불안정을 거쳐 정착하게 되는데 첫째 이질문화 충격 단계로서 공포와 불안감이 심한 시기, 둘째 남한사회의 여러 측면에 대하여 불만과 동조라는 복잡한 심리상황에서 갈등, 셋째 어느 정도 적응이 이루어진 상태, 넷째 남한사회에 순응하고 동화하는 시기, 다섯째 문화·사회적 통합단계로서 남한사람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시기다.⁹⁸⁾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통합문제는 국가적 통합(북한)에 머무르던 북한주민들과 통일 후 남한사회와 더불어 다차원적인 사회적 통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시험대이다.

1. 대한민국 국민 되기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정착하면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은 무국적자로 북송의 위협과 불안, 공포, 멸시와 천대 속에 인간이하의 삶을 살아오던 북한이탈주민들이 국가에 소속된 일원으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엄과 권리, 자유를 찾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것과 ‘남한사람 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북한이탈주민들 스스로가 ‘남한사람’인지, ‘북한사람’인지 고민하며, 그들을 바라보는 남한 주민들 시선도 ‘이주민’,

97) 서재진, 200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일정책연구』, 통일연구원, p231~232.

98) 이우영, 2003,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통일연구원, p28.

‘난민’, ‘동포’, ‘다문화사회의 소수자’, ‘헌법상 국민’ 등 다양하다.⁹⁹⁾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 그 자체가 탈북의 처지를 나타내는 객관적 용어인지, 내부인에서 배제시켜 외부인으로 취급하기 위한 용어인지, 혹은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¹⁰⁰⁾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서 많은 어려움과 구조적 장벽으로 하여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닌 ‘탈북자’라는 정체성에 머물러 있다.

“도착한 후에도 이들을 담당하는 정부의 각 기관마다 접촉하는 공무원마다 각각 다른 인식과 태도로 이들을 대한다. 탈북동기를 조사하는 국방부(합동심문센터) 사람들은 ‘간첩’으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취조하다가, 갑자기 ‘귀순용사’로 대접하며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일거에 보여주려고 애쓰는가 하면, 통일부 직원들은 ‘귀순동포’로 ‘북한이탈주민’으로 동정하다가, 동회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영세민’으로 취급하고, 노동부에서는 ‘실업자’로 ‘실직자’로 사실상 ‘무자격자’, ‘무능력자’로 대한다. 경찰에서는 ‘감시대상자’이자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때로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고뭉치’로 여기면서 사고를 쳐도 특별히 봐주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탈북아동들은 ‘지진아’로 그 부모들은 ‘이상한 학부모’로 여기기 쉽다. 이렇게 다른 입장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공공기관들을 연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탈북이주민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혼란스런 정체감을 갖게 된다.”¹⁰¹⁾

북한이탈주민들은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교육과 경제활동, 관계 맺기를 통해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된다.

1) 사회적응교육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입국하여 약 3개월간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99) 하지현, 2012,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소통 방법의 이해”, 『통일인문학논총』, 제53집, p319.

100) 이순형외, 2007, 『탈북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대학교출판부, p205.

101) 정병호외, 2006,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이 남한살이』, 한양대학교출판부, p39.

등 관계기관 국가합동심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으로 이관된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제2의 고향집’이라 부르는 곳이다. 하나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관계는 사회에 나와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자신의 경험이나 처지를 비교할 수 있는 주된 준거 대상이 되며 이후 생활과 적응에도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¹⁰²⁾ 하나원에서 3개월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초교육을 받으며 정착준비를 갖춘다.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데 있으며 12주간 남한사회이해,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심리안정, 진로상담, 직업훈련, 가정체험 등 현장중심교육을 받고 가족관계등록, 주거알선, 보호결정을 받는다.¹⁰³⁾

하나원에서 퇴소한 후 북한이탈주민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각 지방별 하나센터(지역적응센터), 사회복지사들과 거주지보호담당관, 주거지 민간단체나 여러 자치단체 소속 정착도우미, 민간자원봉사자들과 연계 밑에 문화체험, 시장보기, 은행이용, 교통수단 이용, 등 현장학습을 한다.

2)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 1.13) 제1조는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밝히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지원정책에 의해 정착금지원과 주거공간, 직업훈련수당, 고용지원금을 비롯한 취업지원, 생계급여, 의료보호, 연금특례를 비롯한 사회복지지원, 특례, 편 · 입학, 학비지원을 비롯한 교육지원, 신변보호를 보장 받는다.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 만족도는 만족 69.3%, 보통 29.3%, 불만족 7.3%”¹⁰⁴⁾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

102) 이순형외, 2008, 『탈북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대학교 출판부, p340.

103) 통일부 통계자료, 북한이탈주민정책 현황.

104) 조동운외, 2012,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책”,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2012권 1호, p13.

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초기정착에 정부의 지원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과 거리가 있고 정착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효과는 감소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자립과 자활의 기치에 중심을 두고 남한실정에 북한이탈주민을 끼워 맞추려 했을 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진출 이후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현실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해준다.¹⁰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구조적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어 생활세계와 인간상호관계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은 그들 스스로가 넘어야 할 산이다.

2. 남한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1) 반공주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게 되는 남한사회는 그들이 살던 북한과 대립되어 북의 이념을 반대하는 반공이 사회현상과 행위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며 반복의식이 뿌리 깊은 사회이다.¹⁰⁶⁾ 반공주의와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전체주의 정치문화가 남한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했으며 국가의 유일한 정당화 기제로 되어왔다.¹⁰⁷⁾ 국가 권력자들의 분단 고착화 작업은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만이 아닌 한국전쟁과 반공이데올로기 레드-콤플렉스로 이어지는 사회 기제, 심리기제를 생성시켜 국민들 마음에 내면화, 재생시킴으로서 분단구조는 물리적 선의 의미를 넘어 마음의 분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¹⁰⁸⁾

분단 질서 속에서 북한은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승리’의 슬로건, 남한은

105) 이용화, 200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연구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7.

106) 절차적 민주주의 달성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많이 완화되기는 하였다.

107) 전태국, 2013, 『사회통합과 한국 통일의 길: 내적 장벽을 넘어서』, 한울, p31.

108) 김헌식, 2003, 『색깔논쟁』, 새로운 사람들, p440.

‘반공’을 국시로 삼고 적화통일과 승공통일의 이념대립과 상대를 이겨야만 하는 경쟁논리에 따라 체제의 공고화와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여 왔다. 북한은 집단주의체제 강화를 위한 독재의 기능을 통해 정치, 군사적 우위 확보에 힘쓰고 인민생활을 소홀히 결과 허구적인 사상에 의한 자유와 민주주의 결여, 물질결핍사회로 전락하여 탈북이라는 주민들의 체제이탈현상을 초래하였다.

남한은 정부주도의 경제발전과 신자유주의질서속에 경제 강국 반열에 오르고 짧은 기간에 민주화를 이뤄냈으며 북한을 이탈한 다수의 북한주민들을 남한국민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결과 북한식 사회주의에 맞선 반공주의, 집단주의체제에 비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패권의식이 남한사회 전반에 팽배하였다. 세계화, 신자유주의질서속에 편입된 남한사회에서 ‘혈통’, ‘민족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국민적 감정은 ‘민족적 감정’에서 점차 분리되게 되었다.

북한주민들은 ‘우리민족끼리’, ‘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는 교육을 받으며 폐쇄된 공간에서 민족주의 감정이 매우 강하다. ‘한 민족’이라는 동질감을 갖고 오지만 남한사회의 이러한 현실 앞에 부서진다.

2) 경쟁주의 · 일방적 동화주의

남한이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에서 북한과의 경쟁을 전제로 한 반공이데올로기는 국민적 결집과 개인적 희생을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 반공주의는 자연스레 남한사회의 핵심 운영원리로 승격되는 와중에 적자생존의 경쟁논리로 자리매김 하였다.

“학교에서 경쟁적 인간으로 사회화된 젊은 세대들은 취직과 직업전선에서 그들의 경쟁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채찍질 당한다. 여기에는 유능한 가족부양자로서의 남성적 책임의 압력과 사회 계급적 상승 이동의 야망이 집념으로서 그들을 압박한다. 이런데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이 동창들 사이, 친구, 동료들 사이에서도 서슴없이 자행된다. 이 구조에 잘 적응하는 현실주의자가 가장 유능하며 생활력이 강한 성공적 인간형이

되는 것이다. 가까운 친구들 사이의 신의나 인간적 우정 및 약자에의 사랑이나 협동은 낡은 시대의 감상주의로 배격되고 있다.”¹⁰⁹⁾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자격을 부여받고 지난날 적의와 경쟁의 대상이었던 남한국민들과 더불어 이들과 결혼, 동료·지인, 상사, 직장 등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살아가게 된다. 남한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이 팽배할 때는 북한사회를 적대시했으나 경제적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진 오늘날에는 동정의 대상, 이끌어줄 대상, 즉 열등한 타자로 인식하고 있다.¹¹⁰⁾

최근 들어 남한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일반국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세금을 축내는 사람들로, 대한민국에 늘 감사한 맘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로 취급된다.



<그림 4-1> 북한이탈주민 남한에서 착한 성공하기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은 기존의 모든 가

109) 이효재, 1985, 『분단시대 사회학』, 한길사, p28.

110) 정병호외, 2006,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이 남한살이』, 한양대학교출판부, p87.

치관과 태도를 버리고, 남한사회의 규범, 가치, 자유민주주의 이념, 법, 질서를 받아들이고 시장원리에 적응하면서 동화되어 나갈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받는다. 그것이 곧 착한 성공으로 인정받는다. 남한사회는 단일문화를 사회이데올로기로 삼고 북한이탈주민들을 한 민족으로 간주하므로 그들에게 ‘통합’적 문화적응 방식보다는 주류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며, 그들의 생활방식과 능력, 가치를 인정하기보다, 변화를 통해 남한인들에게 맞추며 살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¹¹¹⁾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정착이 통일에 대비한 사회적 통합의 시험장이라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만 변할 것이 아니라 남한사회와 국민들도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과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아량, 태도를 변화하는 것이 미래의 통일국가 국민으로서 성숙한 과정을 거치는 바람직한 일이다.

3) 다원적 개인주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상상 속에 존재하던 남한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원적인 사회다. 집단주의 가치관과 질서에 따른 복종과 희생, 협조·이타심이 강조되고 국가권력의 도구적 역할을 하던 그들은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율성, 다양성, 물질주의 등 다원적 유형들에 적응하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탈북자들은 모든 것이 수령의 이름으로 당에 의해서 정해지고 때로는 세습되며,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대부분을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사회로 왔다. 즉, 새로운 상징적 질서 속으로 편입된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질서 속에 이미 위치 지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탈북자라고 하는 호명에 의해 구성된 정체성에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거부하는 일종의 내적인 타협의 과정을 거치는 데, 종종 한국 사회는 그 타협의 결과를 두고 탈북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했다거나 부적응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¹¹²⁾

111) 이순형외, 2008, 『탈북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대학교출판부, pp368~ 369.

북에 남은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조직생활을 통해 집단의 일원으로 느끼던 강력한 소속감을 개인주의사회에서 회복할 수 없게 된다는 좌절감은 더욱더 소외감을 키운다. 국가권력이 집중되는 집단주의 질서 속에서 관계를 맺고 서로의 관심 속에 조직적 분자로 존재하던 북한이탈주민들은 파편화된 개인주의 질서 속에서 원자로 쪼개진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일반적인 남한사회에서 자발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차이, 편견, 무시, 차별, 소외, 배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친구나 가족들과 단절되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울증을 겪거나 외로움을 호소하고 기존 북한 학력이나 지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적 차이나 언어적 차이로 인한 제도적·문화적 단절 또한 경험하고 있었다.¹¹³⁾

그러나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북에서의 가족 관계가 남한에 와서 이어지는 사례자도 있었고, 북에 남은 잔여가족과의 전화 통화나 송금을 통해 연결되고 있다. 함경북도 회령시와 같이 집단적 탈북이 강행된 지역에서 온 북한이탈주민들은 학교동창이나 마을사람, 지인들과 관계가 이어지기도 한다. 북에서의 사회적 성취가 남한에서 그대로 이어져 정착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거나, 해외생활경험의 탄력으로 경쟁 질서에 빠르게 편입하는 사례자도 있었다.

3. 가족의 다원화

가족은 개인의 사적생활영역이면서도 국가와 사회, 개인을 연결되는 지점이므로 가족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가족원들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⁴⁾

북한에서 가족은 그 형성과 자녀양육, 부모부양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차

112) 오원환, 2011,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53.

113) 염유식외,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사회학』, 제45집, 2호, p110.

114) 윤인진, 2009, 『북한이주민-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80집, 집문당, p187.

원을 넘어 국가통치이념을 실현을 위한 위업에 종속된 국가주의 가족으로 가족단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통제되어 왔다. 남한의 가족은 국가와 수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나를 중심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부와 안락, 생존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가족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족이란 유일하게 의지하고 안정적으로 깃들 수 있는 요람으로 남한정착과 더불어 국가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가족으로 변화 된다.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과 중국, 남한이라는 3개국을 거치며 가족의 해체·재구성 경험에 따른 상흔과 구조적 배경에 따른 초국적 가족형태를 띠고 있다.¹¹⁵⁾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부부와 자녀, 형제간이 3국이나 남북으로 흩어져 있으며 비합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자녀를 데려온 경우는 아이와 아빠 간에 만남을 마련하거나, 데려오지 못한 경우는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명목상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그 자녀들로 하여 가족재구성의 해체를 경험하거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단신탈북이나, 가족동반탈북이나 하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다. 가족이 함께 온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정신, 심리상태에서 남한생활에 정착할 수 있다. 가족해체와 재구성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상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에 대한 향수와 죄책감,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족을 떠난 기억은 가족에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¹¹⁶⁾ 북에 있는 가족이 탈북자 가족이라 낙인찍히고 입을 피해,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북한권력의 영향이 가족과 연결되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의 배경이나 원인, 동기가 가족에게 있으며 그들이 경험한 고통의 상당 부분이 가족과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¹⁷⁾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가족들과 비법적으로 연결되어 해마다 송금해주는 것으로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취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인 중 하나이다. 한편 북한의 가족들

115) 이화진, 2010,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 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탈북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6) 이순형외, 2009, 『탈북민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130.

117) 위와 같은 책, p131.

에 대한 책임감은 돈을 더 열심히 벌려는 노력과 역할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잔류가족을 데려오는 연쇄탈북이 높아지면서 가족의 해체로부터 재결합을 이루기도 한다.

6. 25전쟁 시기 월남한 아버지를 찾아 남한에 온 딸의 경우엔 자녀들과의 또 다른 생이별로 이어지면서 수십 년 만에 이룬 아버지와 만남은 재산을 둘러싼 이복자녀들 간의 갈등으로 관계의 단절이라는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한다. 북에 남은 자녀들은 남으로 떠나간 어머니가 수년세월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애태웠던 이산의 아픔과 고통을 반복해야 했다.

1) 정착과 동화의 지름길: 결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 취업과 결혼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북한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조종되던 결혼과 달리 남한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아니므로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다. 안정적 가족기반 형성을 위한 것보다 정서적 의지, 생존의 전략화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하나원을 퇴소하고 나오면 북한이탈주민 남성은 취업, 여성들인 경우 대체로 결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하려고 한다.

(1) 북한이탈주민 남성 결혼

안정적 직업과 토대, 능력을 갖춘 남성을 선호하는 남한여성들과 결혼한 북한이탈주민 남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남한여성과 사는 경우는 “귀순용사”로 불리던 70~90년대 초반에 온 사람들이거나, 능력이 뛰어나 남한사람 이상으로 돈을 잘 버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북한이탈주민 남성은 능력자라는 주위시선과 아내들은 남편이 북한사람이라는데 대해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여성에 비해 일자리도 얻기 힘든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은 경제적 취약, 안정된 직업의 부재, 성의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 때문에 결혼영역에서도 소외되어 심리·정

신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남성가운데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10%에 미치지 못하며 탈북자 동지회 남성회원의 70%는 독신으로 살고 있으며 서로 이질화 된 가치관 등으로 인해 탈북자끼리의 혼인을 가장 선호한다.¹¹⁸⁾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남성보다 남한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편인데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던 의존적 및 수동적 존재로부터 자기중심의 능동적 존재로 발전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 남성들은 소외감을 느낀다.

남성들은 대부분 여성들에 대해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결혼생활, 등의 이유로 성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여성들이 중국에선 중국남자 만나고, 북한남편들이 후에 또 와도 같이 살지 못하고, 북한부부가 같이 살지 못하고 갈라지는 걸 보니 생각이 많아요. 남자들이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에 익숙했고 항상 자기가 우위라고 생각하니까 여자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지 않나? 여자들이 자식, 남편까지 버리고 가는 걸 보니 너무하다. (성남씨)

또한 주제파악 못하고, 드라마를 현실로 착각하는 비현실적이라는 등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처럼 남성사례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대해 순결을 잃어버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자기 노력을 안 하고 쉽게 성을 이용하여 살려고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철남씨는 한국에 온지 5년이 되었다. 평양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처갓집이 아내가 오면 반역자 집으로 몰리기 때문에 아내는 못 오지만 아들을 데려오려고 노력했으나 국경경비 강화로 탈북이 어려워지며 포기하고 있었다. 결혼정보회사보다는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팅을 받는데 B형의 여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북한의 아내가 B형이고 B형은 여자답고 따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어조에는 북에 있는 아내에 대한 향수가 짙게 깔려있었다.

연구자: 남한, 북한여자 둘 중에 어느 여자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118) 조용관, 2010, “탈북자의 효과적인 교회정착지원 메뉴얼 북한선교대회교재”, pp36~42.

북한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북한사람이기 때문에…….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살고 싶어요. 선을 봐서 남한여자들 몇 번 만나보았는데 오히려 여자들이 먼저 전화해요. 몇 번 만나보면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 질려버렸어요. 무슨 여자가 그렇게 남자보다 더 술을 먹나? 술 많이 먹으면 가정생활을 못해요. 너무 개방적 이에요. (철남씨)

철남씨는 보수적이고 순종적인 북한여자와는 달리 개방적이고 당당한 남한여자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여자를 잘 대해주고 맞춰주고 쇼핑가면 가방도 들어주고,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적응할 수 없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은 북에서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버려야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철남씨는 결혼과 정착은 별개의 문제로 결혼을 안 해도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정착을 잘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가족적 유대결핍과 정서의 불안정을 사회적 성공으로 대체하려는 믿음과 위안이 엮여 있었다.

(2) 북한이탈주민 여성 결혼

여성은 남성과 달리 굳이 취업을 하지 않고도 결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기대감, 남자에게 의지하여 지금까지의 정신, 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향유하려는 보상심리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한국,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한족남성이라는 초국적 범위에서 결혼대상자를 선택하게 된다. 조선족, 한족남성들과 사는 경우는 주로 중국에서 결혼하여 살던 남편이거나 혹은 그들과 연결된 조선족들이 한국국적을 얻기 위하여 접근하는 경우, 또는 북한남자, 남한남자다 거부하는 경우이다. 숙이씨는 북한남자는 폭력적이고, 남한남성은 겉과 속이 다르므로 속이 깊고 여자를 잘 해주는 중국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한다.

여름캠프 가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여자들이 북한남자는 싸가지 없고 자기만 우대하고 여자를 천시하고 맘 없대나. 여자들 말이 남한 사람한테 시

집가야 하는데 제대로 안 나타나서 못 간다나. 남한남자들이 여자를 잘해주고 여자에게 복종한다. 북한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여기 와서 우대 받으면서 살겠다는 거야. 남한남자들이 제가 번 돈 북한에 보내는 거 누가 좋아해? 돈 많은 남자들이 우리하고 살겠대? (숙이씨)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북한에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지배와 억압 밑에서 짓눌려 살아오던 기억으로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반면 남한남성과 결혼을 여자를 잘 대해주는 온화한 남한남성의 이미지, 경제·생활도대를 보고 동화, 정착의 지름길로 생각한다. 남한의 농촌이나 취약계층 남성들은 국내에서 결혼대상자 선택이 어려워 국제결혼을 하는 편인데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은 한 민족으로 언어소통도 되고, 무연고, 무기반이 장점으로 되거나, 혹은 영악스런 남한여성들에게 질려 순종적인 북한여성을 택하고자 하는 도시남성들도 있다.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에 따르면 2012년 1월 이후 북한이탈주민 여성과의 교제를 신청한 비율은 320건 중 208건으로 65%가 되는데 모든 책임을 남자에게 묻는 남한여자와 달리, 남자의 의견을 중시하고 남자 스스로 책임을 느끼게 하는 스타일로 남한남성들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은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남한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한여성에 비해 지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북한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능력과 경제력이 있는 남한남성들의 결혼기준에 거리가 있다. 때문에 북한여성들은 무직업자, 채무자, 연령차가 높은 남한남성들과 만날 가능성이 높고 자기 기준에 맞는 결혼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경이씨는 하나원을 나온 후 5개월 만에 노래방과 장애인협회를 운영한다는 남자를 만났다. 후에 알고 보니 그가 만난 남자는 집도 없는 사람이었고 장애인협회 회장도 아닌 명함만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경이씨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월세집을 마련하고 정착지원금으로 남자의 빚을 다 갚아주고 신용불량자 딱지를 해소하였다.

남자 눈 잘 못봐. 어느 남한여자가 오겠냐? 그걸 잘 아니까 나를 택했

지. 내가 마음이 곱고, 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여자가 돼서 택했다.
(경이씨)

경이씨는 남자가 회원이 한명도 없는 명목상 회장이고 신용불량자임을 뒤늦게 알았지만 한번 정을 준 남자이고, 눈을 잘 못 보는 남자에 대한 동정심과 자기희생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연씨는 반듯한 외모에 결혼상대자들이 많이 나타났으나 무시와 경멸로 상처를 받기도 한다.

내가 결혼하려고 하니 북한에서 왔다고 상대가 말은 안하지만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고,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느끼곤 하지. 이방인이라는 건 있어. (소연씨)

옥이씨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와서 대구에 집을 받고 중국에 있는 시집에 한 달에 돈 20만원씩 아이 양육비를 송금해주는 상황에서 남자를 소개받았다. 정에 목말랐던 그는 중국에 있는 아들을 데려와 함께 사는 조건, 남자는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을 내걸었다. 옥이씨의 고향은 함경남도 함주이다. 남자의 어머니 고향인 함흥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동질감을 느꼈고 서로의 합의하에 동거생활을 하게 된다.

2) 가변적 부부관계

남한에서 가정을 꾸린 사례자들의 부부관계는 법적혼인관계가 아닌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동거관계이다. 북한에 남은 남편이나 아내가 자식들과 함께 남아있는 사례자들인 경우 통일 후 현재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고 본래의 부부관계를 재형성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법적혼인신고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생활을 통해 낳은 자녀나, 시집식구와의 유대관계는 불안정적이며 든든한 가족기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같은 북한사람끼리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경우는 서로 어려움을 잘 헤아리고 북에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 지원에서도 합심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

한부부는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와 성 고정관념, 부부간 지위 변화에 의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남편이 가부장적 태도를 버리고 남한생활풍습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이면서 양호한 평등관계로 재구성된다. 북한에서 직장 일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의 임무였다면 남한에서 남편의 역할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경제활동은 물론, 가사분담도 함께 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북한부부에 비해서 남한남자와 사는 사례자들에게서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의 경험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남한남성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례자들은 사회 하위계층의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처음 품었던 기대와는 달리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고 폭행과 멸시를 당하는 불평등관계를 경험했다. 자기노력과 희생으로 남자와의 불안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남자의 폭행을 감수하는 이유는 국가가부장제와 가족가부장제, 경제활동의 2중3중 역할이 곧 여성의 혁명적 의무이며 현모양처의 풍모로 간주되던 북한에서 굳어진 인성과 학습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북한부부

석남씨는 함께 휴전선을 넘은 여성과 결혼하였다. 그 여성은 북한에서 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다. 그의 아내는 가족을 버리고 석남씨를 선택한데 대해, 현재의 생활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북에 있을 땐 역수로 가부장적이고, 지금은 집 사람 뭐라 하면 가만있고, 죽었수다 있죠. 여기 와서 나한테 뒤통 맞았죠. 그때 때려놓고 혼썰났죠. 지금은 머슴으로 살죠. 당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안하면 안한다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일 해주니까 남한남자 다 됐지. 경제권은 두 가지, 사업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생활비만 내가 넣어주고, 서로가 따로따로 가지고 있지. (석남씨)

석남씨는 경제적 가치를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으며, 물질적 성공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물질만능주의, 자본주의실리를 확실하게 터득

하고 있었다.

돈이죠. 남들보다 주눅이 들지 않게 떳떳하게 살게 하는 거죠. 차 사주고 싶으면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싶으면 집 사주고, 여행가고 싶으면 여행가고, 남한이 살기 더 좋아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버지 보다 낫죠. 첫째 자유, 놀러가고프면 놀러가고, 먹고프면 먹고, 돈도 내 맘대로 쓰니까, 북에선 아무리 가부장적 권세를 누렸다고 해도 손에 쥘건 게뽕도 없으면서 호통만 쳐서 뭐해, 여기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 아무리 집에서 머슴질해도 그게 낫지. (석남씨)

성남씨는 북에 남은 아내를 남한에 데려오려고 노력했지만 포기하고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살고 있다.

지금도 북에 있는 아내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죠. 한번 성질내다가 밥상 걷어찼는데 모퉁이에 맞아가지고 피가 나왔는데 그 모습 떠오를 때마다 맘이 찢어질 것 같아요. 내가 데리고 왔으면 이런데 와서 잘 해주자고 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사람 수차례 보냈어요. 오겠다고 짐을 꾸렸다가는 무서워서 포기하고, 다섯 번을 보냈는데 마지막엔 혜산에서 청진까지 왔다가 도로 갔어요. 집안친척들이 다 보워부, 보안소 있고 장인어른도 큰 간부니까 자기 때문에 온 가문이 피해 입을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에서 결혼생활이 좋았다면 지금 아내한테 미안하고, 여기 생활이 만족스럽다면 북에 있는 아내생각에 가슴 아프고, 여기서 행복하지 않다면 살수도 없는 거고. 좀 그래요. (성남씨)

성남씨는 현재 3살 난 아들이 있는데 풍요로움 속에 가정적 행복과 아빠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에도 북에 두고 온 딸애와 아내 생각에 자식과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죄책감, 그 기억의 반쪽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재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송남씨는 북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자는 나가서 돈만 벌면 되고 아내는 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돈에 신경 쓰는 남자는 체제하며 남한남자 일부가 여자한테 얻어맞고 사는 건 제 구실을 못해서 그렇다고 비난하

는 송남씨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건 봉건적이죠.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선택권은 다 여자들한테 있는데, 여성의 권리가 너무 높은 세상이니깐, 우리 아내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빨리 따라가는 것도 옳지만 서서히 진화하면서 사는 거지, 우리 아내가 남한여자 흉내를 내려고 하죠. (송남씨)

그는 아내의 변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어느 날 꿰진 바지를 입고 있는 아내의 옷차림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40이 넘는 여자가 그런 꼴을 하고 다닌다고 욕을 한다. 남한여자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욕체를 드러내놓고 다니는데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며 아내가 옷차림이 난잡하면 이혼을 하겠노라고 한다. 다른 사례자들도 남한여성들이 정숙하지 못하고 하의실종 되어 다닌다는 매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송남씨는 남한에 와서 북한의 생활풍습을 바꿔야 한다는데 대해 타자에 의한 일방적 강요로 생각하면서도 살아가려면 변해야 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었다.

북한에서 생활풍습을 다 버리고 남한식대로 고치라는 건 어느 교원이 학생보고 너 선생이 이렇게 배워줬으니깐 그대로 하라 이런 거죠. 북한에서 굳어져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리긴 힘들죠. 적응할래니까 하긴 해야겠죠. 노력하면 고쳐질 거고. (송남씨)

숙이씨는 북한에서 함께 탈북 하여온 남자와 현재 동거해 살고 있었다. 북에선 가사에 무관심했던 동거남은 현재 가사노동을 잘 도와주고 칼날 같은 성격도 누그러져 서로가 잘 맞춰 살고 있었다. 숙이씨는 북한에서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현재 주도권은 동거남에게 있었다. 동거남은 북에서부터 남편에 비해 경제활동과 능력이 탁월하여 숙이씨가 여러모로 도움을 받던 관계였다.

숙이씨는 남자가 주방 일까지 하면 제제해 보인다고 밤 10시 넘어 퇴근해서 저녁밥상을 차려주는 것을 보면 남편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부장제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TV나 주위를 통해 보는 남한여성들이 남자를 시켜먹고 맘대로 다루는 것이 제일 맘에 안 든다고 한다. 남편위주의

생활을 중시하는 북한의 가정풍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2) 남한남성과 사는 사례

남남북녀 가정은 일반적으로 혼기를 놓치거나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남자와 구성되는 편이다. 북한에서 가부장제에 억눌려 있던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이 평등한 성역할을 기대하는 반면 남한남성들은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와 갈등하게 된다.¹¹⁹⁾ 이들은 남편 모시기를 잘해야 한다고 하거나, 시집에 들어가서 시집식구들 공대하는 걸 보면서 가부장적인 건 북한이나 남한이나 꼭 같다고 느낀다.

북한에서부터 남편의 폭행에 시달려 왔던 경이씨는 남한남자와 동거하는 현재까지도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남편과 똑같은 남자를 만난 것을 팔자 탓으로 여긴다. 50을 넘긴 나이지만 동거남은 사람들 앞에서도 “야. 너 저 애하고 청소 좀 해라.”는 식의 하대말을 한다. 이름이 없이 “야”로 불리는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고 반려자가 아닌 보잘 것 없는 하녀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남자에 대한 한이 맺혀 있었다.

이 남자 나를 북한이탈주민행사에도 자주 초청되고 탈북자와 많이 상대하는 사람인데도 우릴 너무 몰라. 내가 북에서 먹고는 살 수 있었다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널 욕한다. 먹고 사는데 왜 왔냐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다 먹을 것이 없고 죄 지은 사람들이 오는 걸로 인식하고 있어.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 사냐? 자유가 있어야 하잖아. (경이씨)

경이씨 동거남에게 북한이탈주민이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고 경이씨도 그중 한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무시가 경이씨와의 불평등관계를 이루는 주요인이었다.

원래 옛날에 조직폭력배 두목이고 돈을 사취하던 사람이었어. 그렇게 막

119) 이화진, 2010,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 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탈북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67.

돼먹은 사람이야. 술 마시고 차에서 자고, 그러니 어느 여자가 오겠냐? 우리 딸 앞에서도 나를 “야”로 부르고 한두 마디 안팎에 때려. 내가 나이 몇 인데. 이 남자 나에게 한 번도 제대로 호칭한 적이 없다. 우리 딸이 참지 못하고 울면서 대들더라. 근데 어쩔 풍월(사기)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집에 들어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하는 건 북한남편하고 딱 같은지 모르겠어. 내가 벌어서 뭘 사놓으면 다 사무실에 내가군 해. 나와 아무 토론도 없어. 난 막판인줄 알았지. (경이씨)

경이씨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안하무인격의 남자이지만 그 사람 덕에 다단계 사업도 배우고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웠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북한에서 남편의 폭력을 남자의 권리행사로 받아들이던 숙명적 태도, 남편위주의 생활을 재현하고 있었다. 경이씨는 컴퓨터나 전자기기에 능하지 못해 동거남에게 자주 물어보면 ‘모르는 게 왜 그렇게 많냐’는 짜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동거남의 무시를 더 불러낸 지도 모른다. 북에 남은 경이씨 남편은 그의 기억에서 잊혀져가고 있었다.

북한에서 은정에비만 술 안 먹고 제대로 살았으면 우린 안헤어지는건데. 지금 살아있다는데 우리 은정이 절대로 연락 안한다. 그 사람 다른 여자 못 얻는다. 그런 수준에 누가 시집오겠냐? (경이씨)

술과 폭행으로 아내와 딸을 괴롭히던 북한 남편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 남편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경이씨는 남한에 데려왔을 거라 한다.

옥이씨는 5년간 살면서 시집식구들 외에는 친척들도 자신이 탈북자임을 모른다고 하였다. 동거남은 주변사람들에게 절대로 북한사람이라는 말 하지 말고 중국교포라고 하라고 강요하였다. 동거남은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으로 옥이씨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TV로 중국이 나오면 ‘너네 큰 나라가 나온다. 북한 거지들이 나오면 진짜 북한이 저러냐? 난 못 믿겠다. 우린 개 사료까지 넘쳐나는데 이해 안된다. 나라를 배반하고 온 놈, 김일성 밑에서 그냥 살지’ 그런 문자를 직장

나가서도 때 없이 보내는데 내가 상처 받는 것도 몰라요. 전라도 남잔데
고졸도 중퇴한 사람이어서 말이 엄청 쌍투러워요. 그냥 나를 무시하는 거
죠. 자기보다 못한 나라에서 왔다고. 아들, 딸 낳고 중국에 있는 큰애를 데
려왔는데 불화가 더 심해지고, ‘좃같은 년’, ‘개 같은 년’, ‘병신 같은 년’, 이
런 언어폭력에 시달렸어요. 내가 나갈려도 집이 없으니. (옥이씨)

북한이탈주민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시키려 하지 않는데,
옥이씨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자의 강요에 의해 신분이 은폐된 경우
이다. 중국 등 제3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오던
연장선상에서 남한에서도 타자화된 시선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숨
기거나 부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¹²⁰⁾ 위 사례들은 단순히 ‘탈북
자’라는 이미지는 먹는 것보다 자유가 더 귀중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난
함, 굶주림 등 경제적 이유로만 생각하는 남한사람들의 편견, 그런 편견
속에 합류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는 남자의 자존심과 타인의
식, 북한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무시와 멸시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옥이씨는 시댁에서 힘든 일은 모두 도맡아 했지만 누구도 그를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집식구들에게도 무시당한다.

난 우리 엄마처럼 생각하고 시엄마를 잘 모시려고 했어요. 우리 엄마
못해준 생각하고 일주일 한 번씩 애를 업고 인천 요양원에 시엄마 모시
고 가서 검진하고 정성을 다 했어요. 치매 걸려 돌아가실 때까지 애기 업
고 병간호 했어요. 우리 시엄마가 방광이 고장 나서 오줌 제대로 못 봤는
데 냄새나도 참고 매일 씻겨주고 대변 못 보면 장갑 끼고 뒤 파내주고,
남편은 난 못하겠다, 우리 시누이들도 내 엄마라도 그렇게 못한다. 나나
그렇게 했다. 그러다 작은애 임신하고 막달 되면서 너무 힘들어서 큰 시
형네 집에 가서 석 달 만에 돌아갔어요. 난 후회는 안 해요. 내가 할 도
리를 했으니깐요. 속상하면 누구에게 말 못하고 시누이게 말하면 ‘좋은 일
있을 땐 말 안하고 싸움만 하면 말한다고, 새끼들 낳고 참고 살아야지 어
떻게 하나!’ 이런다. (옥이씨)

120) 오원환, 2011,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216.

북한출신 며느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라는 두 가지 이유, 적에 대한 승리로 얻어지는 전리품 같은 존재이므로 무시해도 된다는 시각,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며느리, 여성이라는 다중의 억압을 받게 된다.¹²¹⁾

중국에서부터 조선족남성과 결혼하여 살면서 폭행에 시달려 온 옥이씨는 남한남성과의 5년 동거기간 무지막지한 언어·신체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어느 날 친구네 집에 갔다고 저녁 늦게 온 것이 큰 폭행의 발단이 되었다. 외출한 그가 딸애를 데리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서자 갑자기 동거남이 달려들어 폭행하여 치아가 부러지고 얼굴은 자식들이 ‘엄마 사람 아니고 괴물이다’ 할 정도로 형체가 없었다. 이를 계기로 옥이씨는 동거남과 관계를 정리한다.

한 달에 50만원 생활비로 타서 월세, 관리비 다 내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연금 들고 저축하고, 옷도 중고매대에서 헐값으로 사 입고 제가 번 돈 1전도 안 내놔요. 애들 핸드폰, 남편 핸드폰 비까지 내가 다 물어요. 자기 짐가지고 나가면서 쌀 두 포대 있던걸, 교회에서 감자 한 박스 보내준 것까지, 심지어 고추장, 기름까지 다 가지고 나갔어요. (옥이씨)

집 나갈 때 남자의 행태는 자식에 대한 책임감은 물론 초보적인 부성애마저도 없는 사람이었다. 여성의 결혼생활의 태도는 주로 남성에게 의존하는 이기적 의존단계, 배우자의 태도와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이 참고 희생하는 희생적 단계, 지금껏 참고 지내던 모든 희생을 거부하고 자신의 존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실천에 옮기는 단계는 주체적 자아성찰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¹²²⁾

도저히 못 참겠다, 나 따로 살 집을 내 이름으로 구해야겠다. 서울로 올라와서 방학동에 전세를 살다가, 2008년 2월 SH공사에서 집이 당첨됐어요. (옥이씨)

121) 이화진, 2010,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 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탈북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67.

122) 위와 같은 자료, p185.

5년간 아이 둘을 낳고 동거남을 집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관계를 정리하였다. 법적인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아이들 양육비도 남자에게서 받지 못하고 동거남 역시 아이 못 키우겠으면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우선적인 주거지원정책이 옥이씨가 남편의 폭력과 시집식구들의 천대와 멸시에서 벗어나 독립하는데 결정적 도움이 되었다.

남한남성과 사는 경이씨와 옥이씨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남편과 가정을 위함으로 받아들이며 북한에서부터 학습되고 내면화된 전통적인 여성의 덕목, 현모양처의 이상화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경이씨와 옥이씨는 동거남과 불평등한 예측관계로, 가정내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멸시와 냉대, 차별은 분단의 구조 속에서 산생된 적대감, 우월감, 업신여김과 약자와 소수자의 배제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3) 애정표현

북한에서 성문화는 폐쇄영역의 한 부분으로 성관련 지식은 보급효과가 매우 적으며 진정한 성적쾌락이나 만족을 느껴본 사람은 드물다. 성에 대해 무지했던 사례자들은 남한에서 개방적인 성 문화에 접하면서 부부간 애정표현이 조금 변화되고 있었다. 성관계에서 수동적이었던 여성들이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에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에 있을 땐 영양도 팔리고, 난 또 오기 전까지 성민이 아버지와 눈 맞아 돌아갔으니까. 북에서보다 잘 먹으니까 지금은 내가 우리 성민이 아버지보다 더 적극적이야. 관계야 맘이 맞아야 서로가 좋으니까, (숙이씨)

송남씨는 애정표현에서도 보수적 입장이 완고한 편이었다. 사회생활에 선 관계형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변화시키지만 자신의 신체리듬까지 억지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

경이씨와 옥이씨는 평상시 남자의 폭행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과 상대에 대한 성적매력과 욕구가 저하되어 애정표현을 못 느끼고 살았다.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여자들이 성생활에서 남자보다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부부성관계는 남자의 일방적 행위로 끝나버리고 성적만족을 별로 느껴보지 못하다가 남한의 성문화를 접하면서 충격을 받는다. 부끄럽고 은밀한 섹스영역에서 참으로 당당한 남한여성들과 비교해 본다. 여성들은 수동적 성행위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동적 행위로 발전하는 반면 남자들은 성문화에 대해 보수적 태도를 보였다.

3) 경계선 안팎에 흩어진 자녀들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자녀와 중국에서 낳은 중국자녀로 나뉜다. 탈북과정에서 헤어져 행방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녀가 북한, 중국, 남한에 흩어져 있어 방문, 전화통화 및 송금을 통해 부모는 경계를 넘은 양육·돌봄 역할을 맡고 있다. 자녀문제로 정착이 지연되거나 이민을 가기도 한다. 북에 두고 온 자식생각에 심리적 고통을 겪고, 특히 중국에서 데려온 자녀인 경우 동거남의 무차별적인 천대로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관계에서 특징은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부재이다. 북한에서는 국가 앞에 자녀의 교육교양자적 책임과 역할을 맡았던 부모가 남한에서 초학도 위치에 놓인다. 전혀 다른 사회 환경의 적응을 위해 부모자식 모두 배워야 하는 처지에서 부모의 권위가 약화되게 된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의 적응이 더 빠르다.

될수록 북한출신임을 숨기려고 하거나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상처를 받거나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 북한자녀

석남씨는 남한에서 아들 둘을 낳았다. 북한에도 아들과 딸이 있다. 북에 두고 온 자식들 걱정에 석남씨는 드문히 술을 마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호위사령부에 근무하던 석남씨 아버지는 아들의 월남으로 직위해제와 함께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 자신 때문에 온 가족이 희생

양이 되고, 피해만을 입힌 아버지, 공포와 불안의 대상으로, 완전히 잊을 수도, 의절할 수도 없는 부자관계를 재확립하고 수용해야 하는 복잡하고 괴로운 문제를 안고 산다.¹²³⁾

성남씨는 3년 전 북한에서 부모님을 탈북 시켜 남한에서 함께 살면서 매달 부모님 용돈을 챙겨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효자노릇을 잘한다. 북에서 제일 좋았던 기억은 아내가 딸을 낳았을 때라고 말한다. 딸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은 현재 성남씨의 정신영역을 구속하는 주요인이다.

북한에 있는 자녀들은 기억 속에서 과거와 현재사이를 오가며 새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리는데 지속적으로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단민족의 비애를 분단가족의 현실에서 뼈저리게 경험하는 이들에게 통일은 종교적 갈구이며 재결합과 재상봉은 민족통일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데서 자식을 보고 싶은 그들의 욕망은 민족통일의 갈구와 일치된 상태에 있으며 분단권력의 힘을 뛰어넘은 인간적 사랑의 표현이다.¹²⁴⁾

숙이씨 사실혼 관계는 친분관계로 얹혀진, 재혼가족과는 조금 다른 양상의 공동체적 성격을 띤다고 말할 수 있다. 숙이씨는 탈북 당시 아들은 군대에 나가 있었으므로 딸만 데리고 왔다. 딸은 하나원에서 받은 국민임대주택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명절에도 놀러오지 않고 각자 서로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한 마을에서 이웃으로 가까이 지내던 동거남과 그의 아들과 한 식구가 되어 살고 있는 엄마의 공간에 끼고 싶지 않은 불편함 때문일 것이다. 숙이씨는 북에서부터 동거남과 그의 자식들과 가까이 지내온 덕에 동거남이 데리고 온 작은 아들을 아무 거리감 없이 잘 대해주고 있다. 동거남 아들 역시 숙이씨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지만 북한에서부터 잘 알던 이웃집 아줌마여서 허물없이 잘 어울리고 있다. 그 아들은 회사에 취직하여 3년간 일하면서 받은 취업 장려금과 모은 월급으로 산 5t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아버지보다 돈을 더 벌기도 한다. 그는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전화연결을 통해 송금을 해주고, 어머니를 데려오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채널 A의 이만갑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숙이씨가 아들생각에 눈물 흘리면 동거남이 위로해주곤 한다. 북에 남은 아들은 동거남 누이 집에 얹혀

123) 이효재, 1985,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p290.

124) 위와 같은 책, p290.

사는데, 브로커를 통하여 돈을 송금해주면서 자식의 돌봄 역할을 하고 있다. 숙이씨는 아들을 버리고 간 비정한 엄마인 동시에 북한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담당자였다. 엄마가 보내는 돈으로 도시락도 잘 싸가고 옷도 잘 입고 다녀 주변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숙이씨 아들은 반역자 자식이이면서 남한경제의 수혜자였다. 숙이씨 동거남은 일본의 어느 한 언론사에서 1억의 포상금을 걸고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북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응하지 않았다. 북에 가족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치적 언동을 조심하고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북한에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재미에 더 일하고 싶어도 북한에 송금하고 나면 통장이 텅텅 비어 돈 벌 의욕이 저하된다. 못 먹고 못 살더라도 북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나눠 써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남한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식량난에 의한 생명위기를 면하기 위해 가족은 결집되어 대응해야 했고, 혈육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식은 북한이탈주민들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북한의 가족은 남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빈곤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비록 북한을 탈출하였지만 그 속에 현존하고 있는 가족들 때문에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며 그 구조 속에 얽매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형태는 주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지 못한 국가의 무책임성, 그로부터 방황하며 버려지고 소외되고, 천륜을 거스르고 상처와 고통을 구조화 한 분단권력에 의해 변형된 것이다.

(2) 국군포로 및 월북자 · 월남자 자녀

국군포로, 월북자, 월남자 자녀들은 선친들의 뿌리를 찾아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탈북자’가 아닌 ‘남한사람’으로 위치 지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북한에서 살다 온 그들을 남한사람들은 자신들과 동일시하려 하지 않는다. 분단의 1차적 희생자들로 분단의 상흔은 그 자녀들에게도 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소연씨는 국군포로였던 아버지의 본적지를 찾아 남한에 입국한 사례였다. 중국에서 딸과 함께 북송되어 나가 각기 노동단련대에 끌려가 생활하던

중 도망친 딸의 행방을 아직까지도 모른다. 딸에 대한 그리움과 생이별의 아픔으로 소연씨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들은 같은 북한이탈주민여성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다. 아들, 며느리 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을 하지 못해 다단계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내가 남한에 와 보니 우리 아버지 유해를 팔까지 잃으면서 모시고 왔는데, 살아서 온 사람은 군에 갔을 때부터 연금이 다 나오고 보상을 다 해줬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사망했다구 없어. 정부에 고마운 건 현충원에 모셔는 주었지만 서운한건, 이 나라를 지키다가 그렇게 되셨는데, 명예나 보상도 없는 거야. 우리 국군포로 가족들 보상은 못해줘도 자식들 일자리만이라도 얻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반대로 북한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은 그 자식들까지 대학공부, 직업까지 다 해주잖아. 내 친구 하나가 남북어부한테 시집갔어. 그걸 잘 알았으면 좀 더 그 남편 주소라도 알아올 걸, 그 애는 형제들 다 장령이고, 토대가 좋고, 당에서 결혼식 차려주고, 오장육기도 해주고. 난 부럽더라, 같은 남조선 출신인데 우린 포로라고 양측에서 설움을 당하니 너무 원망스럽다.

어쩌면 우리 아버지는 남과 북에서 버려진 사람이야. 국군포로 가족들이 시위하는데 우리 아버지 보상을 받아야 겠다고 했어. (소연씨)

2007년 정부는 국군포로 국내 송환과 그 후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포로법’을 제정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다양한 특례 및 지원 사항이 법적, 제도적 근거로 명시되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접섭함을 드러내는 소연씨 사례로 보아 국군포로 지원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은 노동당에 유자녀과(11과)를 내오고 항일·반일투쟁, 6. 25전쟁, 조국통일(남조선혁명)을 위해 위훈을 세운 유공자와 자녀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¹²⁵⁾는 명시 하에 대학 입학, 직장취직, 정치적 보상과 물질적 혜택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국가의 핵심골간으로 위치 짓는다.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의

125) 북한헌법, 1998, 제76조.

북한귀환은 북한 유공자 정책의 우월성의 반증으로 되었다. 이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남과 북 정부의 책임성과 태도를 적나라하게 비교된 계기였으며, 남한정부는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들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남한은 국민총생산액에 비해 국가보훈예산은 매우 낮은 예산이며 상당수가 ‘국가와 사회가 적절한 대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¹²⁶⁾ 일제식민지를 극복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6. 25전쟁을 통한 국가 지키기를 비롯한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남과 북의 유공자들은 복잡한 정체성과 체제의 상징성을 띠고 있다.

명남씨는 남한에 사촌형들과 친척들이 있다. 하나원 퇴소 후 담당형사가 친척을 찾아 만남을 주선해주었다. 백부님들은 돌아가시고 사촌형들만 남아있는데 그들은 말로만 들어왔던 삼촌의 자식을 생전 처음 보게 되는 순간 반가움보다 경계심과 불안이 앞섰다.

만나보니까 삼촌이 6. 25때 인민군에 끌려가서 죽었다 이렇게 단정 짓고 끝내고 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라 하는데도 마치나 내가 돈이나 받아내자고 그러는 감이 나서 신청을 안하죠. 유전자 검사하면 뉘텐데,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아버지 형네 자식 세 명이 다 왔던데 거기서 한 사람이 진짜 아버지하고 모색이 비슷해요. 난 서먹서먹하지만 나름 반갑던데, 그분들은 나를 못미더워하고 친근감이 안보이니까 괜히 만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남씨)

명남씨는 사촌형들에게 혈육의 정을 느끼지만 자신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혹시 모를 해를 끼칠 수 있는 불안한 존재로 여겨진 그들은 연락처도 주고받음이 없이 명남씨와 헤어졌다.

송남씨는 자신이 탈북한 이유가 자식 때문이라 한다. 북한에서 반동자식으로 억눌려 살아온 것이 평생의 한이 되어 자식들만이라도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는 것이 숙원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송남씨의 딸은 남한에 온지 얼마 안되었지만 공부를 잘하여 학급 부반장으로 선출되었다. 학부형들이 찾아와 탈북자 자녀를 시킨다고 반발하였다. 담임교사는

126) 강석승, 2010, “‘국가보훈’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및 제도 비교”,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6호, p210.

학생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 일축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송남씨 딸애에게 ‘탈북자’라는 낙인과 상처가 남게 되었다.

송남씨 가족은 분단의 비극을 가장 압축적으로 경험한 대표적 사례였다.

우리 엄마는 할아버지가 먼저 데려왔어요. 우리 형네 집에서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해산까지 오면 전화로 확인하고 돈을 준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중국으로 온거죠. 엄만 너무 탄압받고 살아서 완전 무지렁인데 남조선에 가자는 브로커 말에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이젠 돌아가도 처벌받는다는 말에 무서워서 밤에 단둥에서 배타고 남조선에 바로 왔어요. 일단 북한 떠나서 일주일 만에 도착했고, 아버님 만나서 내가 맞나 이러는 과정에 남한 형제들 알게 되고 듣고 있어났죠.

아들 하나에 딸 둘, 아들은 판사, 딸사위는 병원원장, 둘째 사위는 부동산 업자고, 할아버지 재산이 470억이나 되는데 우린 1전 한푼 받은 것 없어요. 할아버지 만나서 밥 사먹으라고 30만원 준거밖에 없어요. 친자 확인하느라고 병원에 양측변호사들 나오고, 일단 딸말로 우리 엄마가 오르고, 그걸 알고 여기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차명으로 돌려놨대요. 처음엔 변호사들이 돈 있으니까 뛰어 들었는데 저쪽 자식들이 다 돌려놓았으니, 그걸로 씹하려면 10년 걸리지. 막강한 권력이 있어서 우린 맞설 수 없어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와 그 의붓엄마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의붓엄마 말이 ‘난 북에 자식 있는지도 모르고 알았으면 저 영감하고 살지도 았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와서 금괴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의붓할마 재산을 밑천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일어섰나봐요. 돈에 대한 주도권은 의붓할마한테 있죠. 우릴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인정되었다고 해도 ‘아바이 보고 도와 달라 길라’ 그래요. 할아버진 어쩔해서라도 뉴질랜드에 있는 호텔을 팔아가지고 주겠다고 팔았는데 권한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꼼짝 못하고 떼우고 이젠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죠.

남남 간에도 기부한다는데, 어떻게 다문 500만원이라도 주면 고맙겠다고 그러는데, 이젠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 만나러 가니까 그 자식들이 어디로 숨겼어요. 경찰서에 가서 대달라니까 경찰서장이 ‘어르신 여긴 민주주의사회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달라요. 가족들 동의 없이 알려주면 우린 자리 내놔야 돼요. 거기서 요구하기 전엔 우리가 알아보면 죄가 돼요.’ 그러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사망하셔도 못 대주나?’, ‘설사 죽었어도 가족

이 거절하면 우리도 알려주지 못한다. 이해해 달라' 그래요.

우리 엄마는 11살 때 헤어진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더 상처 받았죠. 우리 엄마 밑에 남동생이 또 있어요. 외삼촌도 한생을 구박받고 살면서 시궁창 생활했죠. 여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 이젠 할아버지한테 미련 없어요. 자기 할아버지라는 핏줄이 있는데 여기 와서까지도 부모 자식 간에 돈이란 장벽이 막혔는데, '우리가 진짜 할아버지 보고파서 왔나, 돈 땀에 왔지?' 이렇게 그 사람들 나와요. (송남씨)

민주주의 법은 송남씨네 가족과 할아버지를 갈라놓은 이복형제들의 비인륜적 행위를 정당화 해주고 있었다. 부인과 두 자식을 남겨둔 채 전쟁 시기 월남한 송남씨 외할아버지는 남한에서 새 가정을 이루고 1남 2녀를 두고 살았다. 몇 백 억 자산을 소유한 사업가로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면서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현재의 부인과 자식에게 내색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것을 보고 브로커를 통해 딸을 데려온다. 속죄의 마음에서 딸을 데려다 지금껏 주지 못한 아빠의 사랑을 주고 싶었지만 송남씨 할아버지는 90이 다 되어 이미 실권이 없는 곤궁에 빠졌고, 원가족과 재가족간의 유산을 놓고 갈등이 확산되었다.

송남씨 어머니는 수십년 만에 아버지와 만남을 이루는 대신 아들과 딸의 또 다른 생이별로 이어졌다. 이복형제들은 아버지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놓음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산분할권문제와 아버지와 이복누나와의 만남을 완전히 차단시켰다. 그 재산을 일구는데 북의 자식이 기여하지 않았다거나, 이복형제들과 나눠가질 수 없다는 이기심, 아버지의 원가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냉정한 심리가 천륜을 외면하게 했을 것이다.

월남한 할아버지 때문에 3대가 안고 살아야 했던 불경의 인장을 벗어버리고자 북한을 탈출했던 송남씨 가족은 남한에서 와서도 그리움과 한에 사무쳤던 할아버지와 또 다른 생이별을 경험하며 월남자 가족에서 탈북자 가족으로, 분단의 비극 속에 영혼과 육체가 병들어 가고 있었다.

최근 법원을 통해 남한에 있는 부모의 재산을 북한에 있는 자식들과 의붓자식들 간의 합의로 나눠 갖는 사례들이 있었다.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남한법원이 북한 주민의 친자확인 소송에서 내린 첫 확정 판결로 1심때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친자확인 소송과 별도로 북한주민과 남한에 있는 이복형제·자매의 유산 상속 분쟁에서 북한주민의 상속분을 일부 인정하는 법원의 조정이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법조계에 논란거리를 던지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북한주민 윤모(61)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01년 황해남도에 거주하는 손모씨 등 3명은 서울에 사는 만형을 통해 ‘2000년 사망한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북한주민이 남한 법원에 낸 최초 소송이다. 당시 손씨 등은 6.25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가 북한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재산 절반을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손씨 등은 이듬해 아버지의 후처, 및 후처 자녀와 재산 분할문제를 합의했다.”¹²⁷⁾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있는 부모와의 친자확인 과 유산상속 등의 문제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들의 재결합과정에 발생하는 가족권 문제, 해방 후 민주개혁을 통해 몰수되어 국유화된 북한의 토지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비롯하여 여러모로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재산소유권과 상속권문제는 분단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다가 북한 이탈주민 3만 명 시대에 들어서 그들과 직접 부대끼는 과정에 통일준비의 현실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분단사회의 모순은 혈연적 인간관계, 분단가족의 문제로 압축된 것이며,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적 요구는 통일을 향한 민족공동체적 의지로 발휘되는 것이다.¹²⁸⁾

127) JTS 자료집, 2013, “北주민, 대법원서 친자확인소송 승소 첫 확정, 南부모들 北주민 유산 상속길 열려”.

128) 이효재, 1985, 『분단시대 사회학』, 한길사, p232.

(3) 중국자녀

옥이씨는 자식보다 남자위주의 생활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아빠의 천대를 방치해둔 결과 중국에서 데려온 큰 아들에게 상처 준 것을 제일 가슴 아파했다.

큰애를 미워해도 너무 미워해요. 중국때눔 새끼 데려다 키운다고, 과자를 사와도 애가 셋인데 달랑 두 봉지, 김밥도 두 개만 사가지고 와요. ‘오빠 과자를 세 봉지 사오면 안 돼?’ 물으면 이것밖에 없어서 못 사왔다고 거짓말 해요. 큰 애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집을 뛰쳐나가서 이틀간 안 들어오고 종종 실종되고 저에 친아빠가 한국에 여권 떼고 들어와 있지만 지금 새 아빠에게 정 붙이고 살라고 내가 못 만나게 했어요. 저애에게 내가 죄를 지었지.

제 새끼들도 별로 예뻐 안 해요. 애들이 곁에 오면 저리 가라고 발로 밀어내고는 따로 자고, 문제는 애들인데 딸애가 정서불안이라는 심리진단 받고 가족 상담까지 요청한 상태인데 난 맨붕이 왔어요. 아무리 돈 없어도 한 달에 피아노 11만원, 태권도 10만원 내고 학원에 보내요. (옥이씨)

큰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난다며 운다. 큰 아들 기억에는 중국에 있을 때 친아버지는 매일 술 마시고 엄마를 때리고 세상에서 자기를 예뻐해 준 사람이라곤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다. 엄마 품으로 돌아왔지만 연이어 태어난 동생들 키우느라 엄마의 관심에서 멀어진 큰 아들은 친자식과 차별하는 의붓아버지의 멸시와 폭력에 시달렸다.

옥이씨는 동거남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큰 아들의 상처와 아픔을 외면한데 대한 반성과 이제부터 어머니로 살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는 앞으로 절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오직 자식들만 잘 키우겠다고 한다.

아빠하고 헤어진 날 얼마나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었으면 ‘엄마 내가 작은 방에서 자면 안 되나요?’ 그러더라. ‘내가 아빠와 헤어진 이유는 너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너는 어때냐?’고 물으니 헤어지기 잘했다가 80%, 20%는 동생들 생각에, ‘아빠가 멀리 갔으니 내가 이제부터 형, 오빠이고 아빠다. 동생들 오빠 말 안 들으면 혼난다’고 했으니 말도 잘 듣는다.

저애가 다 애들 씻겨주고 놀아주고. 큰애는 한국에 있는 아빠와 연락은

안 해도 삼촌하곤 해요. 아빠 싫어해요. 매일 술 마시는 것만 봐서. 언제 전화 와서 비자 끝나서 간다고 마지막으로 아빠 보게 해 달라 부탁해서 잠실에서 보게 했어요. 학교 가서 절대로 중국에란 말 하지 말라했어요. 그러면 무시 당할가봐. (옥이씨)

민이씨가 중국에서 한족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은 탈북할 때 잃어버린 첫 아들을 대체해주고 단절된 북한 가족들의 혈육애를 대신해주는 유일한 희망이고 전부였다. 남한에 와서도 1년에 한 번씩 여름방학이면 부자간의 만남을 위해 아들을 데리고 중국남편을 방문하는데 그때마다 금의환향의 성취감을 느낀다. 민이씨가 살았던 중국마을에 북한 나선시에서 온 40세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민이씨와 유일하게 의지하며 살던 여성이었다. 마을사람들은 중늬은이가 되어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여성과 민이씨를 비교해본다. 시집살이에 1전 한푼 없이 가난하게 살던 민이씨가 아들 데리고 잘사는 나라 한국에 살고 있으니 중국의 시골마을에서 두 모자는 ‘개천에서 용 난 사람’으로 불린다.

그는 남한에서 결혼을 포기하고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한데 전심전력한다. 중학교까지 무료로 공부시킬 수 있지만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 위해 임대주택을 포기하고 중학교까지 아들 학비를 보장하였다.

하나원 나오기 전 선생에게 외국인 학교가 있냐 물으니 서울 연희동에 있대요. 그래서 인천 임대주택 포기하고 무작정 서울에 눌러 앉았어요. 영등포 옥탑방에서 겨울엔 얼마나 발이 시리고 춥던지.

그러면서도 애가 중국말 잃어 버릴까봐 집에서 중국말로 대화하고 신경 썼어요. 애가 한국말 모를 때 애들에게 엄청 왕따 당하고 그랬는데. 언젠가 학교에 가니 선생님이 내가 수민이 엄청줄 모르고 그 애가 뭘 몰라서 애들에게 돌림 당했다나 그 말을 직접 듣고 엄청 상처 받았지. 중학교 올라오니 그 애 장래가 걱정돼요. 남한 애들처럼 영악하길 하나, 여기 애들은 얼마나 영어랑 잘하는지 저희끼리 영어로 대화하는데, 여기서 저에 수준에 대학도 어렵고, 어떻게 취업 하겠나?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공부 시키려고 수십 번 거처지를 옮겨 다녔다는데 내가 그런 꼴이요. 집을 전세주고 캐나다

가니 한국 사람들도 같은 이민의 신세요. 누가 탈북자라고 업수이 보지 않아, 워낙 이민이 모여드는 나라이니 그런 개념도 없고, 오히려 북한에서 왔다고 장하다고 하더라, 이젠 우리 아들 여기서 대학 졸업하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세 개 나라말 하잖아요. 그러니 좋은 직업도 구할 수 있겠죠. (민이씨)

민이씨는 스스로를 ‘맹모삼천’에 비유한다. 남한사람들에 비해 월수입도 꽤 많은 편이었던 그녀는 아들이 점차 커감에 따라 남한아이들과의 경쟁이 어려움을 깨닫고 자생적 힘으로 꾸려왔던 생활터전을 버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 목적은 영어가 취업의 필수로 된 남한에서 안정적 직업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다. 민이씨는 사회의 변두리에 소수자로 머물러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에서 탈피하고자 남한사람들과 동등한 경쟁관계에 위치 짓기 위한 사회적 성취욕이 강한 미래지향형이었다. 민이씨의 경우는 남한입국 3년 만에 집까지 산 것으로 보아 남한사회정착에 성공할 수 있었으나 자식 때문에 남한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떠나버린 사례다.

4. 지역사회 및 사회적 공감대

북한이탈주민에게 동등한 신분, 친밀한 관계,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국민적 수용도는 매우 낮으며, 일반국민들은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꺼려하는 편이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을 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7%, 직접 접촉한 경우는 6.6%에 불과했다.¹²⁹⁾

1) 사회적 편견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은 국민적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것은 경제적 이유보다 북한정권에 대한 이미지와 결합된 남한국민들의 불신, 냉대, 우월주의에 따른 차별과 무시라는 구조적 장벽이다. 새조위(새롭게 하나된 조국을 위한

129) 윤인진외, 2011, “미디어 접촉이 북한이탈주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불안의 시대, 사회학 희망을 찾다』, 한국사회학회, p11.

모임)가 2009년 남한주민 500명, 북한이탈주민 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편견을 갖는 주된 이유는 ‘북한정권에 대한 혐오감’,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아서’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로 나타난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자신들이 편견을 받는 주된 이유로 ‘못사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정권이 싫기 때문에’를 들었다.¹³⁰⁾

분단은 사회적으로 하이브리드(hybrid)적인 성격을 형성하였는데 군대에서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반공을 외치며, 국제경기에서 북한을 반드시 이겨야만 하고, 북한과 다른 나라의 경기를 보면서 북한을 응원하고, 북한친구들에게 통일편지를 쓰거나, 북한에 동포애적으로 물자를 지원해주기도 하는 양면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형성한다.¹³¹⁾

(1) 이데올로기적 편견

남한사람들에게 민족이란 상상의 공동체일 뿐,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국민적 결집을 통해 민족의식은 국민의식으로 전이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한 민족이면서도 우리와 다른 사람, 같은 국민이면서도 2등 국민으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은 그들의 정체성에 혼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남한주민이지만 남한주민들로부터 구별된 탈북자집단으로 범주화되어 존재하며 스스로를 북한사람도, 남한사람도 아닌 ‘조선사람’으로 규정한다.¹³²⁾

북한이탈주민들은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보안기관의 관리대상으로 되는데 신변보호담당관들은 신변보호 및 정보수집 활동, 범죄예방 및 사회일탈행위 방지, 위장북한이탈주민 등 안보위해 세력색출이라는 이중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¹³³⁾ 국가보안기관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국민과 국가안보를 위해 확실한 검증이 필요한 사람들이

130) 윤인진, 2009, 『북한이주민-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80집, p159.

131) 김현식, 2003, 『색깔논쟁』, 새로운 사람들, p428.

132) 유지웅, 200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상반기호, 통권, 제47호.

133) 조동운외, 2012,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제9호, p72.

다. 잠재된 간첩일지 모른다는 시선은 늘 따라다니며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어느 학교법인이 안성시에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을 승인 받는데 이어.....기공식까지 마쳤다. 그러나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주민들이 반대에 나서 학교가 예정대로 설립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여기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는 탈북 청소년 학교가 들어서면 이들을 감시하는 경찰이 배치돼 주민들도 감시를 받게 되고 탈북 학생들로 인한 폭력 등 범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¹³⁴⁾

북한은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승리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남파공작원들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거나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대남혁명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대남사업을 전개하여 왔다. 수많은 탈북자가 남한에 입국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자금이 많이 드는 정예공작원보다 일반탈북자들을 흡수하거나, 탈북자로 가장한 간첩을 들여보내기도 한다. 원정화여간첩사건 당시 남한사회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싸늘한 기류가 흘렀다.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위협은 불안과 공포의 대명사로 국민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을 정부가 철저히 검증이라도 하고 데려오는 거냐,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사실 그 중에는 간첩도 있을 수 있고 불순분자도 끼어들어 올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 12월 대선을 앞두고 그들이 무슨 활동이라도 하려고 오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카메라에 비친 그들의 얼굴을 보세요. 절대로 굶주림에 지친 물결이 아니에요.”¹³⁵⁾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어떤 직위에 있었다고 하면 ‘직위를 가진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인데 왜 왔냐?’ ‘굶어 살던 사람들이 대학 다닐 여력이 있었냐?’ 묻는데, 북한사회에 대한 무지가 더욱더 편견과 오해를 불러온다.

134) 정병호외, 2006,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이 남한살이』, 한양대학교출판부, p30.

135) 허태석, 2002, “전사통지 받았던 형님이 국군포로로 생존, 거액 들여 탈출시킨 허태석 씨의 비감의 사연”, 한국논단, 155권 10호, pp47-71.

조국반역자로 낙인찍혔던 북한이탈주민들을 체제선전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재입북시키기 위한 북한당국의 회유기만정책과 그에 이용되는 재입북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을 바라보는 남한주민들의 시선은 더 냉랭해지고 있다. 2012년 5월에 재입북한 박정숙에 이어 2013년 북한매체에 공개된 재입북자만 하여도 13명이나 되는데 아마도 재입북자의 수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¹³⁶⁾ 재입북자들이 북한 언론을 통해 남한을 비난하고 혈투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길러준 개 주인 발뒤축 문다’는 속담을 음미하며 배신감을 느낀다. 그들에 대한 남한사회 경향은 일반적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가족을 버리고 온 자들로 인식하거나, 한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한다는 남한사회의 선입견은 그들에게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도덕적열등감을 부여한다.¹³⁷⁾

북한이탈주민들은 행동이나 발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북한에서 좋은 점, 진보적 발언이나 반미감정을 드러내면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남한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의 생존의 열쇠였던 ‘반공주의 회로판’을 작동시켜서 ‘여기까지 와서도 김일성을 존경하고 있는 반빨갱이들이라고 의심하기도 한다.”¹³⁸⁾

북한이탈주민들과 마주서는 남한사람들은 ‘혹시 간첩이 아닐까’는 두려움과 선입견이 본능적으로 앞서게 된다.

문화적 차이라고 할까요? 색안경 끼고 보는 느낌이죠. 저 같은 건 솔직히 북한사람이라는 걸 말 안 해요.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여기 와서 간첩 얘길 들었지만 그것보다도 북한사람이라면 뒤떨어진 사람들라고 보는 거죠. 북한에서 왔다고 부족하다고, 북한사람이라면 간격을 두고, 북한을 못사는 나라, 다른 나라로 생각하고, 중국에서 돈 벌러 온 것처럼 생각해요. (성남씨)

북한에서 잘 살았다거나, 밥술 좀 떴다는 얘기만 하면 ‘근데 거기서 살지 왜 왔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남한사람들에게 비쳐진 북한이탈주민은 가난함, 불쌍함, 동정의 대상, 북한권력의 희생자로 타자화 되고 있다.

136) 연합뉴스, 2013, 12, 23, “탈북자 재입북, 올해 공개된 사례만 13명”.

137) 정병호외, 2006,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이 남한살이』, 한양대학교출판부, p97.

138) 위와 같은 책, p36.

(2) 미디어를 통한 편견

남한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과 분리시켜 이해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시선의 대부분은 한국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시선과도 연관되어 직접적 경험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¹³⁹⁾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주 출연하는 종편채널에 대한 국민적 의견이 엇갈리는데 “매체는 주어진 주제에 관해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아울러 특정 주제에 의견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조망하는 관점을 형성”¹⁴⁰⁾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 소수자의 한 사람으로 자기주장이나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경제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눈치를 보가며 보수언론의 취향에 맞게 언어구사를 할 수밖에 없다.

TV조선, 채널A를 비롯한 종편에서는 1990~2000년대 초반에 탈북한 사람을 TV 녹화장에 앉혀놓고 김정은 시대 실상이나 장성택 처형사건을 말하라고 한다. 자극적이며 은밀한 김씨 일가의 사생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을 쏟아내게 하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대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그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을 형성한다.

북한생활경험도 남북의 공통점이나 긍정적인 면모는 언급되지 않고 가장 취약하고 저급한 면을 강조한다. 시청자들은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저렇게 살려니 정서가 이지러졌겠지, 악조건에서 살면서 성격은 거칠고 공격적이겠지’ 라고 나름대로 규정 짓고 거리감을 두려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중매체의 이미지 형성은 오리엔탈리즘의 한 단면으로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위계적 권력관계라는 점에서 인식론적 불평등의 특성을 가지며 그들의 위치를 주변화 하여 일상생활에서 알게 되는 체험된 존재보다 대중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된 상상관념으로서의 탈북자이기 쉽다.¹⁴¹⁾

내가 제일 격분한 게 북한미녀들이요 뭐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139) 전영선, 2014,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의 집단적 경계 만들기, 또는 은밀한 적대감”, 『통일인문학』, 제58집, p117.

140) 이창근외, 1991, 『매스미디어 심리학』, 나남, p29.

141) 정병호외, 2006,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이 남한살이』, 한양대학교출판부, p89.

북한에 다 바보들만 있는 것처럼, 나쁜 것만 강조하고 얘기하니까 나도 탈북자인데 기분 나쁘죠. 이 사람들은 시나리오 각본 짜가지고, 제가 모르는 것도 많으면서도 다음 대본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무조건 북한사람은 불쌍하게 보여주려고 해요.

이게 방송으로 계속 나가니까, 북한사람들은 모자라고 덜 떨어진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여기 사람들보다 못 배운 것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세뇌교육 받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북한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남씨)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정권과 고향을 분리시켜 정권에 대한 불신이 높는데 반해 고향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 낮은 곳에 정착의 뿌리를 내리며 고향은 희망이었고 금의환향을 위한 추동력,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고 의지하게 한 정신적 지주였고 그 속에 나와 가족, 그리운 얼굴들이 있다. 그것이 언론을 통해 타자 앞에서 비하되고 짓밟개질 때 분노와 아픔을 느끼거나, 방송인들의 엽기적인 질문에도 굴욕을 감수해야만 하는 출연자의 저자세는 한국사회의 일방적 요구에 끼워 맞춰 살아야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단면이다. 북한에 비한 남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홍보용 도구로, “남쪽사람들 앞에서 험뵈고 굶주린 모습으로, 무식하고 실수를 연발하는 멍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충격이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¹⁴²⁾ 언론은 지배적 힘을 가지며 피지배자에 대한 재현을 통해 편견을 재생산하고, 소수자를 정상 규범에서 밀어냄으로써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¹⁴³⁾

(3) 좌우 진영에 끼인 ‘샌드위치’

좌우 진영으로 나뉜 이념갈등의 이분법적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더욱더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존재로 부각된다. 북한을 대화와 협조의 대상으로 교류를 주장하는 진보단체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남북관계와 교류에 불편한 존재로 여기거나 외면하고 있다. 친북성향의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변절자’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

142) 조한혜정외, 2000, 『탈분단 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 공존을 위한 모색』, 삼인, p133.

143) 김성옥, 200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4~15.

“분단구조라는 사회적 구조는 사람들에게 분단적 성격을 형성시킨다. 분단적 성격은 남한에 레드-콤플렉스라는 성격으로 극단화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분단적 성격 내지 반공적 성격이라는 사회적 성격은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감을 무의식/의식적으로 강요한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레드-콤플렉스를 확산시키며 색깔론이 사회적 행위로 자리잡는다. 이로써 분단 사회의 사회적 성격은 이념에 대한 순응과 반항의 이중적인 사회심리와 반공주의, 레드-콤플렉스, 색깔논쟁으로 규정지어진다.”¹⁴⁴⁾

좌익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고 좌파, 우파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로 특징짓는 남한사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꼬리표를 의식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더욱더 보수 성향에 치우치는데 북한정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북한사회 전체로 확대시켜 무조건 부정하기도 한다. 북한을 이탈하였다는 선택이 곧 반북, 친 남한이라는 정치적 입장으로 해석되는 정치적 프레임이 전제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남한사회에서 정치적 의사와 입장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없는 것은 남, 북한출신 모두에게 예외가 아니지만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남한사회의 이분법적 규범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¹⁴⁵⁾

북한이탈주민은 남북갈등만이 아닌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불안한 존재로, 보수 세력의 정치적 이해나 이익단체의 특정한 목적에 이용되기도 한다. 유우성 간첩사건이나 통합진보당 사건을 비롯한 정치적 이슈에 뛰어들어 광화문에서 국정원 지지, 통진당 반대의 개별적 시위를 벌이는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행태는 진보의 입장에서 볼 때 보수의 들러리로 비춰질 수 있다. 보수 및 북한이탈주민단체의 전단 날리기가 북한을 자극해 남북 간 및 국민적 갈등으로 쟁점화 되고, 정부의 대북정책 혼란과 지역주민들의 생업에 위협을 주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매국단체’로 비난한 민주통합당의 발언에 새누리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북한 인권개선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애국단체’라고 하며 직접 대북전단을 만들어 살포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¹⁴⁶⁾ 늘 보수단체 뒤에 등장

144) 김현식, 2003, 『색깔논쟁』, 새로운 사람들, p189.

145) 이희영, 2010,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한국 사회학 제44집』, 1호, p208.

146) 김영석, 2011, 「탈북자단체의 대북배라가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 2003~2010년을 중심

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존재는 보수 세력의 도구화, 객체화로 전락하여 자신이 살아온 북한에 대한 반북이데올로기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보수 정권과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이용되는 측면이 부각될수록 진보사회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2)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실질적인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지역사회에서 완성된다.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인관계를 맺고 사회적 지지를 통해 소속감, 가치, 존중, 등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점차 남한사회에 통합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정권에 대한 혐오감, 지식수준이 낮고, 북한 출신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그대로 전이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남한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¹⁴⁷⁾ 그들의 지역사회 정착에 영향을 주고 있다.

(1) 주거단지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주거지지원)에 따라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아파트를 받는다. 북한에서 주거지는 인민반이라는 집단생활에 소속되어 국가권력의 정책집행과 장악, 통제에 따른 공적영역이 혼재해 있었지만 남한에서는 사생활영역이다. 아파트 주거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정착의 근본적 뿌리를 내리는 곳이며 이웃과의 만남, 어울림, 소통,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남과 북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공간이다.

여기에서 우선 주거지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호기심과 고정관념이 작용한다. 가족을 중시하는 남한사회의 정서상 가족을 버리고 온 비윤리적이며 뭔가를 알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불평이다. 아파트에 입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독신들이 많은데 자신들과 꼭 같은 평수의 집과 생계

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6~67.

147) 윤인진, 2009, 『북한이주민-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집문당, pp157~158.

비를 받거나 주택보증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한다.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아파트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 곳으로 탈북자들이 늘어날수록 자신들이 받을 혜택이 줄어든다는 심리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을 공짜로 받는다는 불만을 가지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아파트들에서는 관리사무소에 북한이탈주민들을 그만 받으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¹⁴⁸⁾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부정적 시선과 편견으로 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아파트에 입주하면 북한이탈주민들과 아파트 주민들과 어울리는 사례가 거의 없다.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했던 옆집 아줌마가 경이씨에게 던진 첫 말속에는 ‘북한사람’이라는 무시가 전제되어 있다.

그럼 거느라고 못을 박는데 옆집 아줌마 문 두드리며 소리치는데 ‘너 북한에서 그렇게 살았나?’ 끝내 그날 박지 못하고 다음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나와 박아줬어요. 못 박는 거 하고 북한에서 온 게 무슨 상관있어요? (경이씨)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의 접촉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사례자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비아저씨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만나면 눈인사나 하고 지나다니는 정도라고 한다. 사례자 10명 중 이웃주민과 소통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노출된 생활방식과 구조 속에서 매일같이 부딪치며 이웃 간 전통적 상호부조, 공생, 협력, 협조를 통해 치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남한에서는 쓰레기 비우거나 엘리베이터 탈 때나 이웃주민과 마주칠 뿐, 일단 문 열고 들어가 버리면 그만이다. 시설이 잘 갖춰진 주거공간에서 밖에 나올 일도, 이웃주민의 도움도 필요 없다.

자본주의 번영은 인간을 원자화 하고 물질적 포위 속에 들게 하였다. 돈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면서 이웃의 도움이나 노력은 불필요해졌으며 배달, 택배, 각종 서비스를 통해 생활적 애로를 해결할 수 있다. 죽은 사람도 상품이 되어 사망자를 유치하는 장례식장에서 가족, 친구중심으로 장례를 치르므로 아파트주민들은 이웃사람의 불행에 대해 알지 못하며,

148) 이우영, 2003,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통일연구원, p46.

심지어 옆집사람이 사망한지 몇 달 지나도 모르고 지낸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교육받을 때 나가서 사기꾼을 조심하라는 주입을 받는다. 사기꾼들이 정착금을 노리고 접근하거나 사기당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거나 친근하게 대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문과 의심, 자신을 이용하려드는 사기꾼으로 짐작하고 피하려 한다.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닫힌 공간에서 고립된 존재로 살게 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정착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원인중의 하나가 이웃관계가 없는 것이다.

(2) 종교 및 지역단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처음 정착하는데서 가장 큰 애로는 필요한 법 규범과 행정적 절차, 관공서 이용, 생활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과 직접적 연계는 주로 지역복지기관, 하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도우미들을 통해 은행, 구청·주민센터 이용, 시장보기, 여러 가지 정보를 가르치기도 한다. 설, 추석이면 각종 모임과 행사, 1박 2일간 문화탐방을 조직하거나 김장철이면 김치를 보장해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우호적이고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 기관이 관할경찰서 보안계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퇴소할 때 만나는 첫 사람이 신변보호담당관인데 거주지에 안내하고 생활상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해당 경찰서에서는 보안협력위원회 후원활동을 벌인다.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형편과 심리적 고충을 상담해주고, 지역단체와 연결, 취업관련 정보안내, 조언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무연고자들인 북한이탈주민들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민이씨는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가하는데 그때마다 탈북자성공사례로 주로 앞자리 앉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낀다. 사회적 인정과 성취를 부여받는 계기이다.

옥이씨는 동거남과 살면서 사회와 단절되어 집에만 들어있었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연구자: 남한사람들이랑 좀 알고 지내시나요?

그저 교회사람 몇 명 정도밖에…….애아빠 친구들 좀 알고, 교회가면 목장이 있는데 보통 5~6명 되요. 정신적으로는 좀 의지가 되요. 난 북한 애들도 잘 안 만나고, 그저 지금은 사람 만나기 더 무섭다. 너무 상처 받아서. 이젠 남자친구 사귀기도 두렵다. (옥이씨)

북한이탈주민들은 민간단체들에 대해 돈벌이를 목적으로, 또는 홍보용으로 자신들을 이용하거나, 종교단체들에 대해서도 교회세력 확장을 위해 자신들을 끌어당기려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나원을 마치고 나오면 교회의 전도사들이 번갈아 찾아오는데 대해 거부 반응한다. 한편 물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아도 인간관계를 맺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신적 치유와 의지를 위해 교회에 나가는데 조직에 가입되어 생활하던 관습이 남아있어 교회를 통해 집단소속감을 가지려는 노력으로도 보인다.

명남씨는 하나원을 퇴소하고 나오자 먼저 연계를 가진 곳이 교회였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하나 신앙심에 의해서가 아닌 갈데없어 간다는 식이었다. 명남씨는 중국이나 3국을 거쳐 온 일반 북한이탈주민과 달리 임진강을 넘어 남한에 왔다. 고향과 가족을 지척에 두고 명남씨는 홀로 살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교회에 나간다.

교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어둠의 동토대에서 구원된 자, 구제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성경을 공부하고 찬송가와 합참기도를 하는 과정이 북한에서의 주체사상 학습과 김부자를 향한 열광의 기억과 비슷하게 여겨지며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믿음이 엇갈린다.

사례자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옥이씨와 명남씨는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석남씨와 철남씨는 인맥을 넓히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교회를 선택하였다. 사회적 자본획득과 적응전략의 수단으로 교회를 도구화 하는 것이다.

석남씨, 철남씨는 교회에 다니면서 남한사람들과 많은 인맥을 쌓았으며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 사회도 아무리 경쟁사회고 사기 치는 세상이라지만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는 세상이지. 정으로 쌓여가지고 옛날에는 10만원씩 주었다면 지금은 100만원씩 막 주고 그렇지. 기독교가 조금 도와주고 그랬지. 불교는 탈북자들하고 거리가 멀어. (석남씨)

석남씨는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내가 참여하는 단체는 지역 유지들의 모임, 소위 사업하는 사람들 모임도 있고, 대한한 의사 협회 경영전략학회 이사를 하고 있고, 병원원장 하고, 올망졸망 많은데,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사업하는 분들이지. 옛날에 사업하지 않던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 양반들하고 실없이 술 마시고 떠들 시간이 없지. (석남씨)

석남씨는 한의원 원장이란 지위로 지역사회단체들에서 일반 북한이탈주민과는 구별되는, 성공한 탈북자라는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으며 지역사회 모임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시민사회가 없는 북한에서 사회활동의 주체로 자리 잡지 못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북한인권, 북한 알리기, 등의 명목으로 남한사회 시민단체의 한 역량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NK지식인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민해방전선을 비롯한 수십 개 탈북자 단체가 관변단체에서 경쟁과정을 통해 다양하고 다원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은 80년대 민주화 이후 한국의 NGO단체의 성장과정과 비슷하다. 일부 탈북단체들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와서 자신들이 북한정권에 속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일종의 반항 심리도 생겨난다. 그러한 심리적 표출은 탈북단체들의 반복활동으로 나타난다.

사례자들은 주로 가족관계에 머물러 있으며 시민단체나 탈북단체모임에는 전혀 다니지 않고 있다. 탈북단체들이 북한이탈주민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권력욕, 경제적 실리, 공명심, 등 개인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한 장으로 이용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단체에 대한 개념이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단체란

국가의 힘에 의해 조직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가 남한에서 시민단체는 개인이 맘대로 만드는 것으로 신뢰할 수 없고 기업과 같은 특정한 이익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¹⁴⁹⁾ 개인주의 성향의 주체는 남한에서 가족과 국가·사회로부터 모두 자유로운 개인인 반면 북한에서는 그로부터 구분되는 가족이며, 가족과 국가 권력 양쪽 모두로부터 자유로운 개인들의 사회적 장을 시민사회라고 할 때 북한에서는 그러한 시민사회의 존재가 희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¹⁵⁰⁾

5. 남한사회에 위치 짓기: 직장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에서의 직장생활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남한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 지위이다.¹⁵¹⁾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직간접 경험을 습득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키우고, 개인을 사회와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¹⁵²⁾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장생활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자신을 위치시키고 경제활동을 통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취업은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여자는 남자에게 의존할 수 있다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남자는 자립적인 주체로 살아가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노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는 원칙에 따라 만17세 이상부터는 직장에 소속되었으며 집단주의 기치 밑에 직장생활을 통해 강한 집단 소속감, 존재가치, 지위, 사회적 평가와 인정,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남한에서 만회할 수 없다는 상실감으로 좌절과 무기력을 느낀다. 북한에서의 타인의식과 집단주의 가치관은 잔재되어 금의 환향의 성취욕을 강하게 추동한다. 직장생활을 통해 무한경쟁과 자본주의

149) 현인애, 2013,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35.

150) 이순형외, 2011, 『탈북인의 공·사적 관계와 의사소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69.

151) 김미령, 2005,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1호, p197.

152) 이종은, 2008, “남한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직장유지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 질적연구』, 제2권, 1호, p34.

· 집단주의 가치의 부딪침, 좌절,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북한에서의 학력 · 경력이 단절, 혹은 연결되어 정착의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사례자 10명 중 두 명이 직장에 취직하였고 두 명이 취업준비, 나머지 여섯 명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 위계질서가 뚜렷한 남한의 직장문화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싫어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조직적 통제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 질서에 따른 복종을 싫어한다. 그들은 조직생활에서 벗어난 것만으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데 대해 만족해한다.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거나, 남한사람들과 경쟁관계에 위치 짓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었다.

1) 관계의 원자화

직장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의 이질감이었다. 상사의 작업지시를 알아듣지 못해 여러 사람에게 문의하거나, 반복하는 과정에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북한에서 자신이 생각이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데로부터 남한에서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밝히는데 익숙하지 못하다. 북한이탈주민은 감정을 신체로 표현하는 반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능숙한 남한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의 미세한 차이를 이해하거나 알아차리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통의 시도를 포기하거나 사회적,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져 재사회화에 실패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¹⁵³⁾

여기 와서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외래어가 많으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공구나 기계 부속품들의 이름이 생소하니까 어렵고 다른 건 괜찮아요. 하루 일 나가가서 중국사람하구 하수도 관 묻는 작업 하는데 날 더러 뭘 갖다 달라 그래요. 내가 공구 이름을 알아야 갖다 줄 텐데 갖다 그냥 와서 모른다 하니까 날 제쳐놓고 제 혼자 풀풀대며 혼자 하는데 난 아직 이름도 몰라요. 말귀를 알아 못 들어서 다신 안 나갔어요. 별로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일할 데는 많으니까. (명남씨)

153) 하지현, 2012,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소통 방법의 이해”, 『통일인문학논총』, 제53집, p322.

북한에서 남한 말은 우리말과 외래어가 섞인 잡탕말이라고 교육받던 그들은 실제 경험을 통해 절감한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 무던한 말투는 남한사람들에게 어딘가 부실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남한에 정착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나이는 0살로부터 시작된다. 어른이라도 사실상 남한사회에서는 초등학생에 불과하다. 그들은 남한사람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사소한 공구이름까지 북한용어와 다르므로 눈치껏 스스로 배워가야 한다. 직장에 취업하는데서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못해 위축이 되며 편견과 무시로 왕따를 경험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들과 어울려 일하게 되는 대다수 남한주민들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편인데 자신들도 벌어먹기 힘든 경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밥그릇을 뺏기는 듯한 부정적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침해되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일 나가보니까 보는 눈길이 편안한 눈길이 아니고, 말투도 곱지 않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가 그러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른 사람들 그러던데 진짜 내가 겪어봤죠. (명남씨)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때로 놀림거리를 만들어 왕따 시키기도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수모를 참는다.

편견은 무조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필요 없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상대방 기분 상하게 하는데 한 가지 실례로 전구 볼트 나트 뽑고 선 붙여야 하는데 난 한번도 못해봐서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해야 하는데 올라가기 싫으니까 날 더러 하라는데, 그건 원래 전기기술자가 해야 하는 건데 뻔히 내가 못할 줄 알면서도 올려 보냈으면 어떻게 하라고 배워주지 않고, 그것도 몰라, 모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뭘 해먹고 살았나? 이러는데, 난 남한사람 전체로 보지 않아요. 북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는 것처럼요. (송남씨)

북한의 직장생활은 하루 일이 끝나면 행정적 총화, 학습, 강연회, 생활총화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통해 어울리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관계가 밀

접해 진다. 직장 내 종업원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면 도와주고 도움 받는 전통적 상호부조관계 속에 있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직장 생활에서 인간적 유대를 느낄 수 없다.

여기선 일단 직장일이 끝나면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손 싹 씻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만이고. 우린 일 끝나면 이러저러하게 함께 어울리는 계기가 많잖아요. (송남씨)

북한에서 문화공동체적 성격이 짙고 직장단위별 결속력을 우선시했다면 남한에서는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측면¹⁵⁴⁾이 강하므로 정이 메마르고 냉혹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며 원자화 된 인간관계속에서 더욱더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경이씨는 정착금과 취업 장려금을 모아 사무실을 임대받아 동거남과 함께 하나원 동기생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자본으로 결혼정보 회사를 꾸렸다. 하지만 인맥이 넓지 못하고 저소득층, 조선족들을 고객으로 상대해서인지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는 북한에서 직장 다닐 때 노래를 잘 불러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고 이름을 날린데 대해 울먹이며 그때의 성취감을 반복 이야기했다. 드문히 탈북예술단체들에 어울려 공연이나 행사에 가수로 초청되기도 하지만 나이도 있고 성악가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불만족으로 북한에서 화려했던 직장생활경험을 떠올리며 허탈감에 빠지기도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의 인정과 성취감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경이씨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요인으로 된다.

2) 북한 직장경험 단절

북한에서는 국가가 직장배치를 해준다. 국가의 정책이나 지시는 모든 기관, 단위들에서 집행하는 것이 의무화된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정책이 해당 단위나 기업들에서 실질적으로 집

154) 김창근, 201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통일교육”, 「윤리연구」, 제80호, p155.

행되지 않는데 대해 의문을 표한다. 북한이탈주민은 공적권위에 대한 무조건 복종이 내면화되어 정부의 취업지원체계에 대해 국가가 무언가 보상해주리라는 일종의 기대를 갖고 온다.¹⁵⁵⁾ 그러나 지원정책과 현실은 분리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40세 이상부터는 취업의 기회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노력은 머리가 숙여지는데 실지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가 배워서 자격은 취득되었지만 취업은 못했잖아요. 누가 나서서 알아봐주고, 취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현지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무효과로 끝나잖아요. (명남씨)

취업시 정보제공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상대는 이웃이나 지인인 경우가 62.3%, 이중에서 취업에 성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 23.4%, 제도권의 정착도우미나 신변보호담당관의 경우 각각 2.6%, 5.2%로 나타난 것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⁵⁶⁾ 2005년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은 보호중심에서 자립중심으로 전환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빈곤문제와 노동시장배제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적 요인에서 찾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¹⁵⁷⁾ 1993년 이후 정부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의무고용제가 폐지되면서 이들은 취업에 훨씬 불리하게 되었으며 직장 진입과정뿐 아니라 유지과정에서도 기술적 능력 부족, 인간관계 미숙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¹⁵⁸⁾

송남씨와 명남씨는 하나원을 수료한지 1년 가까이 되었다. 학원에 다니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이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한다. 둘 다 북한에서 학력이 부족하고 공적직업에 종사한 것이 공통점이다. 송남씨는 북한이탈주민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 자리에 추천되었지만

155) 김화순, 2004, 「북한사람 남한에서 성공하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 3년간의 직업생활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교육기술대학교, 석사논문, p38.

156) 최성근, 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와 개선 방안”, 『통일경제』, 제2호, p76.

157) 황선영, 200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배제요인”,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3호, p353.

158) 이종은, 2008, “남한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직장유지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2권, 제1호, p34.

학력부족으로 취소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직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북에서 직업능력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인정되지 않아 직업훈련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남씨는 기술 없이는 취직이 어려우니 전기학원에서 기술을 배운다고 한다. 명남씨는 나이도 있고, 기술도 없으니 선뜻 받아 주겠다는 데가 없어 통일 후 북한에 돌아가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겠노라 한다.

이제 통일되면 돈 되는 직업 많죠. 굴착기(포크레인) 하나 사가지구 북한에 가서 굴착기공으로 일하면 엄청 돈 벌죠. 1억 2천인가 새것 큰 거로 사려면 비싸고, 작은 건 6천만 원, 3년 벌면 살 수 있는데. 통일되면 북한에 건설할게 오죽이나 많겠어요? 내가 북에서 올 때 3년 안에 통일이 될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도 버티는 거지. (명남씨)

하나원 퇴소 1년이 넘도록 가스도 연결하지 않고 살고 있는 명남씨는 남한을 임시거주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명남씨는 아무 연고도 없는 남한에 뿌리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로부터 자신감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 후 고향으로 돌아가면 남한국민으로써 선점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미래지향적 가치관으로 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는 통일 후 북한주민은 2등 국민으로 놓이게 됨을 예고해주며 그로 인한 여러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며 통일 후 북한에 들어가 사업할 자금을 모으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의 경험과 북한의 인적자본을 활용하여 통일이 되면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 엄마 모두 데려왔는데 한 달에 용돈 드려야 되지, 처갓집에 돈도 보내줘야 하지,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도 돈 안 모이네요. 통일 되면 북한에 가서 뭘 좀 투자하고 사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돈 빨리 모아야 할 텐데…….(성남씨)

두 사회경험을 토대로 통일 후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업종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례자들의 증언은 통일 후 북한경제를 추켜세우고 남

한기업들의 북한진출에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남한에서 정착은 어렵기 때문에 향후 남북통일과정에서 북한을 토대로 하는 비전과 기회를 찾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의 폭도 제한되어 있다. 외교부, 보안기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여러 곳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해소하는 것은 분단 상황에서 시기상조일 것이다.

3) 북한 직장경험 연결

철남씨는 IT부문 GPS전자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평양건설건재대학을 졸업하고 전자기술자로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던 경력을 살려 직장에서도 별로 남한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는 편이다. 자신이 워낙 눈치가 빨라서 남이 하기 전에 뭐나 다 하는 스타일이므로 편견과 무시를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한다.

위성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애들은 몰라, 기존공식만 매달리니까, 난 보니까 하겠더라고, 라인엑스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게 미국에서 내낸 프로그램이야. 근데 내가 보기엔 기네엑스로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램 상에서는 라인엑스밖에 안 돌아가는데 내가 요거 좀 다르게 하면 안 될까 해서 변환해보니까 되는 거야. 근데 모두 신기해하고 날 보고 천재라고 하는데, 난 쉽게 하는데 왜 날 보고 천재라고 하는지 말이 안 되고, 난 아직까지도 나이 먹었지만 수학에선 안 져. 우리 회사에서도 난 앞장서지. (철남씨)

철남씨는 국토부 공무원 시험에서 물리, 수학은 100점인데 역사점수가 낮아 3.6이 모자라 떨어졌다고 한다. 철남씨는 공무원 시험 다시 봐서 꼭 합격하고 남한사람 못지않게 사회생활을 당당히 할 것이라 말한다.

국토부에서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물리, 수학을 100점 맞을 수 있냐고, 북한이 공학이 그렇게 발전했냐 물어보는데, 공학은 북한이 더 세지, 남한은 인문학이지만…….그냥 북한은 다 못하는 걸로 인식하니까 잘하는 거

보면 다 신기해하고. 난 요즘 알바로 학생한테 수학공부 배워준다고. 미분 적분 다 가르치지. (철남씨)

북한사람은 남한사람에 비해 무식하다는 고정관념이 철남씨의 수학적 재능과 충돌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한다. 철남씨와 석남씨는 북한에서 학력·경력을 남한에서 그대로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석남씨는 북한에서 의학대학을 졸업한 한의사경험을 살려 남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남북한한의사라는 명성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잘 운영되는 편이었다. 처음엔 북한이탈주민을 직원으로 받았다가 포기해버렸다.

난 북한사람이라면 손들었어. 우리 직원들 북한 사람 써봤는데 인간적으로 나빠서 그런 거 아니고, 살아온 방식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안 좋아요. 몸으로 때우는 건 남자 열 부럽지 않게 잘하는데 인간관계가 부드럽지 못해서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직원으로 안 쓰는데 다른 사장님들이 쓰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썬 노동력이라는 데서 쓸 사람은 있겠지. 성격도 맘에 안 들지만 같은 탈북자라고 맞짱을 뜨자고 하는데, 조직을 흔들어 놓는 거지. 조직은 오너가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자고 하니 그걸 용납할 수 없지. 찍하면 안 나오고. (석남씨)

석남씨가 북한이탈주민을 직원으로 쓰기를 거부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에서 직장생활은 조직생활과 병행된다. 직장장이나 간부들은 행정적 위계질서에 놓였다가도 조직생활에서는 평등관계가 되어 약점을 지적당하고 비판받을 수 있다. 같은 북한이탈주민끼리 마주서면 북한에서의 몸에 배인 조직문화와 같은 탈북자라는 평등의식이 작용하게 된다. 남한사람 듣기에 거칠어 보이는 직설적 말투는 애돌아 표현하는 남한사람들의 대화법에 비해 공격적으로 비춰진다. 태도의 경직성, 대인관계에서 유연성 부족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장생활을 지속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에서 경험이 연결되는 사례자들은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에서 주동적이고, 무시와 차별을 잘 극복해나가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거나 단절된 사례

자들은 남한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무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4) 해외생활경험 연결

민이씨는 중국 청도시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경리 겸 회사 식당일을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때로 남한사람들의 중국관광 안내자 역할도 하면서 억척같이 모은 돈으로 집 두 채를 사놓았다. 집값은 경증 뛰어올라 부동산 투기 맛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남한에 입국하여 중국 회사생활에서 연계 되었던 남한사람들을 인적자본으로 활용하여 장사를 시작하였다. 민이씨는 과일 장사를 하면서 수입이 일반인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남한 사람인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일당 10만원씩 주면서 일을 시키고 있었다. 중국의 청도시 한국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남한말투를 빨리 익힌 덕에 주변 사람들은 그가 탈북자임을 모른다. 간혹 거래처나 친근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일단 탈북자임을 알고 난 후부터는 경계하거나 연락이 끊기면서 상품을 팔지 못한 적도 드물게 있었다고 한다. 민이씨는 해외생활경험의 탄력을 받아 남한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 부딪치는 탈북자라는 편견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사례자들은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주체적 역할을 통해 남한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사람간의 칸막이는 그들이 넘어설 수 없는 구조적 장벽이었다.

6. 새로운 인맥 형성하기: 동료(지인)

북한이탈주민들은 집단주의 가치질서에 의한 협동과 협조를 통해 인간 상호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남한에서는 스스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학연, 지연, 혈연이 전혀 없는 새로운 터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남한사회 정착의 필수조건이다.

사례자들은 동료, 지인관계를 형성하는데서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북한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던 사례자들은 남한사람들과 관계에서 무시와 차별, 냉대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 편이었으며 남한, 북한사람 가림 없이 골고루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끼리 어울리면서 북한에서의 집단문화를 재현하거나, 기피하면서 남한사람들과 관계에만 힘쓰는 양상도 나타난다.

1) 남한사람과 어울리기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정착하였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남한사람들과의 연결망 기준으로 찾고 있었다. 남한사람들에게 ‘부정적’ 범주의 집단으로 비쳐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체성에서 탈퇴하고 남한사람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의식의 반영이다. 남한사람과 어울리는데서 존경받고 싶고,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사회적 욕구가 결여된 자신을 발견한다. 이것은 남한사람들의 무시와 차별의 태도, 선입견, 사회의 소수자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더 깊이 느낀다.

석남씨는 남한에 적응하는데서 가장 큰 어려움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었다. 나태해 보이는 사람에게게서까지 일종의 동화를 강요당하는 듯한 느낌에 반발심을 가진다.

주위에 사람 없는 것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말만 통하는 이방인이었죠. 요샌 탈북자가 많으니까 서로 통하는데 그땸 없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제일 고생했어요. 무시당해도 열 받아도 사실이 그런 거 인정해야지 어찌겠어요. 내가 영세민아파트에 살 때 코가 새빨개가지고 술에 찌든 사람이 ‘열심히 사세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얼마나 열 받던지…….(석남씨)

남한사람들의 무시와 편견은 때로 반작용이 되어 그 틀에서 벗어나려는 지향성, 발전적 노력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그는 한의사 직업으로 남한사람들과 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착에 성공한 탈북자,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사회적 존경과 명망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남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도구적 관계일 뿐, 의리적 관계가 없음을 지적한다. 자신들이 남한사회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은 기적이고, 혁명일만큼 불가능하며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의리적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첫세란 게 있어. 우리나라 연고대가 다 끌고 간다고 하잖아. 이 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처럼, 돈 많으면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 인맥, 내가 처음 만났지만 보이지 않는 상하관계가 있어. 외면할 수 없고, 응당 해줘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얹혀지는 먹이사슬, 의리 적으로 얹혀져온 학연, 지연, 혈연관계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집이나 사고, 한계가 있죠. 내가 어느 정도 커지면요. 이 땅이 가만 안 놔둬요. 기업이 커지면 뒷다리 잡아당기고, 쪼꼬말때는 가만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회 사람들 욕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저기 시골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걸 깨려면 정주영처럼 대기업을 일쿠던가. (석남씨)

북한에서 엘리트 위치에 있었던 석남씨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삶의 욕구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어나서부터 형성되어 온 혈연, 학연, 지연의 관계로 얹혀진 남한사람들과의 경쟁에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개인들은 친족, 이웃, 친구 및 기타 지역사회의 1차적 인간관계에서는, 공리적이며 이해타산적인 관계를 떠나서 온정적이며 전인격적인 유대를 형성하며 심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2차 집단을 통한 이익추구의 통로가 억압되는데서 개인들은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이나 생활안정을 위한 이익추구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전통적이며 사적인 관계망에 의존하는 것이다.”¹⁵⁹⁾

송남씨는 취업준비생으로 조건부 수급자로 구청에서 자활근로를 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잘 나가던 외화벌이꾼으로 능력을 인정받던 자신이 현재 사회의 밑바닥, 저소득층 집단에 놓여있는데 대한 자괴감, 자아존재감의 욕구가 대화의 부재로 나타났다. 송남씨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알아줄

159) 이효재, 1985, 『분단시대 사회학』, 한길사, p110.

사람들과의 관계를 희망한다.

지금 가로등 닦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일하면서 그냥 정부나 사회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아서 난 그런 사람 싫어하거든요. 하나원 때 친했던 사람들 많은데, 날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멀리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하고, 생기겠지요. (송남씨)

철남씨는 속 터놓고 말할 사람은 남한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에서 친구들과 다정하게 지내던 때가 제일 좋았다고 한다. 철남씨는 북한이탈주민보다 남한사람들과 더 친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이 만나는 사람은 북한이탈주민이었다. 철남씨의 일괄되지 못한 태도는 자신을 남한사람집단에 위치 짓고 싶은 자격지심과 현실에선 북한이탈주민 1차 집단에 머물러 있는 자기부정의 이중적 면으로 보인다.

명남씨는 자신을 살갑게 대해준 학원에서 만난 남한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표한다.

내가 학원에 가있을 때 나이가 50살 되는 대구사람인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 하고 그랬어요. 주말이면 집에도 가자 그러고 그 집에 가서 3일을 자고, 사모님도 좋고, 아들도 며느리도 좋고, 다 사람이 좋더라고요. 사모님이 특별음식을 해주고, 지금도 연락하고 그래요. (명남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인식된 자본주의는 황금만능의 사회, 정이 메마른 냉혹한 사회, 권모술수와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이 작용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실제로 만난 남한사람들은 따뜻하고 순수한 면도 있었고, 나름 정이 있는 사회였다.

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데서 일차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원 동기나 고향사람 등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

되고 유지된다는 것은 이들이 비교적 제한된 관계망 안에서 사회적 자본이 일차적 집단 중심으로만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⁰⁾

(1) 북한이탈주민끼리 어울리기

숙이씨는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없었다. 하나원 동기생들 몇 외에 연락이 없었고 동거남 동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집으로 동거남의 하나원 동기생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거느리고 명절이나 일요일이면 모여 고향에서처럼 카드(주패놀이)를 치며 논다. 정기적으로 하나원 퇴소한 날을 기념하여 모이거나 추석을 비롯한 명절 때마다 단체로 즐기며 북한에서의 집단문화를 재현하고 있는데 숙이씨 동거남은 조직자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경이씨는 남한사람들과의 관계가 거의 없었다. 하나원 동기생들과 주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다. 동거남이 중국교포들과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남한사람들 만나기 어렵다고 한다. 주로 중국교포들이나 북한이탈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행동이 서툴고 어수룩한 면은 있지만 맘이 험프고, 바늘귀 들어갈 틈도 없는 남한사람들보다는 낫다고 한다. 남한남자와 동거하면서 폭행과 차별에 위축된 심리는 남한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주눅으로 나타난 것 같다. 숙이씨와 경이씨는 동거남 위주에 따른 의존적 관계에 안주하고 있었다.

송남씨는 남한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고 자신들을 이해 못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고향사람들이 더 허물없고 솔직해서 좋다고 한다. 조선족이냐고 물을 때면 제일 열 받는다고 한다.

옥이씨는 남한에 입국한지 거의 10년이 되어오지만 가정불화로 심한 우울증과 피해의식에 교회 목장 사람 몇 외에 남한사람들 별로 아는 것이 없고 주로 하나원 동기생들과 소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민이씨는 주위사람들이 북한출신임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만 속 터놓고 말할 사람은 중국에서부터 함께 지내던 탈북자 친구였다.

160) 이순형외, 2011, 『탈북인의 공·사적관계와 의사소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9.

(2) 북한이탈주민간의 갈등과 원인

북한이탈주민들은 국가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 생활부터 직행과 중국체류자들 두 부류로 갈린다. 주로 중국체류 경험이 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외부의 것을 배격하고 민족적 혈통과 순수성이 강조되는 폐쇄된 곳에서 때가 묻지 않은 자연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민족성이 중국생활과정에 이국적인 것에 물들여졌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한다.

철남씨와 석남씨, 성남씨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칠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혐오감을 느끼며 남한사람 중심으로 동료, 지인관계에 힘쓰고 있었다.

북한사람들은 너무 자기주장이 강하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도 막 하기 때문에 대상하기 싫어요. 그래두 남한사람들은 상대를 존중하니까 그들 하구 많이 친한 편이지요. (철남씨)

난 북한사람들끼리 모여 앉으면 너무 아는 게 많고, 너보다 내가 더 잘 알고 누구 좀 어찌면 너무 배 아파하고, 이렇게 시기질투를 내니까 난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걸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원치 않아도 구설수에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해 다니죠. (성남씨)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부터 조직생활을 통하여 습관화된 상대방에 대한 결함 들추기와 공격적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어 그들끼리 마주서면 북한에서의 기억과 조직문화 기류가 재형성되면서 잠재적 관습이 재발한다.

북한이탈주민 상호간 신뢰와 불신은 북한생활경험에 기인한 것이다. 과거 상위층에서 하위층까지 남한에 입국한 순간부터 똑같은 탈북자라는 평등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상위층 출신들은 하위층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자격지심에서 거리를 두고 자기들끼리 관계를 형성한다. 그들은 남한에서 정보·이용가치에 따라 북에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편인데 김일성종합대학그룹, 해외파견그룹(유학생, 외교관, 해외체류), 간부그룹으로 나뉘어 회식이나 모임을 갖기도 한다. 그래서 ‘북에서 간부는 여기서도 간부요, 북에서 상놈은 여기서도 상놈’이란 말이 있다. 하위출신들은

‘백성의 등쳐먹고 잘 살아온 놈’들이라는 생각으로 은근히 미워하거나 질투하며, 도가 지나치면 과거생활을 들춰내어 비난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에서의 경험과 현재 경제활동의 여부에 따라 시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실현한다. 북한실상에 대한 증언이나 언론매체, 통일 및 안보교육 등 북한이탈주민들 수요가 있는 영역에서 북에서의 경험을 자본으로 활용하는데 경쟁관계에 놓인다. 자기 시장의 범위를 넓히거나 지키려는 상호견제와 함께 여러 갈등이나 문제점을 불러온다.

북한에서의 생활경험은 각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북한의 정보통신, 언론의 제한으로 북한주민들은 북한사회 전반을 다 아는 데는 역부족이다. 관영매체나 TV는 정치적 문제나 국가적 이슈, 주민생활도 긍정적 측면만 다를 뿐, 타지역 정보는 소문에 의해 제한적으로 접하게 된다. 북한의 법과 공공질서, 정책은 법·규범적 근거에 앞서 영도자의 교시나 당적 지시에 따라 집행되므로 관리들의 자의적 감정과 태도에 의해 결정이 좌우된다. 예를 들면 성분에 관계없이 실력에 따라 대학을 입학시키라는 국가적 방침에도 관리들의 편협성에 의해 성분이 나쁘다고 대학추천을 못 받거나,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당의 광폭정치를 운운하며 추천해줄 수도 있다. 학교교육부터 대학입학, 직장배치까지 국가가 관리하므로 개인의 선택권이 없고 국가 관리들의 자의적 해석과 태도에 따라 경험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의 합리적 가치와 기준이 보편화 되지 못한 북한에서의 생활경험을 전부로 인식하고 흑백논리나 주관에 의해 상대방을 평가한다. 자신의 경험과 어긋나는 상대의 말은 거짓이거나, 틀린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형성된 불신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어 부메랑으로 그들에게 돌아온다.

재입북자들이 늘어나면서 북한이탈주민들 상호간 만남을 꺼리거나 피해의식이 만연하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TV에 얼굴을 드러낸 재입북자만 해도 12명, 북으로 돌아가면 받을 처벌을 면하기 위해 남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상정보나 남한의 군사시설물 관련정보를 수집하며 스스로 간첩행위를 한다.¹⁶¹⁾ 2013년 7월 광주지검公安부는 남한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북한으로 가려고 동료탈북자 34명의 이름, 연락처 등을 적은 수첩을 가지고 재입북을 시도한 북한이탈주민 남성(25세)을 국가보안법

161) JTBC, 2013년 11월 11일, “‘남한 썩었다’ 북으로 돌아가는 탈북자들”.

위반으로 구속기소 하였다.¹⁶²⁾ 2014년 12월 5일 대구지법 형사부는 북한이탈주민여성 김모(45)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바, 2011년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하지 못하고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재입 북하기 위해 탈북자 20여명의 신상정보 등을 수집하다가 경찰에 자수했다.¹⁶³⁾ 이러한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북한이탈주민 상호간 공포와 불신, 경계와 의심의 굵은 깊어지면서 그러지 않아도 원활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관계를 축소시키고 있다.

V. 나가며: 이탈과 정착의 사이에 선 경계인

1. 두 체제 경험비교

1) 남과 북에서의 장점과 단점

두 체제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두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와 비교관을 형성하게 된다. 남에서 좋은 점은 무엇이며, 북한에서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 북한에서 싫었던 기억이라도 남한과 비교되며 향수로 떠오르거나 남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게 된다. 연구자는 북과 남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대표적으로 한 가지씩 구술해보도록 하였다.

소연씨는 북한의 육아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남북한 국가유공자 정책을 비교하며 남한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냈다.

난 정부에 대해 너무 서운한 것이 많아. 민주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까지도 다 보상받고 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공산화 되는가, 이런 갈림길에서 싸웠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외면하는지. 북한에서는 남과 간첩들에 대해 가족들을 얼마나 잘 대우해주는가? 근데 남한은 안 그래. 의리가 없어. 북한에 있을 때는 국가가 탁아소 운영하니까 애들 키울 걱정

162) 연합뉴스, 2013년 7월 16일, “남한생활 적응 못해 북한 가려 한 탈북자 기소”.

163) 연합뉴스, 2014년 12월 5일, “재입북 위해 탈북자 정보수집 탈북녀 징역 2년”.

없고, 사람들과의 친분관계를 통해서 해결되는 일도 좋았어요. (소연씨)

성남씨는 북한의 군사제일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남한에서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발전하는 경제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반면, 남한사람들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한다.

제일 나빴던 게 제일 후회되는 게 내 꽃다운 청춘을 잃은 거죠. 여기 20대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북한에서 18살에 군대 나가서 12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아깝고 분하고 원통한 게 내 청춘을 잃은 거죠.

남한에서 제일 좋았던 건 오늘의 내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 북한에 있었다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남한에 옴으로 해서 일을 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살 수 있겠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게 남한에 대한 고마움…….정치권이 머리 터지게 씹하고 그래도 고층 건물들이 올라가고, 예산 얼마큼 받아가지고, 얼마큼 떼먹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뭔가 일떠서잖아요.

나쁜 것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앞에선 해해하고 세상 좋은 사람이지만 뒤에 가선 따른 소리 하고 그래요. 일본사람들 그렇다고 나쁘다고 하는데 자기들 그런 줄 모르고…….(성남씨)

경이씨는 북에서 성취감과 남한의 위계질서를 북한의 조직적 평등관계와 비교한다.

난 북한에서 제일 좋았던 게 어려서부터 노래 잘 불러서 사람들 사랑 받기 이름 날린 거야. 그리고 고향사람들과 다정히 살았던 거요. 남한은 위계질서가 철저한 사회야. 우리 북한은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지 뭐, 북한은 더 평등해, 당원들은 생활총화에서 간부들도 다 비판한다. 여기서 상관에게 그럴 수 있어? 우린 당비서도 우습게 여겼는데 뭐. 북한은 인권 중시 안한다고 해도 일꾼들이 앞장서라는 방침은 오지 않았나? 여긴 그런 게 없어. (경이씨)

사례자들 모두 북한에서의 밀접한 인간관계를 그리워하며 남한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권력의 억압이 강화되거나, 전통사회 특성이 강한 사회일수록 사적 관계에 집착하게 된다. 생활이 불안하고 궁핍한 사람들

은 공식기관이나 권력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적 통로가 없으므로 이웃·친척과 같은 사적 관계망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¹⁶⁴⁾ 관계를 중심으로 원하고자 하는 사회적 결과를 얻는데 습관 되어온 그들은 연고주의·법치주의, 능력중심의 남한사회 앞에 냉혹함을 느낀다.

북한에 너무 환멸을 느껴지고 권력은 증오스럽지만 그래도 주위사람들이 그리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던 그런 건 좋았어. 여기 사람들이 친구모임, 동창회에 단다고 할 때 나도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있어. 먹을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애도 맘이 편안하다는 감은 없어. 맘속 응어리가 그냥 남아있어. 여긴 자유가 있으니 좋지만 너무 차이가 많고, 남한정착은 어렵다고 생각해. 우리 자식들만이라도 직장을 가지고 나처럼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 (소연씨)

북한사람들은 인정은 있지. 여기 사람들 인정이 매마른 건 발전될수록 정은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웃을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지. 그건 이해해요. 북에서도 많이 생각해보고 느낀 거니까 내가 없을 때 뭐 하나 얻어 써도 그래, 그래서 다 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우선 언어소통도 되고 북한사람들이 조직력이 좋잖아요. 그니까 모든 걸 하는데서 돈이 아닌 정으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기엔 북한사람들이 좋지. (명남씨)

난 고향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했거든요. 무너져가는 그런 사회에서도, 맘이 이지러지는 그런 사회에서도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줄려고 하고, 뭉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서, 여기서 그런 사람들 못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송남씨)

사례자들은 남한의 경제적 풍요로움과 자유, 북한에서의 끈끈한 유대적 관계를 장점으로 언급했다. 북한에서 강요와 통제에 의한 전체병영주의, 조직생활, 남한에서 위계적 조직문화, 원자화된 인간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례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데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임을 밝힐 수 있었다.

사례자 10명 중 7명이 속 터놓고 말할 사람을 같은 북한출신으로 꼽는

164) 이효재, 1985, 『분단시대 사회학』, 한길사, p112.

것으로 보아 북한이탈주민들과는 외면하고 부정할 수 없는 원초관계, 남한사람들과의 관계는 정착을 위한 의도적이며 도구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남한사회와 남한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커질수록 북한이탈주민들은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혈연관계와 같은 북한이탈주민들끼리 소수의 내집단을 구성하고 관계와 결속을 더 공고히 한다.¹⁶⁵⁾

2) 남과 북에서의 사회적 관계 비교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이탈하면서 모든 사회적 관계가 말소되고 남한사회 정착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북한에서 식민형의 사회화를 경험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은 6. 25전쟁기억과 북한의 항시적 위협과 도발, 가난함, 3대세습, 세계왕따국가라는 북한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저촉되는 사람들이라는 남한사람들의 객관적 자아에 의한 사회적 압력으로 비주류로 분리되어 비능동적인 재사회화과정을 경험한다. 비능동적 사회화란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 위치 짓기, 제도, 규범, 문화, 집단적 가치질서에 적응해나가는 사회화 과정이 권력 · 사회적 압력 · 통제의 구속력에 의해 규제되는, 소외된 형태의 사회화를 말한다.

국가주의 가족에서 개인주의 가족으로 변화되며 가족의 다원화가 이뤄진다. 북에서의 가족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새 가족을 형성하거나, 이산자 가족의 재회가 되기도 한다. 결혼관계를 보면 북한에서의 가부장적 권력관계와 상황적 권력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북한에서의 결혼은 법적 혼인이었다면 남한에서 결혼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었다. 그것은 결혼이 안정적 가족기반형성보다 정서적 의지, 생존과 정착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북에 두고 온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로 하여 통일 후 부부관계의 또 다른 해체와 원가족이 결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남한남자와의 결혼을 통해 정착하려 했던 관계의존형은 남자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폭력과 무시, 차별을 경험하며 사회적

165) 이순형외, 2011, 『탈북인의 공 · 사적 관계와 의사소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80~81.

변두리로 점점 밀려나고 있었다. 이것은 결혼이 사회통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의 다름과 존재를 인정해줄 때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관계는 부모 자식 모두 남한에서 새롭게 배워야 하므로 부모의 교육교양자적 권위가 상실되고 경제적 담당자, 돌봄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직장생활에서 북한에서의 학력과 경력이 이어진 경우는 그에 탄력을 받아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지만 직장경력이 단절된 사례자들은 새로운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으며 정착이 늦춰지고 있다. 언어의 이질감과 편견은 직장 동료들 간의 소통의 어려움과 관계위축의 요인으로 되었다. 일부 사례자들은 주체적 활동으로 남한사람들과 경쟁관계에 놓인 것으로 봐서 정착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내면적으로 북한사람이라는 한계에 부딪쳐 남한사람들의 무시와 냉대, 소외를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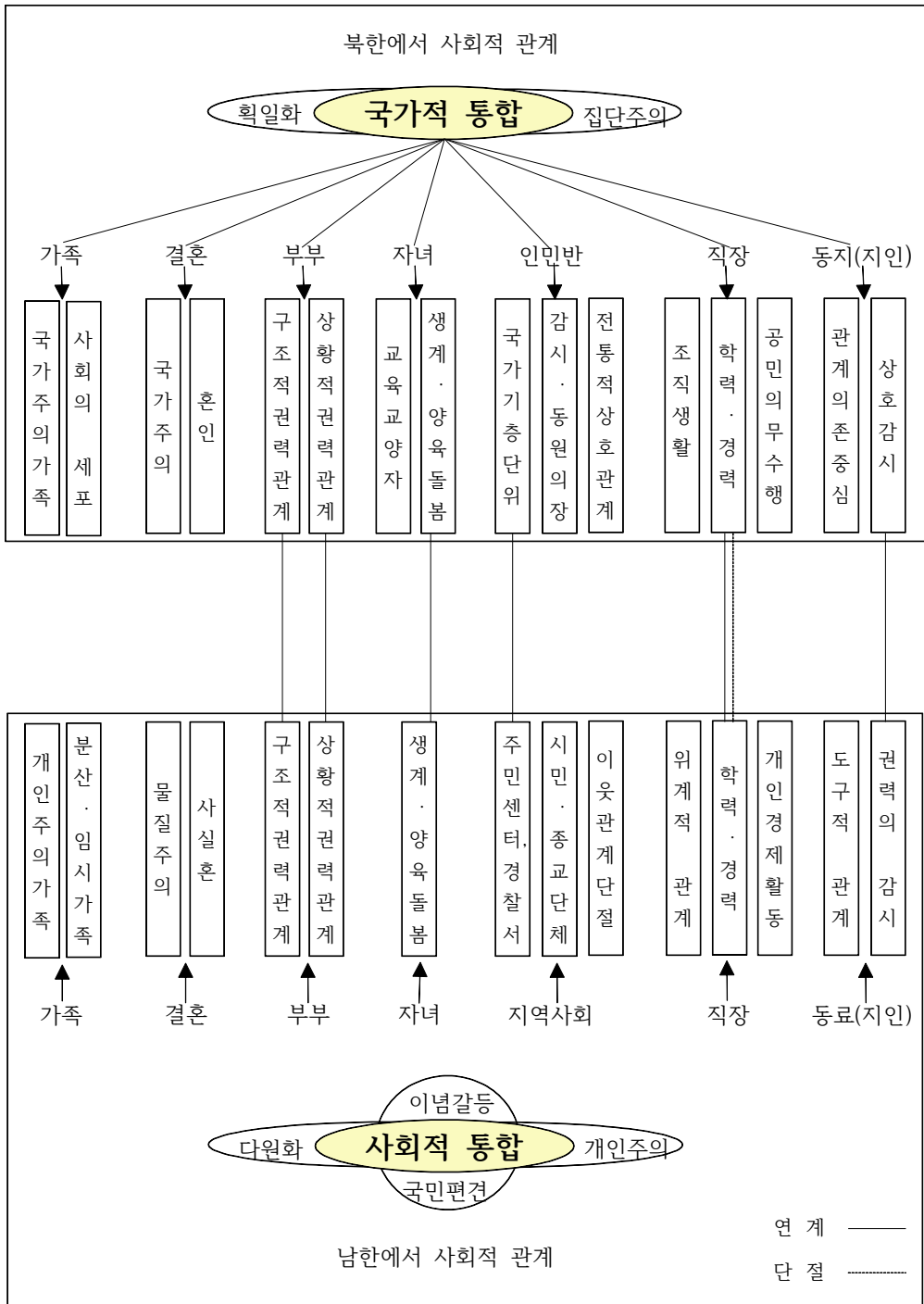
북한에서 지역사회, 이웃주민간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해왔다. 남한에서 동주민센터, 하나센터, 경찰서를 비롯한 일부 국가기관과 조금 연결될 뿐 이웃관계는 단절된 상태이다. “2007년과 2008년의 조사에 따르면 남한사람들 중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본 사람은 100명 중 9명에 불과하다”고 하였다.¹⁶⁶⁾ 동료(지인)관계를 보면 북한에서는 감정과 정서를 공유하던 관계의존·관계중심적이었던 것이 남한에서는 정착을 위한 도구적 관계로 된다.

사례자들의 관계형은 석남씨나 민이씨와 같이 인맥관계에 의해 정착의 성공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관계지향형’, 숙이씨와 같이 지인, 동료관계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동거남에게 의지한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자기만족형’, 경이씨와 옥이씨는 남한남자와 동거하는 경우였지만 오히려 남한사람들과 인맥이 거의 없었고 중국교포나 북한이탈주민들에게만 한정된 외톨이형으로 나뉜다.

사례자 10명의 정체성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남한정착이 어려워 통일 후 돌아가고자 하는 귀가형, 현재 위치에서 남북을 오가며 북한에서의 경험과 연고를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려는 중간형, 북한과 인연이 별로 없어서 남한에 그대로 남고자 하는 영주형이다.

남과 북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정리하자면 다음 그림과 같다.

166) 김성옥, 200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재인용, p12.



<그림 5-1> 북한이탈주민 남과 북에서의 사회적 관계 비교

2. 마무리

1) 글을 정리하며

이 연구는 남과 북의 통합방식 차이를 비교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재사회화 과정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북한이탈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자료, 1차, 기존연구문헌들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존을 위한 투쟁, 대물림되는 성분의 족쇄에서 탈피하려는 저항적 행위는 폐쇄된 울타리를 넘어 경계선 밖으로 확대되었다. 가족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면서 분단선을 뛰어넘은 혈연적 유대의 교류는 밑으로부터 분단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다. 3만여 명의 북한주민들의 남한으로 대이동은 남한정부로 하여금 통일의 절박성을 재인식하고 통일정책수립을 다그치고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에 사례자들의 생애에 묻혀있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 그로 인한 처절한 몸부림, 구천을 떠도는 분단의 영혼을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다. 객관적이며 냉철한 이성애 근거해야 할 논문에 개인적 감성이 개입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전체적인 삶은 분단권력에 대한 순응과 저항, 희망과 좌절이 혼재되어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통합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구조적 장벽, 분단권력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집단적 상흔의 더 깊은 심층에는 분단, 가부장제, 아시아의 패권적 발전주의, 국가주의가 입힌 상처’가 있다.¹⁶⁷⁾ 북한이탈주민들은 70년 분단과 이념대립의 희생양, 남북 간 체제경쟁과 자존심 싸움의 수단,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사용되는 외교적 압박카드, 정치·경제적 난민, 소수자, 자본주의사회의 무능한 경제적 약자,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문제 집단으로 낙인찍혀 있으니 이처럼 비극적인 존재를 역사에서 찾아보기는 힘들 것이다.¹⁶⁸⁾

167) 박경숙, 2013,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341.

168) 정병호외, 2006,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이 남한살이』, 한양대학교출판부.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서 합법적 지위와 국민적 권리를 되찾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남한사회통합과정은 단순한 정책적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비록 북한을 탈출하였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잔여가족 때문에 여전히 북한의 권력에 매어있었다. 이 때문에 심리적 불안과 위협, 북의 가족들에게 송금으로 인한 경제적 취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 25전쟁경험과 북한의 도발, 폐쇄적이며 가난한 나라 등 남한사람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남한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보가 북에 알려지는데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으로 북한이탈주민 간에도 불신이 조성되고 관계가 축소되고 있다.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58.4%가 자신을 남한이 아닌 북한사람으로 여기는 반면 남한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설문조사¹⁶⁹⁾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현재의 다름을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고 사회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고 감싸 안는 남한주민들의 노력이 합일점을 이룰 때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 질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상은 통일 후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을 가늠하는 시험장이다. 그들의 존재는 남한사회를 비추는 거울, 남한의 민족의 범주와 경계선에 대한 인식, 사회의 변두리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집단의 자화상이며 이런 모습들은 민족 정체성에 의해 탈북자가 남한사회에 동화될 것이라는 믿음과는 괴리가 있다.¹⁷⁰⁾

남한의 민족주의는 북한주민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반공주의가 작동하여 다시 한 번 우리민족과 타자를 구분한다. 이 때문에 북한사람들은 타자화 되는 것이다. 또한 남한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이 타자화는 극복되지 못한다. 남한사회과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체제와 은연중에 동일시하여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탈북자를 둘러싼 다양한 힘들이 결합되어 부정적인 의미를 재생산 시킨다는 것을 반증해주며 따라

pp318~339.

169) 한반도인권뉴스레터, 2009, “‘탈북자’-분단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인권운동사랑방.

170) 정병호외, 2006,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이 남한살이』, 한양대학교출판부, pp98-99.

서 탈북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는 것은 단순히 탈북자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힘들이 할 수 있다.¹⁷¹⁾

분단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사회전반, 개인 속에 자리 잡은 심리적이고 생체적인 마음의 분단이다. 분단구조가 해체될 때에만 북한이 탈주민의 삶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은 ‘인간해방’이다.

우린 아직 정착하려면 멀었지. 우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방인이죠. 보이지 않는 뭔가 섞일 수 없는게 있어요. 통일이 되면 우린 고향으로 가는 거죠. 고향가면 이방인이 아니지. 내 땅이지. 돈 벌어서 고향 갈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 부모, 형제한테 보상하러 가야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나서 자란 곳이 거기지. 여기서 사업지를 조금 가진다고 해서 이 나라의 기본이 될 수가 없어요. 00년도 남한 오신지 몇십년 되도 그냥 탈북자 취급당하는데 자신도 부평초라고 말해요. 영원한 이방인. 우리의 통합은 분단이 해제되고 통일이 될 때이다. (석남씨)

열심히 살고 있을 뿐, 지금은 우리가 그냥 울타리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철남씨)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과 북에 몸과 마음이 흩어져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완전한 사회적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과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며 시대적 미결과제로 남아있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줄거리를 맞추지 못했다. 사례자들의 구술을 통해 노출되는 은폐된 분단권력, 분단 역사의 배경을 포함하여 방대한 자료를 다루기엔 연구자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를 분단사회학적 안목으로 직시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일관적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기초 틀을 형성하는데 주력

171) 오원환, 2011,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89.

했다. 분단이 가족·인간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되어 왔으며 그로 인한 비인간적 억압, 희생, 피해, 등의 문제에 대한 유형화, 개념화, 이론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 실천하지 못한 것을 훗날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북한사회 기원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했고, 국제비교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북한사회에 영향을 준 것은 단순히 ‘분단’만은 아닌 다른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예컨대 북한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일제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독립국’이며, 제도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경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이다. 따라서 ‘인민반’ 생활이라는 북한 특유의 조직생활과 유사한 활동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존재할 수도 있다. 이 점은 추후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하고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사회적 충격과 탈북자의 경험을 비교하지 못한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동유럽 사회주의의 본격적인 체제 전환이 시작되면서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민영화, 대량해고, 자살률 급증등과 같은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시기를 통과해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힘들고 고달팠을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의 통일과 자주 비교 되는 독일의 사례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 사실 독일 통일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지만 국가수준 혹은 국제정치적으로 접근하였지 삶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독일도 통일을 이룩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감정의 골은 남아있다. 서로를 오시(ossi, 동독놈)와 베시(wessi, 서독놈)라 비하하기도 했다. 또한 통일 이후 과거 동독의 삶을 그리워하는 ‘오스탈기(Ostalgie)’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독일은 큰 사회문제 없이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고 유럽의 강대국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동독출신 메르켈은 통일독일의 총리로 선출되어 장기집권을 하고 있다. 독일을 타산지석을 삼는 여러 연구가 가능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동독을 이탈하여 서독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이들의 삶이 궁금하다. 동독이탈주민들도 서독의 반공주의, 재취업문제, 사회적 연결망 부재 때문에 힘들었는지 아니면 독일적인 무언가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에 연구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원자화된 사회는 비교적 최근 들어 시작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은 IMF시대를 경험하며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안정적인 일자리 대신 비정규직이 등장하였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했던 고도의 경제성장은 사라졌다. 신자유주의가 확립되기 이전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본 남한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남한의 변화상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외부인의 시각이 내부인 보다 더욱 날카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의 모습을 그리는 연구는 무궁무진하다. 이 연구를 기초로 하여 더 많은 연구를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새롭게 끼워 맞춰야 할 조각들은
전혀 헛바퀴만 돌고 있구나
나는 강 저편의 기억만 붙잡고 있네
마치 어린 아이가 인형을 놓을 수 없는 것처럼
그 기억 파편만 잡고 있네¹⁷²⁾

172) 엄태완, 2010, 『탈북난민의 위기적 경험과 외상』, 경남대학교출판부, p5.

<참 고 문 헌>

- 강석승, 2010, “‘국가보훈’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및 제도 비교”, 『남북문화 예술연구』, 통권, 제6호.
- 강정구, 1990, “연구방법론”,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 _____, 1996, 『통일시대 북한학』, 당대, pp50~51.
- 강창구, 201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와 전망: 취업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제1호.
- 경향신문, 2013, 홈페이지 <http://news.khan.co.kr>
- 길준규, 200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公法學研究』, 제10권, 제4호.
- 김강녕, 2006, 『탈북자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
- 김광웅 · 이봉근,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실증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1호.
- 김낙중, 2008, 『민족의 형성, 분열, 통일』, 평화연대, 평화연구소.
- 김도태, 2012, “북한이탈주민의 시민교육 내용과 문제점”, 『社會科學研究』, 29(2).
- 김미령, 2005,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1호.
- 김성경, 2007, “경험되는 북·중 경계지역과 이동경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 넘기와 초국적 민족 공간의 경계 확장”, 『공간과 사회』 제22권, 2호(통권 40호).
- 김성옥, 200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 연구: 신문기사의 유형 및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9.
- 김승철, 2006,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서 북한 정치사회화의 영향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 · 이형실, 1997, 『결혼과 가족』, 중앙대학교, p14.
- 김일성, 1975,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조선노동당출판사.
- _____, 1971, 『김일성저작집』 제33권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영석, 2011, “탈북자단체의 대북빠라가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 2003~

- 2010년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하, 2005, “북한이주민을 활용한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27.
- 김진순, 2011, “기독인 탈북자의 가정생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근, 201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통일교육”, 『윤리연구』, 제80호, p155.
- 김태현 · 배성희, 1996, 『결혼과 사회』, 성산여자대학교.
- 김화순, 2004, 「북한사람 남한에서 성공하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 3년간의 직업생활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8.
- 김현식, 2003, 『색깔논쟁』, 새로운 사람들, pp428~440.
- 김현경, 2010, “북한이탈주민가족 해체와 통합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관계의 고찰”,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27회, 춘계학술대회.
- 곽정래, 2010, 「북한이탈주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가치수용, 삶의 질 평가, 시민성 형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1.
- _____, 2011, “북한이탈주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시민성 형성”, 『한국방송학보』 제25권, 3호.
- 권수현, 20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 제20집 2호.
- 권혜수 · 남명구, 20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및 비판: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 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한영문화사, pp57~58.
- 노경란 · 전연숙, 2009,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 실태 연구: 고용지원금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 남근우, 2008, 「북한의 북종과 저항의 정치: 생산현장에 나타난 공식/비 공식 사회관계 (1950~1070년대)」,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9.
-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조선노동당출판사 제6조 5항.
- 대한적십자사, 1976, 『이산가족백서』, p180.
- 문장순, 2008, “북한여성의 역할 변화와 그 요인”,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3호.

- 박경숙, 2013,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153~805.
- 박명규 · 김병로 · 김수암 · 송영훈 · 양운철, 2011, 『노스코리안 디아스포라: 북한주민의 해외탈북 이주와 정착실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박명규 · 장용석 · 정은미 · 송영훈, 『북한사회변동』, 서울대평화통일연구원, p23.
- 박성재, 2012,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통합제고를 위한 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 「월간노동리뷰」,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박영자, 2011,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민족가치의 성찰, 그리고 사회통합”, 『기획논단』.
- 박연호 · 이종호 · 임영제, 2014, 『현대인간관계론』, 박영사, p196.
- 박은숙, 2008, “국내거주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정착을 위한 정책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 박채순, 2011,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유입과 적응 실태 연구: 서울시 노원구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연구』, 제5권 2호.
- 박현선, 2003,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아카데미.
- 북한가족법, 1990, 제9조.
- 북한헌법, 1998, 제8조, 제9조, 제11조, 제67조, 제68조, 제76조, 제83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01(부분개정), 제7조, 2014(일부개정), 제12278호, 01, 21.
- 배이화, 2012, 『생존을 위한 긴 여정』, 탈북여성인권연대.
- 백진아, 2009, “한국의 가족 변화, 가부장성의 지속과 변동”, 『현상과 인식』, 봄/여름.
- 서보혁, 2007, 『북한인권 이론·실체 정책』, 한울아카데미, pp145~146.
- 서유경, 2013,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두 가지 근본문제와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해법”, 「대한정치학회보」, 21집, 2호.
- 서재진, 200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일정책연구』, 통일연구원.
- 송두울, 1990, 『현대와 사상: 사회주의·(탈)현대 · 민족』, 한길사, p117.
- 신원식 · 배지철, 2010,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인식유형”

-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원.
- 연합뉴스, 2013년 12월 23일, “탈북자 재입북, 올해 공개된 사례만 13명”.
- _____, 2013년 7월 16일, “남한생활 적응 못해 북한 가려 한 탈북자 기소”.
- _____, 2014년 12월 5일, “재입북 위해 탈북자 정보 수집 탈북녀 징역 2년”.
- 엄태완, 2010, 『탈북난민의 위기적 경험과 외상』, 경남대학교출판부, p5.
- 염유식 · 김여진,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한국사회학』, 제45집 2호.
- 오인혜, 2007, “탈북자의 고향의식과 그 변화”, 『地理學論叢』, 제49호.
- 오원환, 2011,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78~216.
- 우정, 2000, 『북한사회구성론』, 진솔북스, pp273~289.
- _____, 2010, 『북한사회의 성과 권력』, 이경, pp83~279.
- 유병선, 2011, “북한이탈주민 지역 정착 과제와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 제20집, 1호.
- 유지웅, 200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統一問題研究』, 상반기호 (통권 제47호).
- 윤계인, 2012, “눈물 없는 내 나라를 찾아서”, 『월간북한』, 통권 492호, p167.
- 윤인진, 2009, 『북한이주민-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280집, 집문당, pp90~187.
- 윤인진 · 김희상, 2011, “미디어 접촉이 북한이탈주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불안의 시대, 사회학 희망을 찾다』, 한국사회학회, p11.
- 이경석, 201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방안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
- 이규창 · 김수암 · 조정현 · 유현정,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통일연구원, p4.
- 이기영, 2006, “북한이주민의 노동시장활동과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18(1).
- 이광자 · 엄신자 · 손승영 · 전신현, 2010, 『21세기 사회학』, 학지사.
- 이민영, 2009,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부부의 갈등과 타협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Korean Journal of

-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12, Vol, 3(2) : 91-121.
- 이선태외, 1994,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 민중사, p76.
- 이순형 · 조수철 · 김창대, 『탈북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대학교 출판부, pp205~369.
- _____, 조수철 · 김창대 · 진미정, 2009, 『탈북민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_____, 김창대 · 진미정, 2011, 『탈북인의 공·사적관계와 의사소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9~69.
- 이용화, 200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연구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7.
- 이우영, 2003,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연구총서 03-02』, 통일연구원.
- _____, 2004,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현대북한연구』 7권 2호. 경남대학교.
- 이정희, 2006, 『남북한사회비교론』, 경북대학교출판부, p103.
- 이종은, 2008, “남한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직장유지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 질적연구』, 제2권, 1호.
- 이지경,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문제의 개선방안”,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제1호.
- 이창근 · 김광수, 1991, 『매스미디어 심리학』, 나남, p29.
- 이효재, 1985, 『분단시대 사회학』, 한길사, pp15~290.
- 이화진, 2010,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 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탈북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11, “탈북여성의 이주경험을 통한 정체성 변화과정”, 『여성학연구』, 제21권, 3호.
- 이희영, 2010,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사례연구”, 『한국사회학』, 제44집, 1호, p208.
- _____, 2012,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화: 북한 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2권, 1호.

임경빈,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 분석”,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임인숙 · 윤인진, 2008, “북한이주민의 성역할태도와 부부권력의 변화와 지속”, 『가족과 문화』, 한국가족학회.

원재천, 2003, 『새로운 차원에 접어든 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p87~193.

장경섭, 2009, 『가족 · 생애 ·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pp40~249.

전영선, 2014,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의 집단적 경계 만들기, 또는 은밀한 적대감”, 『통일인문학』, 제58집, p117.

전우택 · 유시은 · 이연우, 2011,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근거이론에 의한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전태국, 2013, 『사회통합과 한국 통일의 길: 내적 장벽을 넘어서』, 한울, p31.

정길호, 2009,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 방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정미경, 2008, “통일을 대비한 초등실과 가정생활교육방안”, 『韓國實科敎育學會誌』, 통권2.

정병호 · 전우택 · 정진경, 2006,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출판부, pp30~339.

정주신, 2007,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을 위한 사회화 과정 일 고찰”, 『탈북자문제의 인식』, 한국학술정보.

_____, 2007, 『탈북자문제의 인식』, 한국학술정보, p45.

_____, 2011,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이탈주민 정책”, 『서석사회과학논총』 제4집 2호(통권 제8호).

정진경 · 조정아, 2008, “새터민과 남한주민을 위한 문화통합교육의 과제”, 『한국심지: 사회문제』, 1(특집호).

조광민, 2013, 「분단현실과 개인의 정체성: 마르틴 발저의 『유년시절의 수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2.

『조선대백과사전』, 1974, 제1권, 백과사전출판사, pp209~805.

- _____, 2001, 28권, 백과사전출판사.
- 조동운 · 서기주, 2012,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연구”, 『경찰 연구논집』, 제9호, p72.
- _____, 전병화, 2012,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책”,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호, p13.
- 조성철, 2010, 「탈북자의 정착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0.
- 조용관, 2010, “탈북자의 효과적인 교회정착지원 메뉴얼 북한선교대회교재”, pp36~42.
- 조한혜정 · 이우영, 2000, 『탈분단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공존을 위한 모색』, 삼인, p155.
- 주은주 · 오정수, 2011, “새터민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사회적 지지 영향 요인”, 『사회과학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채경희, 2007, 「북한 ‘인민반’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30~31.
- 최성근, 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와 개선 방안”, 『통일경제』 제2호, p76.
- 최영아 · 이주용 · 김정규, 2009, “남성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심리적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 최정진,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현황과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제 21집.
- 최창동, 2000,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
-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북한이탈주민정책 현황”.
- 하지현, 2012,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소통방법의 이해”, 『통일인문학논총』, 제53집, pp319~322.
- 한반도인권뉴스레터, 2009, “‘탈북자’-분단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인권운동사랑방.
- 허태석, 2002, “전사통지 받았던 형님이 국군포로로 생존, 거액 들여 탈출시킨 허태석씨의 비감의 사연”, 한국논단, 10호 pp47~71.
- 현인애, 2013,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35.
- 홍순혜 · 박윤숙 · 원미순, 2003,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 지역사회 정착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 『한국사회 복지학』, 52호.
- 황선영, 200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배제 요인”, 『사회복지정책』, 제36권 3호, p353.
- 황장엽, 2001, 『인생관』, 시대정신, p280.
- _____, 2003, 『사회역사관』, 시대정신, pp221~224.
- David G. Myers, 2008, 『마이어스의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p943.
- JTS자료 집, 2013, “北주민, 대법원서 친자확인소송 승소 첫 확정, 南부모 둔 北주민 유산 상속길 열려”.
- JTBC, 2013년 11월 11일, “‘남한 썩었다’ 북으로 돌아가는 탈북자들”.
- Jane Ribbens McCarthy, Rosalind Edwards, 2013, 『가족학의 핵심개념』, 시그마프레스, p135.
- MBN뉴스, 2014년 11월 12일 “러시아도 중국처럼?...북한과 ‘탈북자 강제 송환’ 협정”.

The research for North Korean defectors' re socialization process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method of unification-**

Abstract

**Kim Yun Ai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l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o find out the truth of hidden powers which affect North Korean defectors by case studies during the period of divided Korean peninsula which has been lasted for 70 years.

The thesis drew a comparis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s subjects of unification through studying the re-socialization proc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 questioning "How is the North Korean defectors' re-socialization process proceeding?" and "What are the influence factors for the process?" this research tried to find out the answ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unification in South Korea. For this research, Researcher analyzed the process of North Koreans' re-socialization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m by the methods of literature analysis, depths interview and reference data and so on.

North Korean defectors, when they were in North Korea, socialized tightly under strong nationalism and experienced colonial socialization by heavy institutional pressure and authority. The division of two

Koreas affected as a mechanism for North Koreans to draw their loyalty, obedience to hierarchy and ancestry for the upper class of the North Korea.

In North Korea, a family exists for the Nation. As 'a Cell', one family is subordinated to the nation's projects for so called 'the Revolution'. And marriage, conjugal and children relations are also similar or almost same as above. However, after economic crisis of North Korea, small changes happened. Experiencing market economy, families are getting independent from their country. Public spheres and private areas coexist in residential area which had been controlled by national authorities. In workplace in North Korea, people are performing their duty, obtaining their rights, identity and altruism. In terms of neighborhood, traditionally they have considered their relations with neighbors as important because North Koreans couldn't move easily. The ancestry has affected relations between family and experience of socialization as well as making controlled peoples' life and scars natural.

Escaping from North Korea doesn't mean only crossing the border line but also defiance against law, institution, surveillance structures and structure of nationalism. As illegal immigrants, North Korean defectors belong to new families in third countries for their survival with being exposed to cheap wedding markets as making their body commercialized. And gradually, as the desire for stability, status and human rights is growing, North Korean defectors decide to immigrate to South Korea in the long run.

North Korean defectors' re-socialization in Korea is the process of softening from country-supervised socialization to society-managed socialization. They have unstable family condition because of the escaping process with troubled life in many countries. The conjugal relations will be flexible afte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for the

reason that North Korean defectors prefer cohabitation to marriage so that they can go back to the ex-marriage life. In terms of raising their children, their roles as a parent should be multinational because their children can be separated in the world. In the workplace, North Korean defectors would experience career discontinuity from their academic abilities and their professional field. They would fail feeling sense of belonging and accomplishment which come from groupism. For the result, they are changed from public cells to private and isolated cells. The North Korean defectors would be separate from their neighbors and feel difficulties to make relations with others in South Korea. Due to South Koreans' concepts like disregard, discrimination, anticommunism and unique nationalism, North Korean defectors are just in the middle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as a just 'North Korean defectors'. Their life in South Korea represents how the public people can be changed, twisted and demolished by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Researcher tried to find out the answer for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perfect re-socialization in South Korea through this study. Deep scars have remained in the interviewer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undergoing re-socialization. When the divided country regime are dismantled and accomplish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North Korean defector can be settled as a social member in South Korea completely.

Key words: Korean defector, Authority, ancestry(background), Supervision, Group life, Relationship, Prejudice

Student ID number : 2012 - 23888